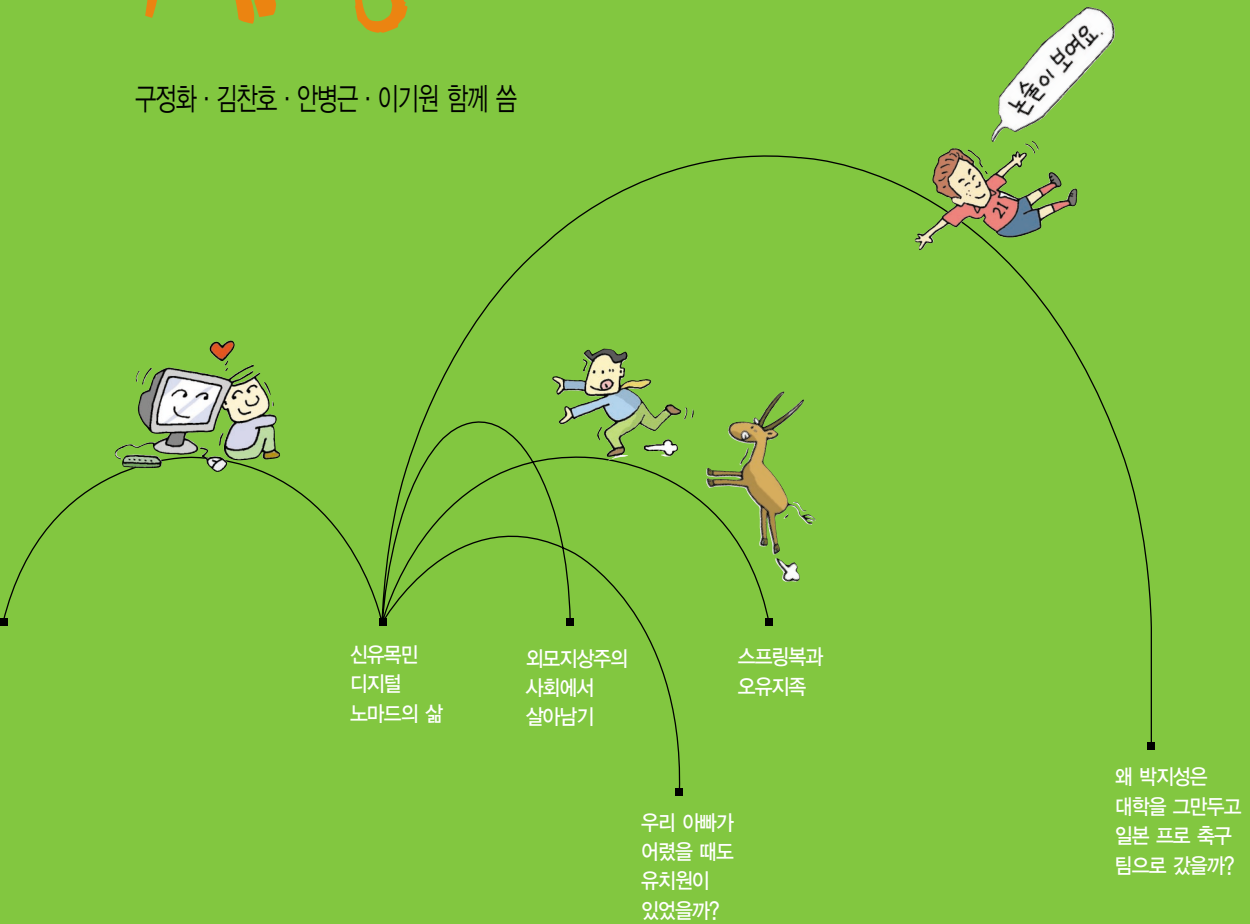


통계 속의 재미있는 세계 이야기

구정화 · 김찬호 · 안병근 · 이기원 함께 씀



1+37%

통계 속의 재미있는 세상이야기



나는 통계라고 하기에 분명 재미없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열 페이지 정도 넘기는 동안 이미 내가 그 책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에게서 최고라고 생각되는 작품이 있다. 최고의 영화가 벤허이고, 최고의 환타지 소설이 해리포터라면 이 책은 나에게 사회, 경제에 흥미를 준 최고의 책이다. - 창동중학교 3학년 홍문연

이제까지 나는 통계를 마냥 딱딱한 과목으로만 알았다. 그런데, '통계 속의 재미있는 세상이야기'를 보고 나서는 그런 인식이 크게 달라졌다. 이 책을 읽고 나서 나는 '통계를 보면 정말로 세상이 보인다'란 말을 하고 싶어졌다. - 계남고등학교 1학년 박근태

통계는 과학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과 사회에 대한 관심, 문제 해결의 실천 의지가 어려있는 철학일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책이다. 이 책은 통계에 근거하여 세상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사회의 변화를 읽고, 사회 문제에 대처할 수 있음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가르쳐준다. 한 마디로 재미있고 유익한 책이다. - 혜화여자고등학교 사회과 교사 이의동

무엇보다 글쓴이의 의도가 아주 건강하고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글을 써 내려갔다는 점이 높이 사고 싶다. 우리 집 두 아이가 이 책을 읽고 사회라는 거대한 톱니바퀴가 얼마나 작고 섬세한 톱니바퀴들과 연결 돼 있는지에 대해 좀더 잘 이해하는 인격체로 자랐으면 좋겠다. - 광명북고등학교 2학년 최한울의 어머니 김옥선



13+1
80



값 8,000원

9 788988 936900

ISBN 89-88936-90-6



통계 속의 재미있는

세상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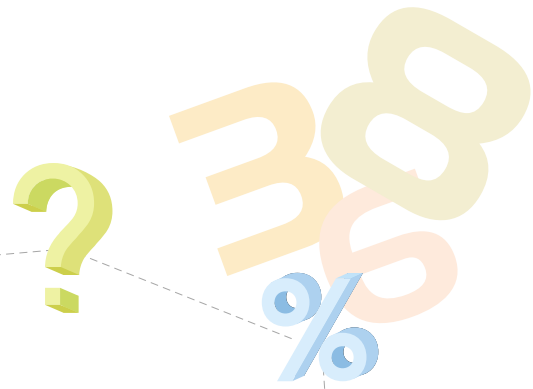
통계는 사회를 보는 눈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계' 하면 숫자로만 이루어진 지루하고 딱딱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그래프로 보여주면 한 번쯤 들여다보게 되지만, 사실 네모난 표에 딱딱하게 들어찬 숫자는 누구나 재미없다고 생각하기 쉬우니까요.

하지만 통계는 알고 보면 참으로 흥미로운 것입니다. 통계는 그 자체만으로는 무미건조한 숫자의 나열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분석하고 해석함으로써 우리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회의 모습, 변화 등을 읽어 낼 수 있습니다. 왜 축구 선수 박지성이 대학을 그만두고 프로 축구팀으로 갔는지 그 속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으며, 또 어떻게 학생들까지 휴대폰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짚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어떤 간식을 즐겨 먹는지를 알아서 간식 문화를 어떻게 바꿔 나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일반적으로 통계는 정부기관이나 기업 등에서 많이 이용합니다. 사회를 진단하거나 앞으로의 변화를 예측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내기 위해, 또는 상품의 판매 실적이나 미래 수요 등을 알기 위해서지요. 그러나 통계는 꼭 그렇게 공적인 일이나 사업적인 면에만 이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인들도 조금만 관심을 갖고 통계를 보면, 통계를 통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사회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통계가 세상을 보는 눈이 되어 주기 때문이지요.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은 통계 관련 이야기를 통해 사회를 보는 눈을 키워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 고령화 문제, 외국인 노동자 문제, 여성 문제, 쌀 시장 개방 문제, 비정부기구(NGO) 등을 비롯하여 다이어트 열풍, 주5일제, 애완동물, 자동차 등이 그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학생 여러분의 논술 능력을 키우는 데도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물론 이 글들은 하나의 견해일 뿐,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실린 글과는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좀더 발전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다양하고 흥미로운 글들을 읽으면서 통계가 딱딱하고 지루한 학문의 영역이 아니라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친숙한 것이며, 사회를 보는 눈이 되어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훌륭한 글들을 써 주신 구정화·김찬호·안병근·이기원 선생님, 학생들과 함께 글을 읽어 보고 의견을 주신 서범석·차성민 선생님, 그리고 이 책이 나오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 8월 통계청장 오 종 남



사고력을 키우는 데 도움되는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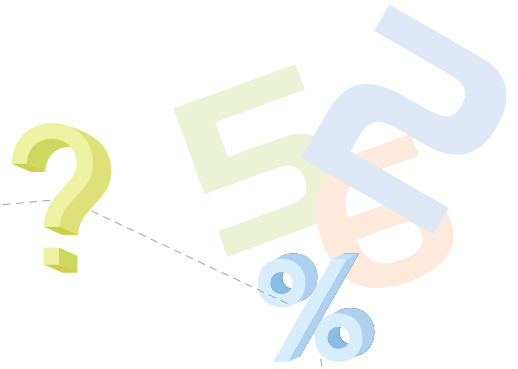
정부대전청사로 오종남 통계청장님을 뵈러 갔다가 중·고등학생을 위한 통계 관련 책자를 펴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부기관에서 내는 그저 그런 종류의 홍보용 책이려니 생각하고, 인사치레로 한번 보자고 했지요. 거의 마무리 단계의 가제본(假製本)된 책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과는 달리 표지부터 매우 세련되게 만든 그 책은 통계를 소재로 한 아주 독특한 것이었습니다. 책장을 넘겨 가며 몇 편의 글을 읽어 보고는 ‘아, 통계를 직접 이야기하지 않으면서도 통계가 무엇이며 어떻게 쓰이는지를 이렇게 알기 쉽게 기술할 수가 있구나!’ 하고 감탄하였습니다.

더 읽어 보고 싶은 마음에 책을 빌려 가지고 집에 와서 찬찬히 보았습니다. 하나 하나의 글들이 모두 흥미롭고 관심을 끌 만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데다, 재미있는 예화를 들어 가며 논리적으로 설명해 놓아서 중·고등학생들에게 읽기 좋은 자료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집중하여 읽을 수 있도록 글의 길어도 적절하고, 재치 있는 삽화와 만화도 있어 재미있게 단숨에 읽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요즘 책은 넘쳐날 정도로 많지만, 통계 관련 이야기를 통해 사회를 보는 안목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쓴 책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현대인이





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다양한 사회문제에 관하여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짧지만 예리하게 분석한 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누구든지 부담 없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논리적 사고력과 사물에 대한 통찰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아주 효과적일 듯싶어 학생들에게 꼭 읽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책을 다 읽어 보고 나니, 이 한 권의 책을 만들기 위해 여러 사람들이 참으로 고생 많이 했겠구나 싶으면서 부러운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통계가 실생활 속에서 얼마나 중요하며 또 어떻게 사회를 보는 눈이 되는지를 알게 모르게 홍보하면서, 동시에 학생들에게 좋은 읽을 거리를 선사하게 되니 정말 보람된 일이 아니겠는가 싶어서였지요.

이 모든 것이 열린 사고를 중시하고 업무추진력이 탁월한 통계청장님과 맡겨진 일에 열과 성을 다하는 직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물론 좋은 글을 써 주신 분들의 노고가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겠지요. 이 책이 나오기까지 애쓰신 모든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중·고등학생들뿐 아니라 학부모님들에게도 한번 읽어 보기를 권하는 바입니다.

2003년 8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이 종 승

차례




1부 **생각은 합리적으로**

왜 박지성은 대학을 그만두고 일본 프로 축구팀으로 갔을까? 10


학생들에게 휴대폰은 필수? 15

안 쓰는 물건과 선물의 관계 19

 **만화** 우리 아빠가 어렸을 때도 유치원이 있었을까? 23

신용카드가 사람 잡네 31

과거는 과거일 뿐! 36

 **만화** 말발굽에 채어 죽은 군인은 얼마나 될까? 40

조삼모사? 조사모삼? 48


스프링복과 오유지족 53

 **사랑은 영원할 수 있을까?** 60

2부 **사회에 관심을**


우리에게 자동차는 무엇인가? 64

아이를 낳으세요, 돈을 드립니다 69

 **만화** 대통령 선거 개표 방송을 보면서... 75

이사를 몇 번 더 가야 우리 집이 생길까? 82

우리의 평균 수명은 얼마나 될까? 87

 **만화** 동생에게 소아마비 예방 백신을 맞히면서... 91

소득으로 본 난쟁이와 키다리 97




밀밭이 왜 사라졌을까? 102

 **우리의 선택은?** 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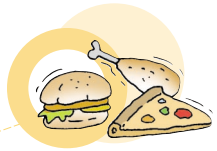
3부 함께 만드는 큰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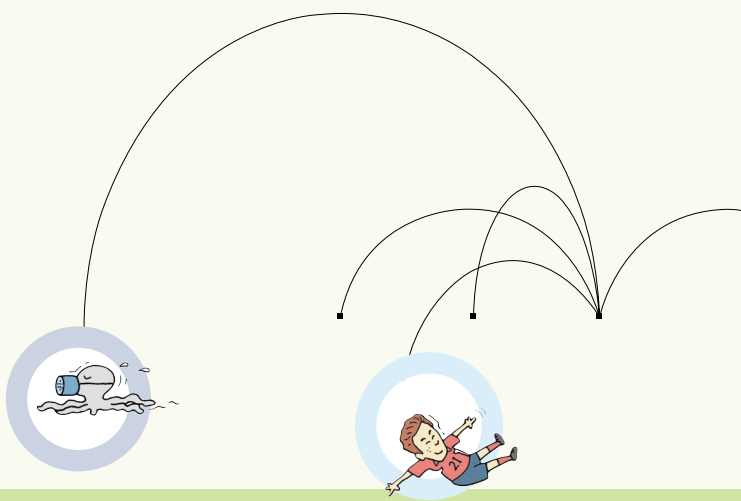
- 민주주의를 위한 밑거름, NGO 110
- 1%로 만드는 큰 세상 115
- 우리의 이웃, 외국인 노동자 121
-  **만화** 코미디언 이주일 씨를 추모하면서 127
- 소년 소녀 가장은 즐고 있는가 133
- 새로운 가족, 애완동물 138
-  **만화** 우리 반에 생일이 같은 아이가 있어요 143
-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 어디 갔나? 150
- 우리 나이 일흔엔... 156
- 베트남 신부와 결혼하세요 161
-  **외국인의 눈에 비친 한국인** 1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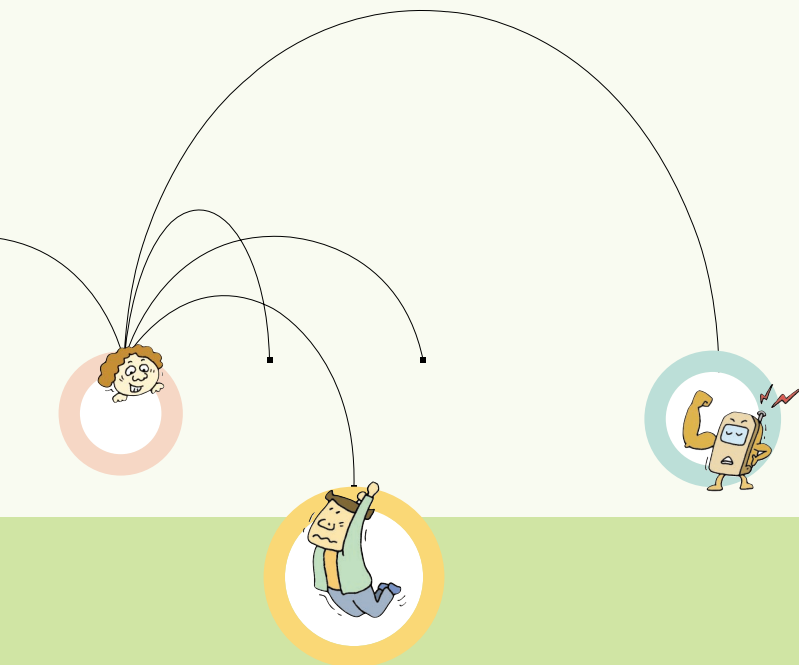


4부 우리 시대 우리 이야기

- 만일에 한글이 없었다면? 170
- 외모지상주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175
-  **만화** 나의 진짜 몸무게는? 181
- 으~ 간식에 살고 간식에 죽고... 189
- 지금 무슨 책 읽고 있나요? 195
- 신유목민, 디지털 노마드의 삶 200
-  **만화** ‘책을 많이 읽는다’ 에 두 가지 뜻이 있다고? 205
- 주5일제 시대의 라이프 스타일 211
- 숫자가 말하는 여자의 일생 217
- 나와 같은 성(姓)을 쓰는 사람은 얼마나 되나? 223
-  **맹모삼천지교가 집값을 올린다?** 228







1부

생각은 합리적으로

왜 박지성은 대학을 그만두고 일본 프로 축구팀으로 갔을까?

학생들에게 휴대폰은 필수?

안 쓰는 물건과 선물의 관계

우리 아빠가 어렸을 때도 유치원이 있었을까?

신용카드가 사람 잡네

과거는 과거일 뿐!

말발굽에 채어 죽은 군인은 얼마나 될까?

조삼모사? 조사모삼?

스프링복과 오유지족

쉬어 가는 코너 사랑은 영원할 수 있을까?



왜 박지성은 대학을 그만두고 일본 프로 축구팀으로 갔을까?

노란 숲 속에 길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음으로 해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 종략 -

훗날에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

이리 와서
축구를!!



이리로!!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 생각나

아니!
이리로!

앞의 시 <가지 않은 길>은 미국의 국민시인이라고 일컬어지는 로버트 프로스트의 유명한 작품이다. 이 시에서 작가는 한순간의 선택으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는가를 숲 속의 두 갈래 길에 비유하여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다.

우리의 삶은 이 시가 말하듯이 '선택' 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는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계속 선택을 한다. 우선, 아침에 잠이 깨면 바로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뒤척이다가 일어날 것인가를 선택한다. 또 아침은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학교는 몇 시에 갈 것인가, 친구와 놀 것인가 공부할 것인가, 잠은 몇 시에 잘 것인가 등등 하루 종일 아주 사소한 것들을 선택하게 된다. 그런가 하면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대학에 진학할까 말까, 진학한다면 어느 대학 어느 학과로 갈 것인가, 결혼을 할까 말까, 한다면 누구와 할 것인가 등은 자신의 인생을 크게 바꿔 놓을 수 있는 선택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인생을 좌우할 선택들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한 선택은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할까? 축구선수 박지성의 경우를 예로 생각해 보기로 하자.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박지성 선수는 강인한 체력과 타고난 근성으로 2002년 월드컵에서 한국 팀이 4강에 진출하는 데 큰 공헌을 했다. 특히 16강 진출을 결정할 포르투갈전에서 그가 차 넣은 환상적인 결승골은 많은 축구팬들의 뇌리에 선명하게 남아 있다. 그런데 박지성 선수는 명지대학교 2학년 때인 2000년 5월, 휴학을 하고 일본 프로 축구팀(J리그) '교토 퍼플 상가'에 입단하였다. 왜 박지성 선수는 대학을 마치지 않고 프로팀으로 갔을까?

당시 박지성 선수의 일본 J리그 진출에 대하여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의 일본행이 너무 빠르다는 것이었다. 일본에서 성공한 선수들은 대개가 국내 프로 축구에서 자기 스타일을 완전히 굳히고 응용할 수 있는 홍명보, 황선홍, 유상철, 하석주 같은 노장 선수들이었다. 박지성 선수처럼 자신의 축구 스타일이 정착

아니!
이리 오소서!!

이리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이 다른 일본에 진출하면 혼란을 겪게 될 우려가 있었다. 또 박지성 선수가 입단할 교토 퍼플 상가는 J리그의 최하위팀이다 보니 그 팀이 2부 리그로 추락할 가능성도 있고, 그럴 경우 2류 선수로 전락할 위험도 있다는 게 또 다른 이유였다. 박지성 선수 역시 이런 점들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교토 팀에서 입단 제의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고심했을 것이다.

이때 박지성 선수가 선택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은 대학에 계속 다니면서 축구 실력을 닦아 훌륭한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면 대학 졸업 후에 별 위험 요인 없이 한국이든 일본이든 더 좋은 조건으로 프로팀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체육 특기자로 등록금을 내지 않아도 되니 대학 학비도 들지 않는다.

두 번째 길은 휴학을 하고 일본 교토 팀으로 가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일본 축구에 적응하지 못하여 2류 선수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토 팀이 제안한 연봉 5천만 엔(약 5억 원)과 경기마다 지급되는 출전 수당 3십만 엔(약 3백만 원)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이 두 갈림길에서 박지성 선수는 두 번째 길을 선택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길을 가면 등록금 부담 없이 훌륭한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편익이 있지만, 두 번째 길을 갈 때 얻을 수 있는 연봉 5억 원과 출전 수당은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개 그로 인해 잃는 것(이것을 경제학에서는 '기회비용'이라고 한다)이 무엇이나 하는 것이다. 실제로 박지성 선수가 2000년 초에 J리그의 시미즈 S펄스 팀으로부터 첫 제의를 받았을 때는 대우가 C급이라서 거절했지만, 이번 교토 팀의 경우에는 주전급(A급) 대우를 약속해서 제의를 받아들였던 것이다. 즉, 시미즈 S펄스 팀에는 가지 않아도 잃는 것(기회비용)이 크지 않지만, 교토 팀에 가지 않을 경우에는 잃는 것이 컸기 때문이다.

아래의 글은 2002년 12월 22일 《굿데이 신문》의 기사 내용이다. 이 무렵은 박지성 선수

가 히딩크 감독이 이끄는 ‘네덜란드 프로 축구팀 아인트호벤으로 이적할 것이냐’가 한창 관심거리였던 때였다.

이제 박지성 선수는 또 다른 두 갈래 길에 서 있다. 과연 그는 어떤 길을 선택할까? 기사에서와 같이 ‘한국은 유교의 나라이므로 부모의 말씀을 따라’ 교토 서포터스의 간절한 바람을 들어줄까, 아니면 교토 팬들의 간절한 바람을 뒤로 하고 네덜란드로 갈까?

우리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박지성 선수가 교토 팀에 남아 있을 때의 기회비용을 따져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인트호벤은 박지성 선수에게 3년 6개월에 420만 달러(약 51억 원)라는 거액을 제안했

교토 팬 페이지: 박지성 떠나지 마..

교토 서포터스가 “오~ 필승 코리아!”를 부르며 박지성의 잔류를 애원하고 있다. 박지성이 J리그 피날레 골을 터뜨린 지난달 30일 이치하라전 이후 야후 재팬의 교토 퍼플 상가 팬 페이지 게시판은 연일 박지성에 관한 글들로 메워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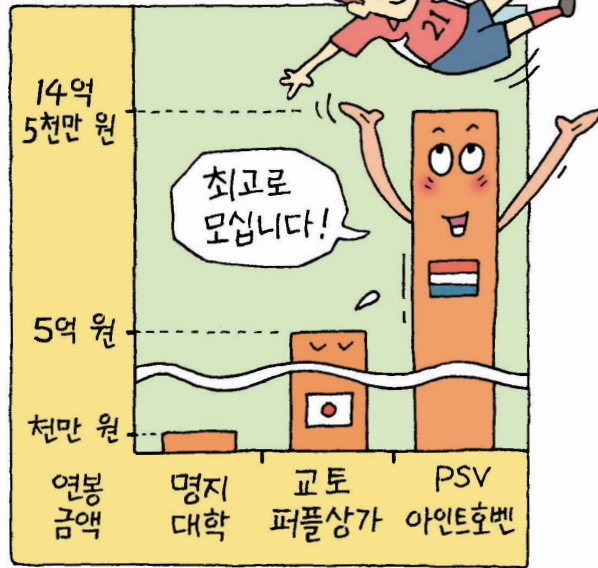
astonhilla라는 ID의 한 일본인 팬은 “이치하라전에서 박지성의 동점 골이 터진 뒤 교토 서포터스가 ‘오~ 필승 코리아’를 불러 그의 부모를 감동시켰다”면서 “만일 박지성이 잔류를 결정한다면 그때 목놓아 노래를 불렀던 서포터스의 힘이 크다”고 주장했다. 현재 교토 팬들은 박지성의 잔류를 애타게 기원하고 있다. 그들은 “월드컵 스타가 교토를 떠나면 교토의 내년 시즌 2부 리그 추락은 볼 보듯 뻔하다”고 주장하며, 구단에 “박지성을 붙잡기 위해 노력하라”고 위협(?)하고 있다.(중략)



박지성의 이적을 못 믿겠다는 팬들도 있다. 이들은 아직 잔류 가능성이 남아 있다며 “박지성 선수의 결단을 기다려 보자”고 말한다. 특히 power_roh라는 ID를 쓰는 팬은 “박지성의 아버지가 아들의 잔류를 권유했다”는 《닛칸스포츠》 2일자 기사를 게시판에 링크하며 “한국은 유교의 나라이므로 박지성이 부모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박지성의 잔류를 원하는 일본인들의 간절한 바람은 지금도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 구단별 박지성의 연봉



* 주 : 명지대학에서의 연봉은 대학의 1년 등록금 면제 금액임

다. 이것은 박지성 선수가 교토 팀에서 받고 있는 연봉의 약 2.9배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이다. 따라서 교토 팀에 남아 있게 되면 그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교토 팬들의 열렬한 사랑에 감사하지만, 박지성 선수는 결국 네덜란드행을 선택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 실제로 박지성 선수는 2003년 1월 7일 아인트호벤 팀과 입단 계약을 하였고, 현재 네덜란드에서 뛰고 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박지성 선수와 같은 선택을 했을까, 아니면 일본에 남았을까? 아마 심중팔구는 그와 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다.

박지성 선수가 네덜란드에서도 지난 월드컵과 일본에서처럼 기량을 한껏 발휘해 대한민국을 빛낼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성원을 보내자.

박지성, 파이팅!



학생들에게 휴대폰은 필수?

시대마다 달라지는 부(富)의 상징

10세에 즉위하여 18세의 젊은 나이에 죽은 소년 왕 투탕카멘. 1922년 그의 무덤이 발굴되었을 때, 거기에 부장된 엄청난 보물 때문에 온 세계가 떠들썩했었다. 그 부장품 가운데 특이한 것은 석고로 만든 향수 담은 항아리였다. 3,000여 년이나 지난 발견 당시까지 은은한 향기가 남아 있어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 왕의 무덤에 부장된 것으로 보아 당시엔 향수가 귀중품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투탕카멘 : 고대 이집트의 왕
부장품 : 무덤에 함께 묻는 물건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마지막 여왕 클레오파트라라는 붉은 돛을 단 카레션 위에서 감송과 육계의 향기를 미풍에 실어 보내 로마의 안토니우스를 유혹했다. 당시 그녀는 매일 감송유를 몸 전체에 발랐으며, 목욕 후에는 장미, 수선, 백합 등의 향내가 담긴 향유를 사용했고, 집안을 늘 향으로 채웠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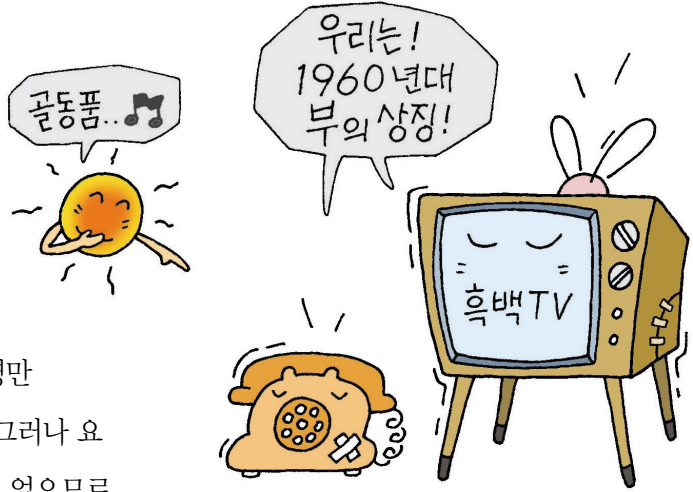
감송과 육계 : 향료의 원료가 되는 나무들
향유 : 향기 나는 화장용 물기를
안토니우스 : 로마 시대의 정치가

향수는 이집트에서 그리스와 로마 등으로 퍼져 귀족들의 기호품으로 사용되면서 고대 귀족들의 권력과 부를 상징하는 물건이 되었다. 그래서 평민들이 향수를 갖는다는 건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오늘날은 클레오파트라가 썼던 향수보다 더 좋은 향수가 많이 나와 있고 값도 그리 비싸지 않다. 때문에 향수는 이제 더는 부의 상징이 아니다.

향수가 한때 부의 상징이었듯 전화와 TV가 우리나라에서 부의 상징이던 때가 있었다. 1960년대만 해도 집에 전화가 있는 가정은 매우 드물었다. TV(흑백)를 가진 집도 드물었다. 한 마을에 한두 집 있을까 말까 한 정도였으니까. 일부 부잣집들만이 전화와 TV를 함께 가

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화와 TV는 부의 상징이 될 수 있었다.

이것은 1960년대의 전화보급률 통계를 보아도 알 수 있다. 1960년의 전화보급률은 0.3%로서, 1,000명 중 단 3명만이 전화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요즘은 전화와 TV가 없는 집이 거의 없으므로, 전화나 TV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부의 상징이 아니다.



이처럼 부의 상징이 되는 물건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한다. 물론 보석처럼 변함없이 부의 상징이 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중·고등학생들이 휴대폰을 갖게 된 배경에는

우리나라에 휴대폰이 처음 등장한 것은 약 20년 전인 1984년이다. 당시에는 웬만한 부자가 아니면 휴대폰을 가질 수 없었다. 가격이 331만 원이나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시 휴대폰은 부의 상징이었다. 초창기에 아이들 팔뚝만한 큼직한 휴대폰을 들고 고급 승용차 옆에서 보란 듯이 통화하는 모습은 당시 부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였다. 그런 사정이었으니 당시에 학생들이 휴대폰을 가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던 것이 최근에는 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도 휴대폰을 가지게 되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시작된 1984년에 휴대폰을 가진 사람은 전국에 겨우 2,730여 명에 불과했는데, 2003년 3월에는 3,300만 명에 육박한다. 우리나라 인구 100명당 68.6명, 다시 말해 3명 중 2명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휴대폰은 우리나라에서 더는 부의 상징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중·고등학생들까지도 휴대폰을 가지게 되었을까? 물론 학생들이 갖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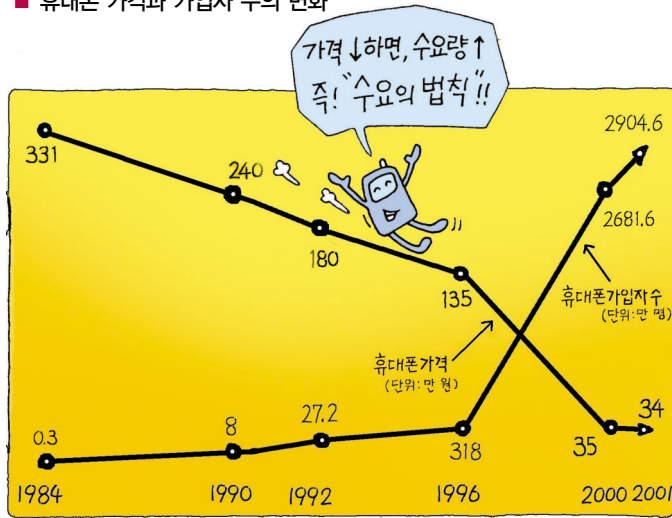
원했고, 부모들이 사 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학생들이 휴대폰을 사달라고 조를 수 있었으며, 부모들은 기꺼이 사줄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두 가지 요인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첫째는 휴대폰 가격이 많이 하락하여 예전처럼 비싸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휴대폰이 처음 나왔던 1984년처럼 가격이 331만 원이라면 학생들이 감히 사달라고 조를 수 있었을까? 그리고 자식이 조른다고 부모가 사줄 수 있었을까? 하지만 요즘은 휴대폰 가격이 20만 원에서 60만 원 선으로 초창기에 비해 훨씬 싸졌다. 기술의 발달로 크기도 작아지고 기능도 다양해져서 품질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졌다. 이 점을 감안하면 가격은 엄청나게 싸진 셈이다. 이같이 가격은 하락하고 품질은 향상된 것이 학생들이 휴대폰을 많이 가지게 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제품의 가격이 낮아지면 사람들은 그것을 더 사게 되고, 가격이 높아지면 덜 사게 된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수요의 법칙’이라고 한다. 말하자면 중·고등학생들까지도 휴대폰을 가지게 된 것은 바로 ‘수요의 법칙’이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우리나라 가정의 형편이 과거보다 많이 좋아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휴대폰이 등장한 초창기에는 가격도 엄청나게 비쌌지만, 우리 국민들이 그 가격을 치르고 휴대폰을 구입

■ 휴대폰 가격과 가입자 수의 변화



* 자료 : 정보통신부

할 만큼 잘살지도 못하였다. 그러니 소수의 부자들만이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휴대폰 가격과 통화료가 지금도 만만한 건 아니지만, 요즘은 사람들의 살림살이가 과거보다 훨씬 나아져 그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만하게 되었다. 이 또한 통계 자료로 살펴보면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다. 1인당 국민

소득이 1984년에는 2,190달러에 불과했지만 2002년에는 10,013달러로 4.6배가 늘어났다. 그래서 자녀에게 휴대폰을 사줄 만한 경제적 여력이 생긴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 : 국민 한 사람이 1년 동안에 벌어들인 소득

휴대폰이 대대적으로 보급되면서 이젠 휴대폰으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 공공장소에서의 소음 발생 증가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 결과, 운전 중 휴대폰 사용과 공공장소에서의 휴대폰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규제에 앞서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삼갈 줄 아는 시민의식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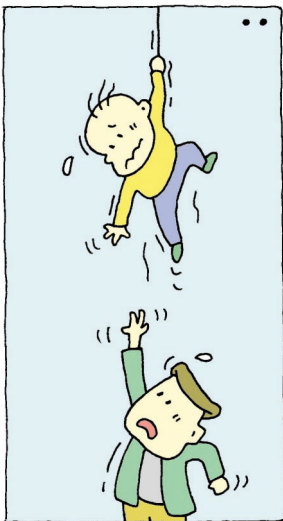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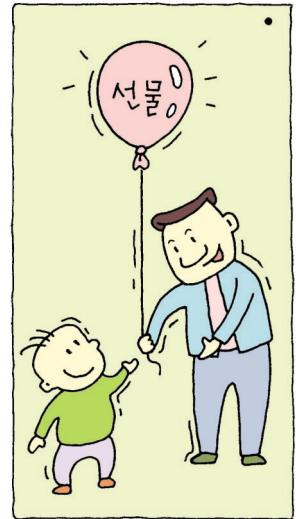
안 쓰는 물건과 선물의 관계

선물 구입에 돈을 많이 쓰는 한국인

한국인들은 유난히 선물을 많이 주고받는다. 해외 여행이 흔한 일이 되었는데도, 해외 여행을 다녀오면 꼭 선물을 돌려야 한다는 강박관념 같은 것이 있다. 그래서 외국 여행이나 신혼 여행을 가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줄 선물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된다. 그런 연유인지는 몰라도 여행 경비보다 더 많은 돈을 쇼핑에 쓰는 관광객들도 적지 않다.

해외 여행뿐만이 아니다. 추석이나 설날 같은 전통 명절에다가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그리고 밸런타인 데

이와 화이트 데이처럼 상업적으로 만들어진 축일 등 사회적으로 기념하는 날에도 선물을 주고받는다. 또한 개인적으로 생일이나 백일 및 돌, 회갑이나 결혼 축하 선물도 만만치 않다. 몇 해 전 통계에 의하면 한국 가계 지출에서 선물 비용으로 들어가는 비율은 7.5%로, 대개 2% 미만인 서구 가계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살펴보니

우리는 경사스러운 일을 축하하거나 명절에 마음을 표시할 때, 또 인간관계를 확인하고 강화해 가는 데 대개 선물을 주고받는 방식을 택한다. 워낙 물건이 귀하고 가난했던 시절에는 웬만한 선물도 고마웠다. 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 경제 성장과 함께 늘어난 중산층 가정에는 웬만한 물건은 다 있다. 우리의 생활 공간은 온갖 잡다한 물건들로 차고 넘친다. 그것은 이사할 때 확연히 드러난다. 너무나도 아까운 물건들이지만 어찌지 못해 버리는 경우도 많다. 도대체 그 많은 물건들을 언제 다 들여놓았는지 스스로도 의아할 지경이다.

1997년 서울 YMCA에서는 이색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생활용품을 조사하여 그 통계를 발표했다. 대상이 된 100군데의 가정에서 평균 한 가정당 196개의 물건을 쓰지 않은 채 보관·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사용하지 않는 생활용품 가운데 선물로 받은 물건이 각 가정당 60개로, 전체의 31%를 차지했다. 다시 말해 각 가정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물품 3개 가운데 1개는 선물, 사은품 등 직접 구입하지 않은 물건인 것이다.

■ 안 쓰는 생활용품 중 선물로 받은 물건의 비율(상위 품목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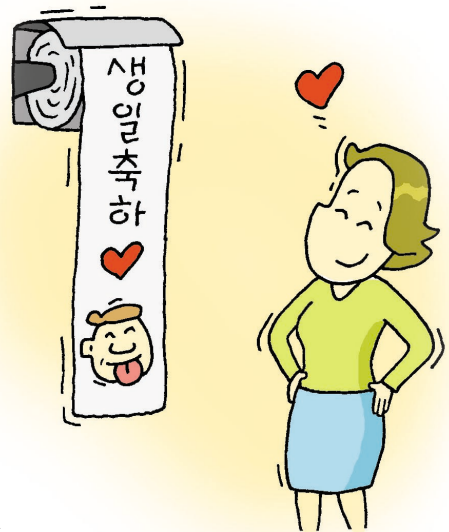
여성용 향수	75%	로션, 화장품	52%	기념품	48%
넥타이핀	63%	손수건	52%	찾잔 세트	46%
만년필	61%	비누	51%	탁상용 시계	45%
수건	59%	사진틀(액자)	51%	액세서리	43%
남성용 향수	56%	지갑	50%	(목걸이, 귀걸이, 반지 등)	
스카프	53%	손목시계	49%	장갑	43%
우산	53%	립스틱	49%	넥타이	41%

선물은 받는 순간에는 즐겁지만 일단 자기의 물건이 되면서부터는 오히려 짐이 되어 버릴 때가 많다. 문제는 그러한 물건들에는 준 사람의 성의가 담겨 있어 함부로 처분하지도 못한 다는 것이다. 사용하지 않는 생활용품 가운데 선물로 받은 물건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여성용 향수, 넥타이핀, 만년필, 수건, 남성용 향수, 스카프 등이 조사되었다. 대부분의 사

람들이 쉽게 선물로 떠올리는 품목들이 실제로는 가장 사용하지 않는 물건인 것이다. 또한 유통업체나 기업체 등에서 나눠주는 각종 사은품도 실제로는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이 많아 결과적으로 자원을 낭비하고 쓰레기를 늘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볼펜 같은 실용품들은 언젠가 쓸 수 있지만, 장식품 같은 것은 진열장이 가득 차고 나면 어디에 두어야 할지 난감할 때가 많다.

이런 선물은 어떨까?

선물의 가치는 주고받는 기쁨과 그 물건에 담긴 정성에 있다. 다시 말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나 쓰임새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이다. 어쩌면 선물이 자꾸만 비싸지고 고급스러워지는 것은 그러한 의미를 제대로 담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선물 가운데 평생 잊지 못하는 것, 그래서 언제까지나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은 것은 얼마나 되는지 헤아려 보자.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준 선물 가운데 그 사람에게 그런 추억으로 남을 만한 것은 얼마나 되는지 짐작해 보자.



결혼 선물로 돌(石)반지를 아내에게 선사한 사람이 있었다. 외국 여행 중 몽블랑 기슭에서 주문 조약돌을 신부에게 건네주었더니, 치과 의사인 장인이 이빨 깎는 기계로 곱게 다듬고 미술가인 장모가 주위에 테를 돌렸다. 강과 숲과 새소리가 담겨 있는 그 은은한 장식품은 매우 독특해 거리에서 못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고 한다.

가난하게 사는 어떤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을 받은 이야기도 있다. 함박눈이 가득 내린 날 아내를 데리고 공원에 간 남편이 멀리서 몰래 뭔가를 하더니 아내를 불

렸다. 손짓을 따라 가 보았을 때 시야에 들어온 것은 하얀 눈밭 위에 색색의 낙엽을 주워모아 만든 글씨 ‘축 성탄’, 그리고 축하 케이크 대신 나누어 먹을 호빵 두 개.

우리가 받은 선물 가운데 정말 귀한 것은 무엇일까? 아마도 그 사람이 아니면 줄 수 없고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물건이 아닐까? 비닐 빵봉지를 이용해 손수 만든 작은 짬신을 사형수로부터 선물 받은 어떤 수녀님은 그것을 행운의 마스코트인 양 목주에 달고 다니며 기도할 때마다 하늘로 간 그를 생각한다고 한다. 이렇게 오랜 손길이 닿은 선물에는 소중한 추억과 애정이 살아 숨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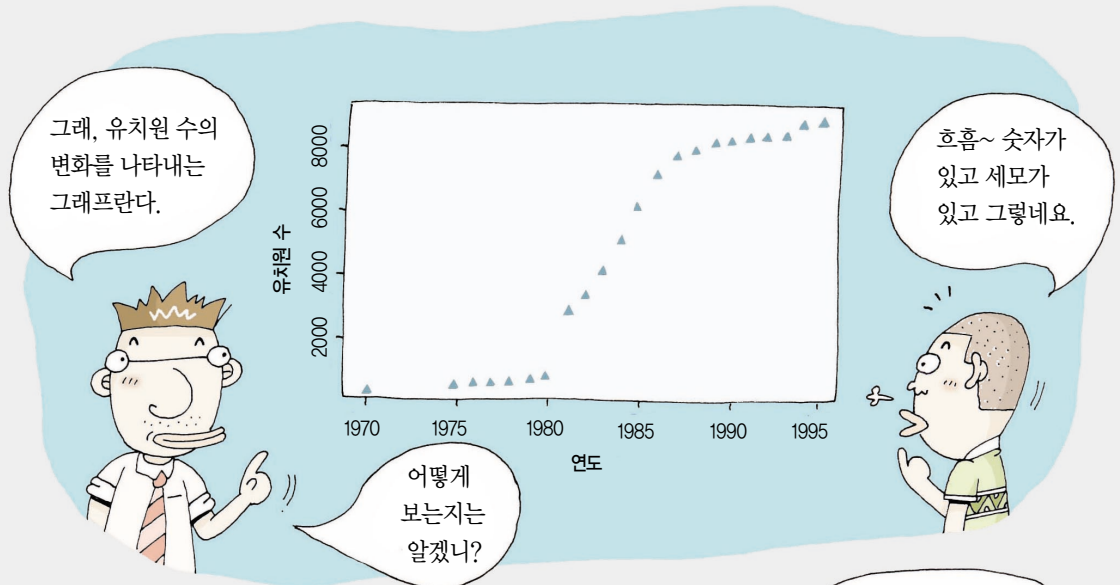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선물은 꼭 새것이어야 하는가이다. 선물은 꼭 새것이어야 할까? 선물의 가치가 어차피 거기에 담긴 의미와 정성이라고 한다면, 내가 소중하게 아끼던 물건이 훨씬 귀한 선물이 될 수도 있다. 또 다른 누군가에게 받은 선물이라도 거기에 담겨 있는 사연을 들려주면서 선사한다면 받는 기쁨이 배가될 수도 있다. 실제로 폴리네시아 지역의 어느 원주민들은 목걸이와 팔찌를 선물로 주고받는데, 받은 사람은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주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물건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연결해 주며 공동체의 결속을 다져 주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도 서로가 알고 지내는 알음알이들 사이에서는 그런 식의 선물 문화를 실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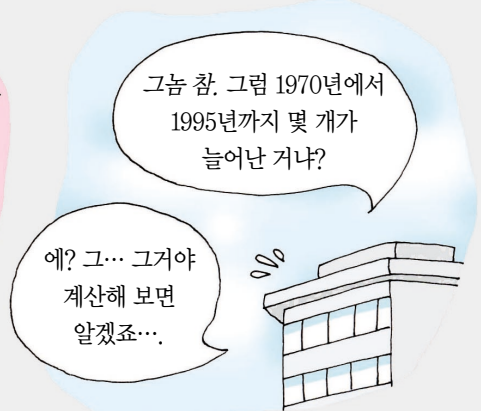
선물은 주는 쪽이나 받는 쪽이나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 몇 해 전, 부모들의 선물 때문에 모든 학교가 스승의 날 일제히 휴교를 한 적이 있었다. 우리의 선물 문화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일이었다. 물건에 의존하지 않고도 말 한 마디나 짝막한 글 한 줄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풍토, 그것이 바로 문화의 수준이 아닐까.

우리 아빠가 어렸을 때도 유치원이 있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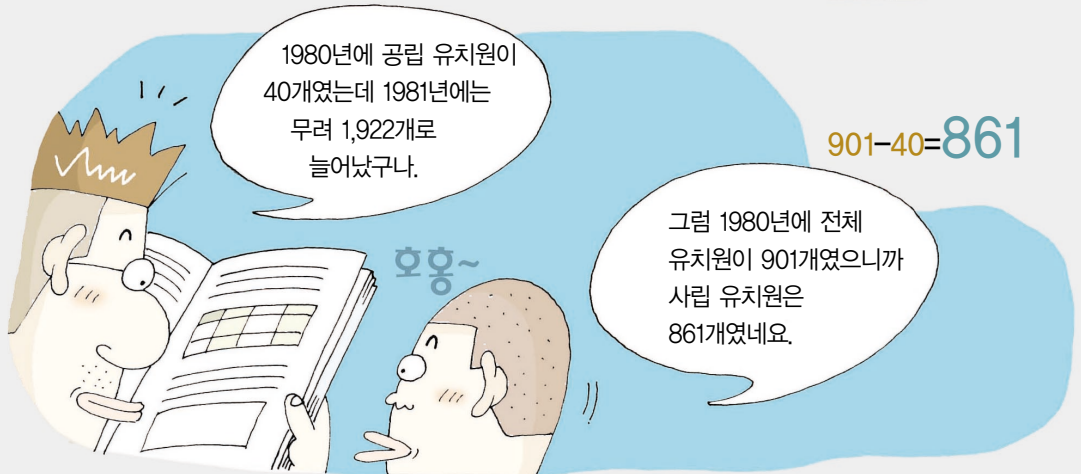


이 당시의 사회 분위기는 유아 교육이 국가 발전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인식이 팽배하였다.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1981년 대통령 연두교서에서 조기 교육의 필요성 및 중요성이 거론되었다.
 따라서 1981년은 우리 정부가 유아 교육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개입한 해라고 볼 수 있다.



▶ 문교부는 지금의 '교육인적자원부'로, 내무부는 '행정자치부'로 바뀌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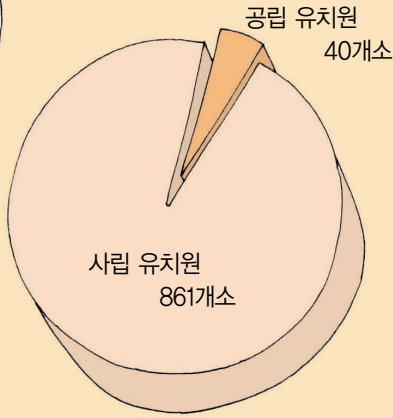
	전체 유치원 수	공립 유치원 수	사립 유치원 수
1980년	901	40	861
1981년	2,958	1,922	1,0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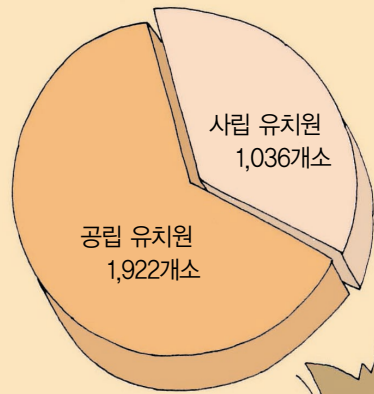
하~ 이렇게
원그래프로 그려
놓으니까 비율의
변화를 한눈에 알 수
있네요~.

공립의 비율이
굉장히 조금이었다가
확~
늘어났어요.

1980



1981



그래, 반면에
사립의 비율은
1년 사이에
폭~ 줄어들었고.

그리고 보니...
통계라는 게 사회의
변화를 쉽게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네요.

하하~ 그럼!
그래서 통계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고
하는 거란다.

맞아요~
헤헤헤~.



신용카드가 사람 잡네

아래 기사들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신용카드 빚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카드 빚을 갚기 위한 살인 사건이 빈발하고 있으며, 심지어 부모까지 살해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딸의 카드 빚을 비판하여 60대 아버지가 목숨을 끊은 사건은 우리를 더욱 안타깝게 한다. 신용카드가 사람을 잡고 있는 것이다.

여성 5명 연쇄 살인, 최대 엽기

신용카드는 잘 쓰면 보약이지만 잘못 쓰면 독약이 된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2002년에 가장 먼저 카드 빚과 관련해 전국을 강타한 사건은 대학생 4명이 수방사에서 총을 뺏고 은행을 턴 20대 초반의 범행이다. 한창 공부해야 할 학생들이 목돈을 노린 이유는 다름 아닌 카드 빚.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자동차 구입 할부 대금과 카드 빚 1천5백만 원을 갚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지난 4월 경기 지역에서 발생한 ‘여성 5명 연쇄 살인’ 사건은 잘못된 신용카드 남용으로 빚어진 올해 최대 엽기적 사건이다. 범행 동기는 카드 연체 대금 8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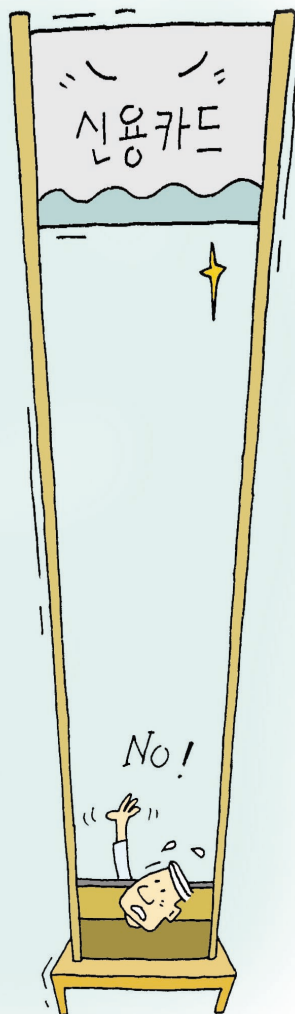
이 달에 신용카드 대금 연체의 압박이 연쇄 살인으로 귀결된 것은 이뿐만 아니었다. 같은 경기 지역에서 3인조 연쇄 강도 살인범이 7명의 목숨과 함께 빼앗은 돈으로 밀린 신용카드 대금을 갚은 게 경찰에 적발됐다. - 《일요시사》, 2003. 1. 7

딸 카드 빚에 60대 아버지 자살

딸이 진 역대 신용카드 빚을 비판한 60대 아버지가 카드사들을 원망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3일 오후 5시 30분쯤 서울 도봉구 방학2동 1초등학교 뒷산에서 최모 씨(61, 무직)가 농약을 마시고 숨져 있는 것을 등산객이 발견했다. 경찰은 최씨의 상의 안주머니에서 “딸이 1억 5천만 원 가량의 카드 빚을 지는 바람에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수십여 장씩 카드를 마구 발행해 준 카드사들의



행태가 너무 분하다.”는 내용의 유서가 나온 점으로 미루어 최씨가 딸의 역대 카드 빚을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 《경향신문》, 2003. 4. 14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우리 사회의 이러한 비극은 이미 예정된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거나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연체 금액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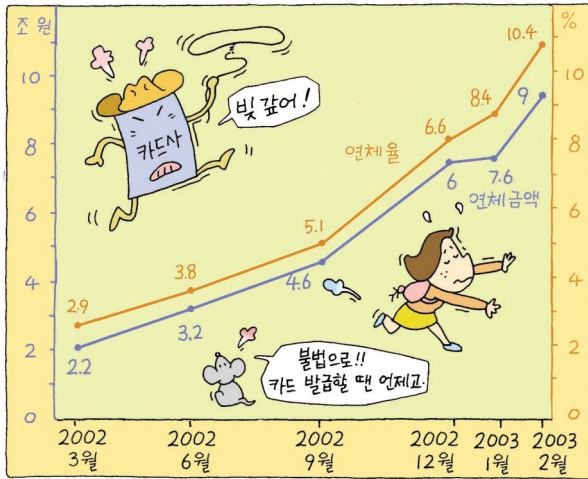
연체율 : 신용카드 대금을 갚지 못하는 비율

었고, 연체율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사용 대금을 1개월 이상 연체한 금액이 2002년 3월 말에는 2조 2천억 원이었으나, 12월 말에는 그 2배가 넘는 6조 원에 이르렀고, 2003년 2월 말에는 9조 원으로 늘어나는 등 신용카드 빚 연체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 대금을 1개월 이상 연체한 비율도 2002년 3월 말에 2.9%였던 것이 12월 말에는 6.6%로 증가하였고, 2003년 2월 말에는 10.4%에 이르렀다.

연체 금액과 연체율이 이렇게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

■ 신용카드 연체 금액 및 연체율 추이



* 자료 : 금융감독원

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빚을 갚아야 할 날짜는 다가오고, 갚을 돈은 없고, 빚 독촉은 심해진다. 이렇게 되면 범죄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카드 빚과 그로 인한 범죄는 비단 성인들에게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신용카드를 가진 청소년들도 많기 때문이다.

원래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래서 소득이 없는 청소년들이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다. 그런데도 많은 청소년들이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다.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20세 미만(청소년)의 신용카드 회원은 2002년 11월 기준 32만 4천 명이나 된다. 카드 대금을 제때 갚지 못한 10대 신용불량자도 7,465명에 이른다. 이들이 범죄의 유혹에 쉽게 빠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어떻게 카드 연체 금액이 9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수 있었을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용카드를 여러 개 가지고 있고, 사용액도 많다. 2002년 12월 말 현재 발급된 신용카드는 모두 1억 480만 장이다. 경제활동인구 2,236만 명이 1인당 4.7장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하루에 1조 8,574억 원에 달할 정도로 신용카드 사용액 또한 많다. 그 중 현금 서비스(현금을 빌리는 것) 액수가 하루 평균 9,800억 원에 달한다. 반면, 신용카드 대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신용불량자가 149만 명이나 된다. 이와 같이 카드 소지자가 많고, 사용액도 많으며, 신용불량자까지 많으니 카드 빚도 그렇게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앞의 신문 기사 가운데 딸이 진 1억 5천만 원의 카드 빚 때문에 아버지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어떻게 카드 빚을 그렇게 많이 질 수 있을까의 아해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능한 일이다.

예를 들어 어떤 청년이 신용카드 6장을 가지고 있는데, A, B, C 3개 카드로 각각 현금 서비스를 500만 원씩 인출하여 1,500만 원짜리 자동차를 구입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리고 그 다음달부터 나머지 D, E, F 카드 등 총 6개의 카드로 1년간 소위 '카드 돌려막기'를 한다고 하자.



그러면 현금 서비스 수수료 월 2.0%를 적용할 때 1년 후 부담해야 할 이자는 402만 원이나 된다. 이렇게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므로 카드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제때 갚지 못하면 연체 대금이 급격히 증가하여 큰 빚을 지게 된다.

신용카드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불편을 덜 수 있고, 돈이 없어도 물건을 구입할 수 있으며, 돈이 필요할 때 현금 서비스나 신용대출도 받을 수 있고, 사용 금액에 대해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잘만 활용하면 아주 유용하다.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앞의 기사에서 본 것처럼 독약이 된다.

신용카드가 독약이 되지 않으려면 신용카드 사용자가 '신뢰와 책임'이라는 두 가지 덕목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신용카드는 영어로 'credit card'이다. 'credit'의 어원인 라틴어 'creditus'는 '신뢰(trust)'를 의미한다. 것처럼 신용카드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하면 카드회사는 물건 구입처에 돈을 먼저 지급해 준다. 그리고 고객이 원하면 필요한 현금도 빌려준다. 이것은 카드회사가 1개월 뒤, 고객의 은행 계좌에서 그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고객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고객이 자신이 사

용한 금액을 은행 계좌에 채워 놓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다.

이처럼 신뢰를 저버리면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이 찍혀 신용사회에서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할 수 없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저버리면 카드회사도 파산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는 신용카드의 이점들을 누릴 수 없게 된다.

딸의 카드 빚 때문에 자살한 아버지가 “수십여 장씩 카드를 마구 발행해 준 카드사들의 행태가 너무 분하다.”고 유서에 남겼듯이, 소득 상태도 제대로 따지지 않고 신용카드를 남발한 카드회사의 잘못이 가장 큰 것은 사실이다. 또한 이러한 행태를 방치한 감독기관의 책임 역시 적지 않다.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딸의 잘못 또한 크다.

빌린 돈은 반드시 갚아야 하고, 빌린 물건은 반드시 되돌려주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신뢰이며 책임이다. 그러지 않으면 강도나 도둑과 다를 바 없다. 갚을 자신과 돌려줄 자신이 없으면 아예 빌리지 말아야 한다. 그로 인해 불편함과 부족함이 있다면 마땅히 자신이 감수해야 한다. 자신의 불편함과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이다. 또 미성년자, 경제력이 없는 사람에게까지 카드를 남발하고 카드 사용을 부추겼던 신용카드 회사들도 수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킨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과거는 과거일 뿐!



재미없는 영화의 관람료는 매몰비용

영화를 보러 갔는데 예상과 달리 영화가 재미없었던 적은 없나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나요? 재미가 없어도 끝까지 본다, 아니면 그냥 나와 버린다?

영화가 재미없어도 끝까지 보고 나오는 사람은 이미 지불한 영화 관람료가 아깝다고 생각해서일 것이다. 지불한 비용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이다. 반면에 미련 없이 나와 버린 사람은, 재미없는 영화를 보며 시간을 허비하느니 차라리 나와서 다른 것을 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경우 경제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영화관을 나오는 것이 합리적이다. 경제적인 사고는 이미 지난 일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어떤 선택으로 인해 얻는 것과 잃는 것을 따져서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다.

영화가 재미없을 때 영화관에 남아 있으면 얻을 게 없지만, 영화관을 나오면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할 수 있고, 다른 일로 즐겁게 보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영화관에 계속 남아 있으면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영화관을 나오



매몰비용도
모르냐?!

내 화살
돌리도!



는 게 합리적이다.

영화가 재미없다고 해서 관람료를 돌려받을 수는 없다. 이처럼 한번 지출되고 나면 다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경제학에서는 ‘매몰비용(sunk cost)’ 이라고 한다. 물건이 깊은 물 속에 가라앉아 버리면 다시 건질 수 없듯이 과거 속으로 가라앉아 버려 현재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비용이라는 의미이다.

매몰비용은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교훈의 근거는 될 수 있지만, 현재의 의사 결정을 하는 데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현재의 의사 결정에서 중요한 것은 이 선택을 하면 앞으로 얻는 것이 무엇이고 잃는 것이 무엇이나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영화관에 계속 남아 있을 때와 나왔을 때 각각 얻는 것이 무엇이고 잃는 것이 무엇이나 하는 것이다. 즉, 기회비용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기회비용 : 어떤 선택을 할 때 포기되는 기회의 가치

매몰비용은 다시 수중에 들어오지 않으므로 어떤 선택의 기회도 주지 않는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일 뿐, 현재 최선의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시사도 주지 못한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므로 연연하지 말고 잊어버려야 하듯, 매몰비용 역시 다시 회수할 수 없는 것이므로 연연하지 말고 잊어버려야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매몰비용에 집착하여 현재의 의사 결정을 그르친다. 영화의 예도 마찬가지다. 영화 관람료에 집착하여 재미도 없는 영화를 보고 있으면, 밖으로 나와서 즐길 수 있는 시간만 줄어들 뿐이다.

과거보다는 현재와 미래가 중요하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흔히 있는 일 가운데, 쉬는 시간에 전 시간의 시험문제 답을 맞춰 보느라 다음 시간 공부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도 매몰비용에 집착하여 다른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전 시간의 시험은 잘 봤든 못 봤든 지난 것(즉, 매몰비용)이므로 돌이킬 수 없다. 그것에 연연하여 답을 맞춰 보고 아쉬워하면 다음 시험을 준비할 시간만 줄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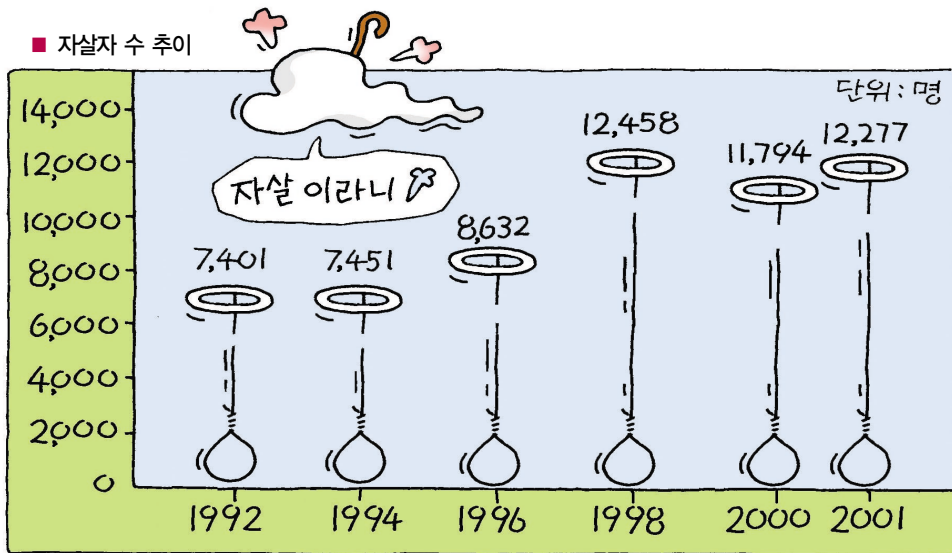
뿐이다.

대입 수능시험 때도 비슷한 일이 자주 일어난다. 특히 제1교시(언어 영역) 시험이 어렵게 출제되는 해에 종종 일어나는 일인데, 1교시를 잘못 본 것을 자책하여 1교시 시험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학생들이 있다. 1교시를 잘못 본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지난 일이다. 이것에 연연하여 시험을 중도에서 포기하면, 그 해에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아예 잃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현재에 서 있고 미래를 지향하고 있다. 현재와 미래에 무엇을 얻고 잃게 되는가가 중요하지, 과거에 무엇을 얻었으며 무엇을 잃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매몰비용은 잊어버리고, 현재와 미래의 것인 기회비용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경제학적으로 현명한 삶의 자세이다.

매몰비용으로 생각해 본 자살

이런 관점에서 요즘 늘어나고 있는 자살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외국의 경



* 자료: 경찰청

우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영국 7.5명(1999년), 네덜란드 9.6명(1999년), 독일 13.6명(1999년), 일본 24.1명(2000년) 등인데, 2001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살률도 15.5명으로 매우 높다. 10년 전인 1991년에 9.1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70.3%나 증가한 것이다. 특히 10~30대 젊은 층의 자살은 교통사고 다음으로 높은 사망 원인이다.

자살의 원인은 주로 경제적인 문제이다. 경찰청에 의하면, 2001년에 빈곤 등 생계 문제로 자살한 사람이 525명, 사업 실패로 자살한 사람이 319명에 이른다.

사업 실패는 전형적인 매몰비용에 해당한다. 그것은 이미 지난 과거의 일로서 돌이킬 수 없다. 따라서 매몰비용인 사업 실패를 이유로 자살을 택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다. 물론 사업 실패의 고통은 참으로 견디기 힘들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사업 실패가 자살이라는 의사 결정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그것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일, 즉 매몰비용이기 때문이다.

물론 자살은 매몰비용의 극단적인 예에 해당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실생활에서 다양한 형태의 매몰비용에 집착하고 있으며, 그것을 의사 결정의 판단 근거로 삼아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해서 주변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우리는 매몰비용, 즉 이미 지나가 버려 돌이킬 수 없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면서 현재를 살아야 한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말발굽에 채어 죽은 군인은 얼마나 될까?

옛날 프로이센의 기록 가운데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요.



14개 연대에서 1875년부터 1894년까지 말발굽에 채어 죽은 군인이 얼마나 되나를 기록해 놓은 것인데, 지금으로 치면 군대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동차 사고쯤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와 같은 기록을 했던 이유는 아마 한 해에 이런 사고로 몇 명 정도의 병력을 잃는지를 알고 싶었기 때문일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로 거슬러 올라가 당시 조사를 맡았던 조사관을 만나 보기로 할까요?

흠... 사망자 수를 표로 정리해 보기는 했는데...

끼응~
조사관

이걸 어떻게 보고해야 되지...?

여어~ 친구, 잘 있었나?



아, 자네 왔는가?

콩...
통계학자

응? 자네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나?

음... 이 통계 때문에 골치가 아파서 말이야...

토응~게?

무슨 통젠데?
어디 한번 보세.

14개 연대에 대해서 20년간 기록해 왔으니까 총 280회 관찰한 중에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던 경우가 144회, 한 명 사망한 경우가 91회, 2명 사망한 경우가 32회...

사망자 수	0	1	2	3	4
해당 횟수	144	91	32	11	2

그렇다네...

그런데... 뭐가 고민인가?

이걸 바탕으로 한 부대에서 사망자 수가 한 회에 어느 정도 될지를 보고해야 하거든.

한 명도 사망하지 않은 경우가 제일 많은데, 그렇다고 한 명도 죽지 않을 거라고 보고할 수도 없고...

물론이지. 4명씩이나 죽어나간 경우도 2번이나 있었는데.

그렇다고 수가 가장 많은 것을 택해서 4명은 넘지 않을 거라고 하기도 그렇고 말야...

아참, 맞다! 그 생각을 왜 못했지?

탕!



이런 경우는
전에 자네가 가르쳐 준
평균을 보고하면 되겠군!

계산법은
기억하고
있나?

하하~ 물론이지.
총 사망자 수를 구해서
총 횟수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닌가.

오! 맞았네.

쓰~
 $0 \times 144 = 0$
 $1 \times 91 = 91$
 쓰으~

자아~ 그럼
어디 계산해
볼까?

흐음~ 계산을 해 보니
한 부대에서 한 해에
0.7명이 나오는데.
좋았어~ 계산 끝.

총 사망자 수

- $0 \times 144 = 0$
- $1 \times 91 = 91$
- $2 \times 32 = 64$
- $3 \times 11 = 33$
- $4 \times 2 = 8$

이 값을 모두 더하면 196

총 횟수는 $144 + 91 + 32 + 11 + 2 = 280$
 그래서 총 사망자 수 $196 \div$ 총 횟수 280
 $= 0.7$



그래서...
그 결과를
그대로 보고
할 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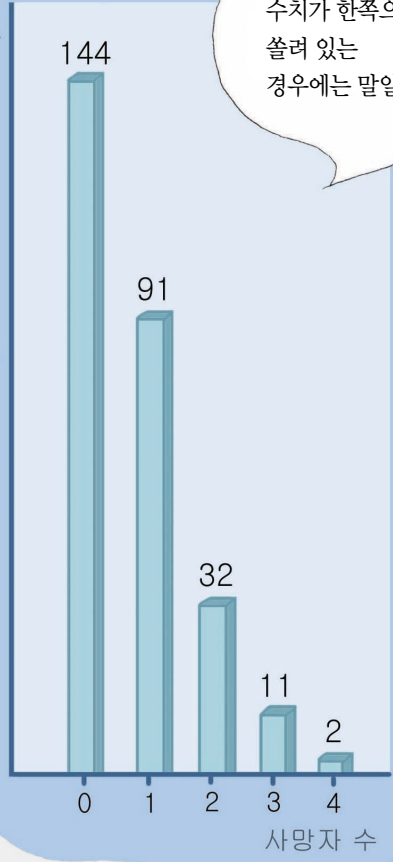
왜? 무슨
문제라도
있나?



한 부대에서
한 해에 0.7명이라니,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할 텐가?



해당 횟수



이렇게 자료의 수치가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경우에는 말일세...

흐흠...
모두 해서 280회니까
140번째하고...
141번째가 가운데가
되겠는걸?

그럼...
그 둘 중에 어떤 걸
택해야 되지?

보통은 그 둘의 평균을 쓴다네.
헌데 이 기록에서는
140번째나 141번째나
모두 0이니까 그대로
0이라고 하면 되지.

그렇다면 한 명의
사망자도 없을 거라고
해야 되는데...
그랬다가 사고가
나면 어찌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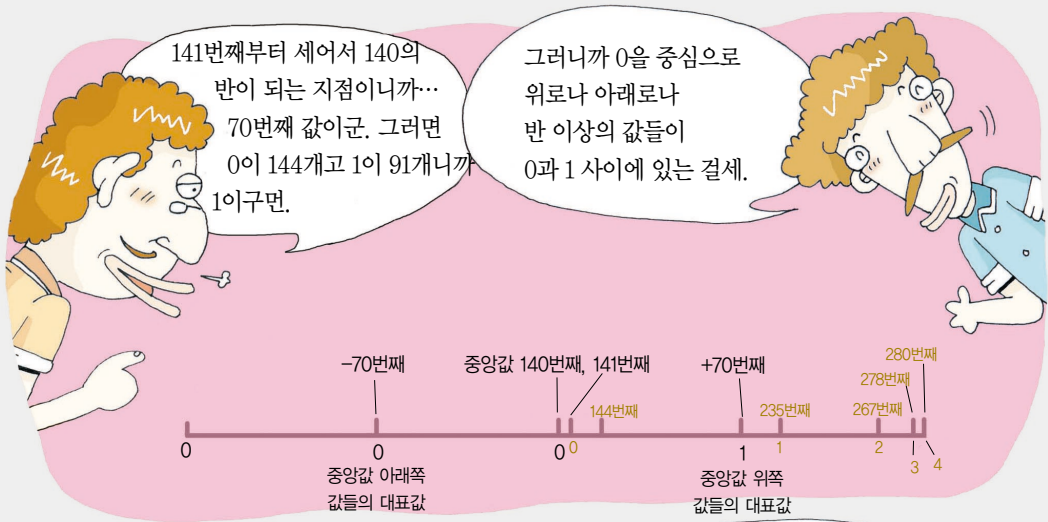
하하하~

이건 단지 대표하는
값에 불과하네.
이 값을 중심으로 얼마나
퍼져 있나를 보고하면 되지.

그... 그건
어떻게 하는 건데?

좀 전에 구한 값을
중심으로 그 위의 값들의
대표값과 아래쪽 값들의
대표값을 한 번 더
구해 보세.

흐음~ 대표값보다 작은
값들 중에 가운데 있는
값이야 보나마나 0이고,
큰 값들 중에
가운데 있는 값은...



자,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처럼
자료들이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경우에는
평균보다 중앙값을
구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요.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경우도
그래요.

A회사에서 직원들이 각각 경력에
따라 다음과 같은 월급을 받는다
고 합시다.

이럴 때 이 회사 직원들의 평균
월급은 얼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쓰옥~

직원1



100만원

직원2



150만원

직원3



250만원

직원4



300만원

월급을 모두 더하면...

100만원+150만원+250만원+300만원=800만원

모두 4사람이니까...

800만원 ÷ 4 = 200만원

800만원 ÷ 4



이렇게 해서
A회사의 평균
월급은...

200만 원이라고
할 수 있지요.



나 A회사
사장~

그런데 이 회사
사장님이 1,200만 원의
월급을 받아 간다면,
사장님까지 합해서
평균 월급은 얼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위에서와 똑같이 계산을 하면...
 $800\text{만 원} + 1200\text{만 원} = 2000\text{만 원}$

‘400만원’



모두 5사람이니까
 $2000\text{만 원} \div 5 = 400\text{만 원}$ 이
됩니다.

이때도 계산대로
400만 원이 평균
월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에이~
말이 안 되죠.



4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훨씬 많이...

하하~



게다가 사장이 로스차일드 같은
대부호여서 엄청난 액수를 월급으로
가져간다면...?

그래서 이럴 경우엔 평균값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평균값 대신
중앙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건...
더욱 말이
안 되죠.



아무리 예라고 해도
너무 불공평
하다니까~.



조삼모사? 조사모삼?



송나라에 저공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원숭이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가 기르는 원숭이가 무리를 이루었다. 그는 원숭이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고, 원숭이 역시 저공의 마음을 알아차렸다. 그는 집안 식구들의 음식을 줄이면서까지 원숭이들의 욕망을 채워 주었고 얼마 못 가 궁핍하게 되었다.

궁핍해진 저공은 원숭이들의 먹이를 줄이려 했지만 원숭이들이 자기를 따르지 않게 될까 두려웠다. 그래서 이런저런 궁리 끝에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들에게 주는 밤을 아침엔 세 개, 저녁엔 네 개로(朝三而暮四) 정하면 만족하겠느냐?”

원숭이들은 모두 일어서서 성을 내었다.

저공은 조금 있다가 다시 말하였다.

“그러면 너희들에게 주는 밤을
아침에 네 개, 저녁에 세 개로
(朝四而暮三) 정하면 만족
하겠느냐?”

그러자 원숭이들은 모두
두 엎드려 기뻐하였다.

만물 중 능력 있는 것이
없는 것을 농락함이
모두 이와 같은 것이다.

-《열자》,〈황제편〉에서



이 우화는 잔피로 남을 속이는 사람이나 어리석게 속는 사람 모두에게 교훈을 준다. 그런데 경제학의 관점에서는 이 우화를 달리 해석해 볼 여지가 있다.

열자는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나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가 같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과연 같을까?

간단한 예로, 현재의 100만 원과 1년 후 100만 원의 가치가 같은지 생각해 보자. 초등학교생만 돼도 현재의 100만 원의 가치가 더 크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은행에 100만 원을 예금하면 1년 후에는 원금 100만 원에 이자가 붙어서 100만 원 이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자율이 연 10%라고 가정하면 이자가 10만 원이므로, 현재의 100만 원은 1년 후의 110만 원(100만 원 \times 1.1)과 같다. 그리고 1년 후의 100만 원은 현재의 약 91만 원(100만 원 \div 1.1)과 같다.

현재의 100만 원이 1년 후의 100만 원보다 가치가 크다면, 현재의 100만 원은 1달 후의 100만 원보다 크고, 아침의 100만 원 또한 저녁의 100만 원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10년이나 1년 또는 1개월이라면 모를까, 아침과 저녁 사이의 그 짧은 기간에 무슨 가치 차이가 있겠냐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실제로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한 나절이나 하루 정도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도 이자를 주고받는다. 이때의 이자율을 콜금리라고 하는데, 2003년 7월 현재 연 3.75%이다. 그러므로 아침에 100만 원을 빌린 후 오후에 갚는다면, 원금 100만 원에 이자 102.7원을 더하여 100만 102.7원을 갚아야 한다. 말하자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침의 100만 원은 저녁때 100만 102.7원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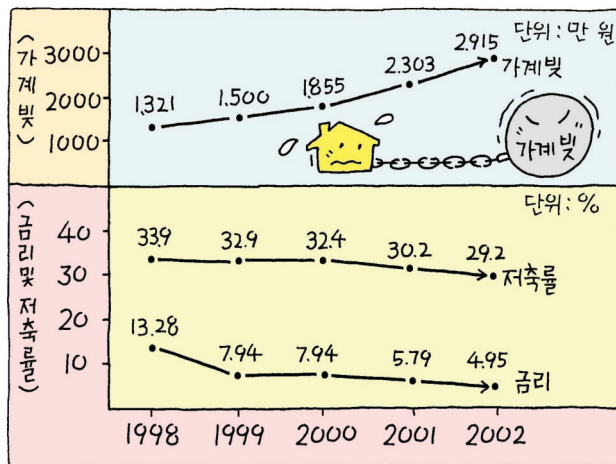
이렇게 보면 아침의 밤 4개 역시 저녁의 밤 4개보다 가치가 크고,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가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보다 가치가 큰 것이다. 따라서 원숭이들이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에는 화를 내고,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에는 엎드려 기뻐한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사고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저공이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를 주고자 한 것도 잔피로 속이려 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사고에 의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자율을 이용하면 현재의 금액을 미래가치로 환산할 수 있고, 또한 미래의 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수도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자율을 보고 돈을 지금 쓰는 게 좋을지 아니면 저금하는 게 좋을지, 또는 빚을 내는 게 좋을지 등을 판단한다. 예를 들어, 이자율이 높으면 돈을 당장 쓰기보다는 저금하는 게 유리하며, 빚을 내기보다는 어렵더라도 참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자율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행동한다. 금리(이자율을 보통 '금리'라고 부른다)가 높으면 소비보다는 저금을 많이 하고, 반대로 금리가 낮으면 소비를 많이 하고 빚 내는 것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이러한 합리적 행동은 통계자료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다. 아래 그림을 보면 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저축률은 감소하였고, 가계 빚은 같은 기간에 1,321만 원에서 2,915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금리가 낮아지면서 사람들이 저축보다는 소비를 많이 하고, 빚을 내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은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 금리 및 가계 빚 추이



* 주 : 1) 금리는 예금은행 정기예금(1-2년) 기준
 2) 가계 빚은 가구당 가계 신용
 * 자료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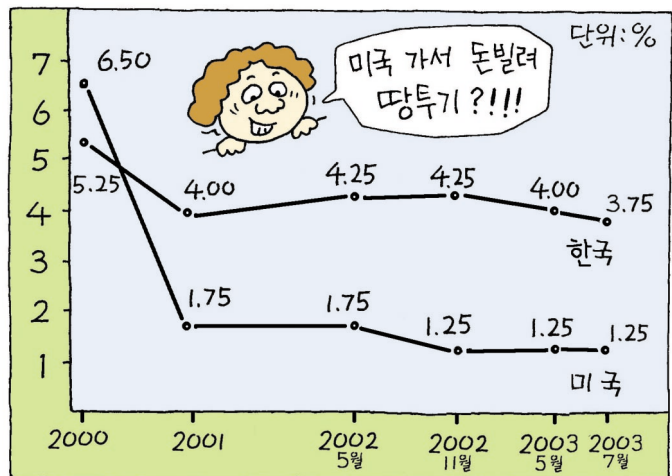
1998년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연 13.28%였을 때, 1억 원을 은행에 저금하면 1년에 이자를 1,328만 원(월 110만 원)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03년 3월의 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연 4.30%에 불과하기 때문에 1억 원을 은행에 저금하면 이자가 1년에 430만 원(월 36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은행 예금은 저축 수단으로서 매력이 크게 떨어졌다.

이처럼 금리가 낮으면 은행에 예금하기보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얻으려고 한다. 그 결과, 금리가 낮을 때는 부동산 값이 뛰거나 주가가 상승한다.

금리는 은행 예금이나 집값, 주가 등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일반

적으로 금리가 낮으면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여 경기가 좋아지고, 반대로 금리가 높으면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감소하여 경기가 나빠지는 것이다. 그래서 각국 정부는 경기가 나빠지면 금리를 내리고, 경기가 과열되면 금리를 올리는 정책을 쓴다.

■ 한국과 미국의 중앙은행 기준 금리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그림을 보면, 미국의 연방기금 금리는 2000년 말 6.50%에서 2002년 11월 1.25%로 크게 하락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 동안 미국 경제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금리 인하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쓰는 정책 수단이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금리 수준도 상대적으로 높았고, 금리 인하도 적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기가 그 동안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내수 둔화 심상찮다” 콜금리 동결

7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달 중 콜금리 목표치를 현 수준(연 4.25%)에서 동결한 것은 무엇보다 최근의 ‘내수 부진 조짐’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경기 회복세를 이끌었던 내수와 소비가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이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가 컸던 것이다.

- 《한겨레》, 2002. 11. 7

금리 내리면 경기 뜰까

13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결정에 경제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은행이 3%대 성장론 등 금리 인하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과 한국은행 노조가 부동산투기 등을 이유로 금리 인하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 《동아일보》, 2003. 5. 10

그러나 아래의 기사에서 보는 것처럼 금리 인상을 동결하고, 급기야 2003년 5월, 1년 만에 콜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7월에 또다시 인하한 것은 그만큼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와 같이 금리는 개인의 자금 운영에도 중요하고, 한 나라의 경제 운영에도 중요한 지표가 된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의 자금 운영을 위해서만 아니라 국가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금리에 대해 잘 알아야 할 것이다.



스프링북과 오유지족

스프링북과 현대인

'스프링북'은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산양의 일종입니다. 이 양들은 처음에는 풀을 뜯어먹으면서 평화롭게 행렬을 이루지만, 앞쪽의 양들이 풀을 다 뜯어먹어 버리면 뒤따르는 양들이 풀을 차지하기 위해 앞다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양들의 대열은 조금씩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뒤쪽의 양들이 속력을 내어 앞으로 달려오므로, 앞쪽은 선두를 지키기 위해 더 빨리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모든 양 떼가 전속력으로 달리게 되고, 결국 가속도가 붙은 양들은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립니다.

미련한 짐승이라고 웃어넘길 수 없는 것은 현대를 사는 우리의 삶과 너무 닮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sir4u.net/ 날짜별 좋은 생각에서

스프링북은 다른 놈들이 앞으로 달리면 자기도 무작정 달린다. 조금만 달리다 멈추면 뜯어먹을 풀이 있는데도 멈춰서질 않고 다른 놈을 앞서려는 일념으로 경쟁적으로 달린다. 그러다가 달리는 이유도 잊어버리고 달려가 결국은 낭떠러지를 만나



모두 떨어져 죽고 만다.

사람들도 스프링복처럼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지도 않고 남들이 하는 대로 무작정 따라 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스프링복들이 낭떠러지를 만나 떨어져 죽듯이 대중 전체가 큰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튤립 알뿌리 하나 값이 최고급 승용차 값

그 대표적인 예가 투기일 것이다. 인류 역사에서 최초의 광적인 투기 열풍은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일어났다. 투기 대상이 튤립이었다는 점이 다소 의외이지 만 오히려 흥미롭다.

투기 : 어떤 물건이나 주식 등의 가격이 변동하는 것을 이용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그것을 사고 파는 행위

튤립이 터키에서 유럽으로 건너간 것은 16세기 중반이다. 튤립은 유럽에서 바로 호평을 받았다. 1593년 네덜란드의 라이덴 대학에서 식물학자 크로시우스가 아름다운 튤립을 개발한 이후, 그 변종이 네덜란드에서 유행하였다. 1634년경이 되자 이런 품종의 튤립 알뿌리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다. 그러자 튤립 알뿌리는 투기 대상이 되었고, 튤립 재배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들까지 투기에 뛰어들었다. 그러면서 튤립 투기로 돈을 벌어 부자가 된 사람들이 생겨났고 이를 본 사람들은 너도나도 튤립 투기에 가세하였



다. 마치 스프링복들이 앞다투어 달리는 것처럼.

투기의 규모는 점점 커졌고, 가격도 끝없이 올라갔다. 1636년이 되자 툴립 알뿌리 1개가 '마차 1대와 말 2필과 마구 일체'와 맞먹는 가격까지 치솟았다. 달러로 환산하면 2만 5천~5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약 3천만~6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우리나라 최고급 승용차 한 대 값과 맞먹는 가격이었던 것이다. 감자만한 크기의 툴립 알뿌리 한 개의 가격이 그렇게 비쌌다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처럼 투기의 결과로 어떤 물건(특히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의 가격이 실제 가치 이상으로 부풀려진 것을 경제학에서는 '거품(bubble)'이라고 한다. 맥주를 컵에 급하게 부으면 거품이 일어 금방 컵이 차는 것에 비유한 것이다. 당장 보기에는 맥주가 한 컵인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거품은 사라지고 맥주는 반도 남지 않는다. 이렇듯 거품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되어 있다. 물건의 가격에 낀 거품도 마찬가지다.

1637년 2월 4일, 이유도 없이 툴립 알뿌리를 팔자는 주문이 쇄도했다. 그에 따라 가격이 폭락했다. 잔뜩 부풀려졌던 거품이 꺼져 버린 것이다. 종전과는 반대로 이제는 너도나도 팔려고 혈안이었지만 사려는 사람이 자취를 감추어 팔 수도 없었다.

찰스 맥케이는 자신의 책 《이상한 대중적 망상과 군중의 광기》에서 “귀족, 시민, 농민, 선원, 사환, 심지어 굴뚝 청소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재산을 현금으로 바꾸어 툴립에 투자했다.”고 묘사했다. 툴립 투기에 얼마나 많은 네덜란드인들이 무모하게 뛰어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 많은 사람들이 툴립 거품이 꺼지자 전 재산을 날리고 파산하게 되었다. 마치 스프링복들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음을 당하듯이.

이 사건을 계기로 검소한 네덜란드 사람들이 다시는 이런 무모한 투기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됐다. 하지만 100년이 지난 18세기에 또다시 투기 열풍이 불었다. 이번에는 히아신스였다.

곳곳에서 본 투기 열풍

18세기에는 프랑스와 영국에서도 유명한 투기 열풍이 일어났다. 스코틀랜드 사람 존 로가 1719년 프랑스에서 ‘미시시피’ 라는 회사를 세웠는데, 이 회사의 주식 가격이 1년도 안 돼서 36배로 치솟았다. 당시 귀족들 사이에서 이 회사 주식을 갖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였더니, 이 회사 주식에 대한 투기 열풍이 어떠했는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 회사 주식 가격의 거품은 1년 만인 1720년에 꺼져 버렸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날렸다.

주식 : 주식회사가 자본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증서

1720년 영국에서는 ‘남해회사’ 주식에 대한 투기가 일어났다. 1월에 128포인트였던 주가가 여름이 되자 1,000포인트에 육박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었고, 이를 본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투기에 가담했다. 겔브레이스라는 경제학자는 그의 책 ‘대공황’에서 당시의 주식 투기 열풍을 “정치가는 정치를, 변호사는 법정을, 무역상은 거래를, 의사는 환자를, 상점 주인은 점포를, 성직자는 설교대를 잇고, 아름다운 숙녀조차 그 특유의 자존심을 망각했다.”고 묘사했다. 그러나 1년도 채 안 돼 거품은 여지없이 꺼져 버렸다. 남해회사의 주가는 1720년 9월에 175포인트, 12월에는 124포인트로 계속 떨어졌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날렸다.

20세기에 들어와서도 이런 투기 열풍은 계속되었다. 1924~1925년 미국에서는 플로리다에 땅 투기 열풍이 불었다. 이때는 땅값이 2주 사이에 2배로 뛰기도 했다. 그러나 1926년 들어 거품은 여지없이 꺼지고 말았다. 몇 년 뒤인 1928년 봄부터는 주식 투기 열풍이 전국민적으로 일어났다. 그러나 1929년 가을에 주식 가격이 대폭락하여 역시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날렸다. 이 주가 폭락의 피해는 미국인들의 재산 손실에 그치지 않고, 대공황의 원인이 되어 전 세계에 피해를 입혔다.

20세기 후반인 1986~1989년에는 일본에서 땅과 주식 투기 열풍이 불어 땅값과 주가가 3배나 뛰었다. 이 시기에 일본 땅값을 모두 합하면 그 넓은 미국 땅값의 2배가 되었다고 하니, 일본 땅값의 거품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다. 이 거품 역시 오래 가지 못하고, 1990



년에 들어서자 붕괴하기 시작했다. 이때의 후유증으로 일본 경제는 오늘날까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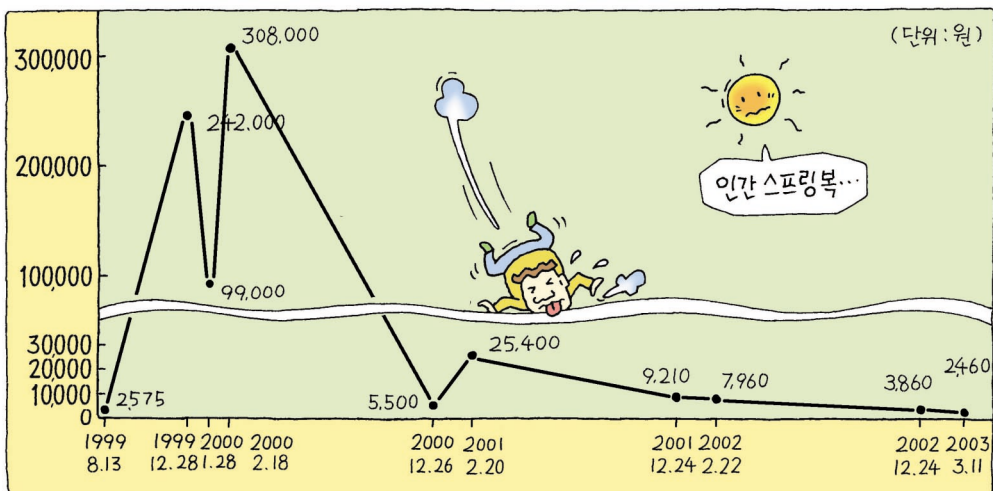
투기 열풍은 우리나라에도

투기 열풍은 우리나라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가장 최근의 예는 1999년에 일어난 벤처기업에 대한 주식 투기 열풍이다. 당시 정부가 벤처기업 육성 정책을 펴자 거기에 편승한 투기 열풍이 일어나, 새로 생겨난 벤처기업의 주가가 폭등했다.

벤처기업 : 첨단 신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당시 대표적 벤처기업은 '새롬기술'이라는 회사였는데, 이 회사의 주가는 1999년 8월 13일에 2,575원으로 거래를 시작한 후 폭등에 폭등을 거듭하여 4개월 후인 12월 28일에는 24만 2천 원이 되었다. 4개월 만에 약 94배나 치솟은 것이다. 2000년 2월 18일에는 다시 30만 8천 원까지 상승하여 약 120배나 치솟았다. 이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1년 만에 36배가 된 18세기 프랑스의 '미시시피'사의 주가 폭등도 '새롬기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당시 새롬기술에 1억 원을 투자한 한 은행원이 100억 원을 벌었다는 기사가 신문에 실려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 새롬기술의 주가 추이



그러나 이 거품 역시 오래 가지 못하고 6개월 만에 꺼지기 시작했다. 2000년 3월에 접어들자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하여 3월 말에는 56,400원으로 떨어졌고, 12월 말에는 5,500원까지 하락하였으며, 2003년 3월에는 2,460원이 되었다. 거품이 폭 꺼져 버린 것이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오유지족

스프링복의 비극을 잘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는 욕심이다. 다른 놈보다 앞서서 풀을 많이 뜯어먹고자 하는 탐욕심이 근본적인 원인인 것이다. 둘째는 군중 추종 심리이다. 자신이 무엇을 왜 하는지도 모른 채 무작정 무리를 따라 행동하는 심리 말이다. 인간이 투기 열풍에 휩쓸려 개인적·사회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는 것 역시 이 두 가지 원인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스프링복이 욕심을 누르고 자신을 성찰하여 조금만 달리다 멈춘다면 많은 풀을 뜯어먹을 수 있고 죽지도 않을 것이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욕심을 누르고 자신을 성찰한다면 투기 열풍에 휩쓸리지 않을 것이며, 재산상의 손실과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도 피할 수 있다.

석가모니의 마지막 설법이 수록된 《유교경(遺教經)》을 보면, ‘팔대인각(八大人覺)’이라는 불도 수행자가 성취해야 할 8가지 덕목이 나온다. ‘팔대인각’이라는 이 덕목의 첫째는 소욕(小欲, 탐내지 않는 것)이고, 마지막 여덟 번째는 지족(知足, 만족할 줄 아는 것)인데, 이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 스스로 만족함을 알아 탐내지 않는다면 투기 열풍과 같은 부질없는 일에 휩쓸려 고통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교경》의 ‘지족’에 근거하여 불교에서는 ‘오유지족(吾唯知足, 나는 다만 만족함을 안다)’이라는 말을 자주 쓴다. 우리도 ‘오유지족하는 사람’, 즉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 보자.

그런데 한자 ‘吾唯知足’을 자세히 보면 재미있는 점이 한 가지 있다. 모든 글자에 ‘입 구

(口) 자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네 글자를 한데 붙여 아래와 같은 글자로 만들 수 있다. 편의상 이 한자를 ‘오유지족 족’ 자라고 부르기로 하자. 그리고 이 글자를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기도록 하자.

五
口
足
矢
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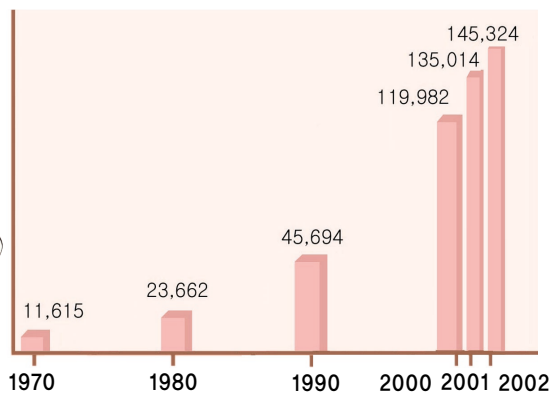
오유지족 족



흐음...
이혼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군...



■ 연도별 이혼건수



* 자료 : 통계청

아아... 대체
왜 이혼들을
하는 걸까?



사랑은 영원

영원파 주장

난 사랑은
영원하다고 믿어.



만날수록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

서로 사랑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영원히
계속될 수 있어.

로미오와 줄리엣을 봐.
영원한 사랑을 위해
죽음을 택했잖아.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는
영화나 소설도
무척 많잖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랑은
영원히 계속돼.

영원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처음부터
열렬하진
않다 해도 사랑은
계속되는 거야.

헤어지더라도
사랑의 기억은
영원히
남는 거야.



할 수 있을까?

자꾸 만나다 보면 좋아하는 감정도 시들해지지.

서로 사랑하다가도 헤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사랑은 한때의 감정이야.

난 영원한 사랑이란 환상이라고 생각해.

현실파 주장

영화나 소설 속의 사랑은 사람들이 꿈꾸는 것이지만 현실은 아니야.

열렬한 사랑은 식기도 쉽게 식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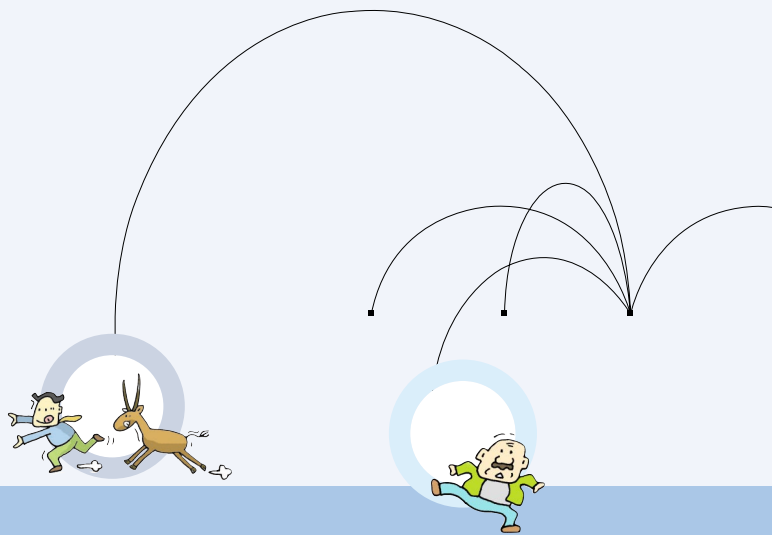
사랑해서 결혼했으면서도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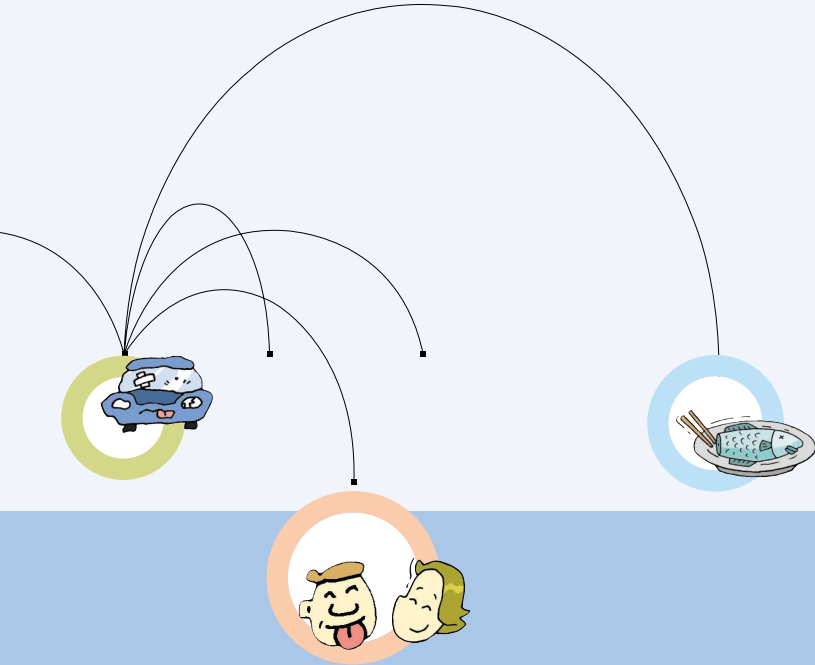
사랑은 감정이야. 감정은 자꾸 변하는 거야.



사랑이란 짝짓기를 위한 호르몬의 작용일 뿐이야.

사랑에도 한계효용의 법칙이 작용해.





2부

사회에 관심을

- 우리에게 자동차는 무엇인가?
- 아이를 낳으세요, 돈을 드립니다
- 대통령 선거 개표 방송을 보면서…
- 이사를 몇 번 더 가야 우리 집이 생길까?
- 우리의 평균 수명은 얼마나 될까?
- 동생에게 소아마비 예방 백신을 맞히면서
- 소득으로 본 난쟁이와 키다리
- 밀밭이 왜 사라졌을까?
- 쉬어 가는 코너 우리의 선택은?

우 리에게 자동차는 무엇인가?



‘우리 차’가 아닌 ‘마이 카’ 시대

한국 사람들은 ‘우리’ 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우리나라’, ‘우리말’, ‘우리 옷’, ‘우리 집’, ‘우리 회사’ … 그만큼 집단과 소속을 강조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을 가리키거나 소개할 때도 ‘우리 아무개 씨는…’ 이라는 표현을 잘 쓴다. 심지어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라고까지 말해 외국인들을 당황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실제로는 공동 소유인데 마치 개인 소유처럼 사용하는 말도 있다. 그 하나가 ‘내 집 마련’ 이고, 다른 하나가 ‘마이 카’ 이다. 독신 이 아니면서 ‘내 집’ 이라고 표현하고,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자동차인데도 ‘마이 카’ 라고 부르는 것이다.

집과 자동차는 모두 지난 몇십 년 동안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도시화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목표가 되었다. 특히 국토가 비좁은 우리나라에서 생존 공간과 주거 공간을 둘러싼 경쟁은 매우 치열하다. 거리의 빼곡한 인파를 헤치고 종종걸음치는 행인들, 만원 버스나 지하철에서 몸싸움을 하는 출근길 시민들, 거리의 노점상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아파트, 허리띠 졸라매고 주택 자금을 마련하는 억척스러운 주부들….

그와 함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교통 공간에서의 경쟁이다. 운전자를 피곤하게 만드는 얇체족들의 끼어들기, 사소한 접촉 사고에도 핏대를 세우고 고함을 지르며 싸우는 운전자들, 도심과 주택가 곳곳에서 벌어지는 주차 전쟁… 여러 가지 이유로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점점 고역스러운 일이 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도 자동차는 줄어들기는커녕 즐기차게 늘어나기만 한다. 2003년 4월, 드디어 우리나라에 등록된 승용차가 1천만 대를 돌파했다.



1903년 고종 황제가 최초로 자동차를 도입한 이후 정확히 100년 만이다. 그 동안 도로와 주차장은 계속 확장되어 왔다. 그러나 아무리 도로와 주차장을 건설해도 늘어나는 자동차를 도저히 따라잡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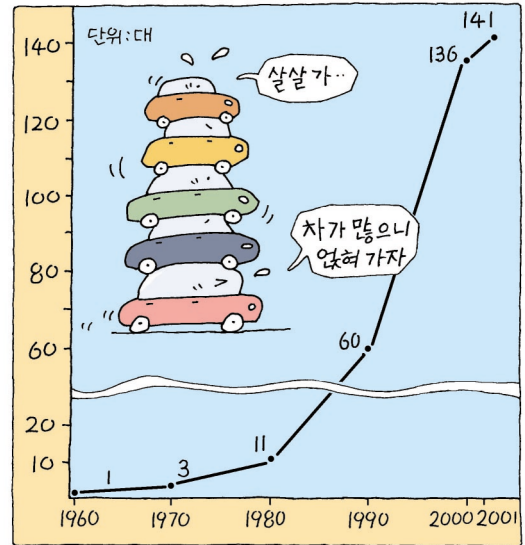
등록 차량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서울특별시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는 270만 대로, 파리의 400만 대에 비해 훨씬 적다. 문제는 서울에 있는 차량의 주행 시간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것이다. 전체 자동차의 62%가 매일 시내 도로로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다. 더 놀라운 통계는 이 62%의 주행 차량 중 78%

가 '나 홀로 운전'이라는 것이다. 이는 거리에 돌아다니는 승용차들을 눈대중으로 헤아려보기만 해도 금방 알 수 있다.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풍경이다. 그야말로 '마이 카' 시대다. 자동차에 관한 한 '우리'는 없다.

자동차로 인해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2003년 아시아를 강타한 전염병 사스(SARS)는 인류가 자연 재해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새삼 일깨워 주었다. 중국의 거대 도시 베이징을 순식간에 침묵으로 몰아넣은 그 질병은 전쟁만큼이나 공포스러운 것이었다. 만일 사스가 한국에 본격적으로 상륙하여 건잡을 수 없이 퍼져 나간다고 가정해 보자. 그래서 하루에 20~30명씩 죽는다고 상상해 보자. 어떻게 될까? 온 나라가 벌집 쑤셔 놓은 것처럼 난리가 날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 또는 자기 가족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며, 정부는 정부대로 사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일

■ 도로 1km당 자동차 대수



* 자료: 건설교통부

것이다. 그야말로 세상이 온통 뒤죽박죽되고 모든 일상 업무가 완전히 마비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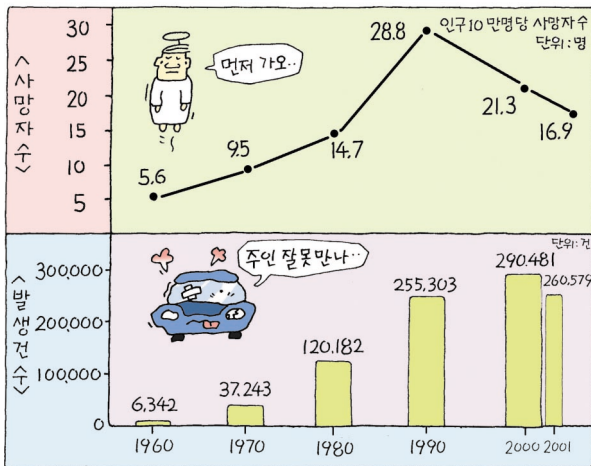
이 가상 스토리에 전염병 대신 자동차를 대입해 보자. 그것은 더는 상상의 세계가 아니다. 우리가 매일 겪고 있는 현실이다. 교통사고로 인해 하루 평균 22명이 목숨을 잃고, 1,059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다치며, 그 가운데 상당수가 불구자로 여생을 살아간다. 특히 심각한 것은 어린이들의 피해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많다는 점이다. 전체 교통사고 희생자 가운데 어린이가 무려 6.9%에 이른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수가 통학로와 주택가에서 사고를 당한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걸어나다니거나 뛰어놀아야 할 동네 길이 자동차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 때문에 치러야 하는 대가는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난방 시설과 각종 산업 및 발전소 시설이 대기 오염의 주범으로 꼽혀 왔으나, 이제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유독물질이 전체 대기 오염물질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훨씬 높다. 더구나 자동차 한 대 한 대의 오염물질 배출량은 공장이나 빌딩 등에 비해 훨씬 적지만, 바로 사람의 코앞에서 뿜어내기 때문에 그 피해는 훨씬 심각하다고 한

다. 말하자면 모든 사람의 생명을 서서히 죽이고 있는 것이다.

그에 못지않게 심각한데도 우리가 잘 의식하지 못하는 폐해도 있다. 도시의 소음은 점점 심각해져서 도로변에 사는 주민들의 정신 건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큰 도로에서는 물론 좁은 골목길에서까지 느닷없이 울려대는 자동차 경적소리 때문에 깜짝 놀라는 일도 다반사이다. 심지어 오토바이가 인도 위를 달

■ 연도별 교통사고 추이



* 자료 : 경찰청

리면서 도리어 사람더러 비키라고 소리 지르기도 한다. 또 횡단보도 신호등의 시간 간격이 너무 짧아서 미처 횡단보도를 다 건너기도 전에 파란불이 깜빡여서 위협을 느끼기도 한다. 우리는 이렇듯 자동차 중심의 스피드 위주로 만들어진 도시에 살면서 늘 긴장과 조급함에 시달리고 있다.

다반사 : 밥 먹고 차 마시는 일처럼 늘 있는 일

걷는 즐거움을 찾아서

어느덧 자가용은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이 되었다. 집은 없어도 자동차는 당연히 소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자.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좁은 땅에서 이렇게 많은 자동차를 굴려야만 할까? 물론 대도시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피곤한 일일 수도 있다. 지나치게 많은 승객, 운전자의 불친절과 난폭 운전 등. 하지만 그 모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득이 된다.

우선 자동차 운전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해 보자. 도시에서 웬만한 승용차 한 대를 굴리는 데 2001년 기준 월평균 19만 원 정도 든다. 시간에 대한 비용은 또 어떤가? 도로 정체가 심각해지면서 자동차의 주행 속도가 점점 떨어져 편리함과 경제성이 자꾸만 줄어들고 있다. 자동차로 인해 들어가는 돈과 시간, 그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 가끔 일어나는 교통사고 등 일체를 종합해 보면 비용이 결코 만만치 않다.

출근길마다 길을 가득 메운 승용차 행렬,
 앞차가 빠질 때까지 지루하게 앉
 아서 기다리는 나 홀로 운전
 자들을 가만히 들여다보
 자. 출근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동차를 운반하
 는 것인지? 100kg도
 되지 않는 몸을 수송하기



위해 몇 톤짜리 쇳덩어리를 움직인다는 것은 얼마나 큰 낭비인가. 승용차 두 대가 차지하는 면적에 버스 한 대가 들어설 수 있다. 그리고 수송할 수 있는 승객은 20배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런데도 자가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구입이 자동차 산업과 관련 산업들을 발전시켰고, 국가의 경제를 번영케 했다. 그러나 이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은 단계에 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걷는다는 것은 자기의 몸을 움직이는 매우 능동적인 행위다. 사람은 그러한 능동적인 활동을 통해 큰 기쁨을 누린다. 걸어가면서 길 위에서 마주치는 사람이나 주변 사물과의 생생한 교감, 함께 걷는 사람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율동(가족이 걸어가 갈 때 아이들이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장난을 치는 풍경을 상상해 보라), 걸으면서 누릴 수 있는 풍부한 사색... 하늘의 대기를 호흡하고 땅의 기운을 받아들이면서 걷는 것은 생활의 동력을 북돋울 수 있는 수련이 된다. 걸어가는 것, 또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 그것은 하나의 즐거운 권리다. 산보의 미학을 회복하자. 속도를 강요하는 사회 속에서 느림의 가치를 발견해 보자.



아이를 낳으세요, 돈을 드립니다

손자의 경제학

이미 결혼한 두 아들과 두 딸이 있는 아주 부유한 노동경제학자가 있었다. 이 사람의 소원은 손자를 보는 것이었으나 자식들이 도대체 아이를 가지려고 하질 않았다.

어느 추수감사절에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경제학자는 자신의 나이 많음을 한탄하며 말했다. “너희들이 도대체 아이를 가지지 않으려고 해서, 어제는 내가 은행에 가서 10만 달러(약 1억 2천만 원)짜리 신탁에 들었다. 앞으로 이 돈은 가장 먼저 태어나는 손자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들 알고 올 추수감사 기도나 올리자.”

잠시 기도를 올리고 나서 눈을 떠 보니 신탁에는 노부부 두 사람만 앉아 있을 뿐이었다.

- 오영수, 《31가지 테마가 있는 경제여행》에서

자식들은 기도를 하다 말고 모두 어디로 갔을까? 아마도 10만 달러를 갖게 될 자식을 낳기 위해 서둘러 돌아갔을 것이다. 이 콩트는 선진국들이 처한 출생률 저하라는 사회 현실과 그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해결 방안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미국 사회에서도 사람들이 자식을 낳지 않으려 하다 보니 이를 소재로 한 이야기가 나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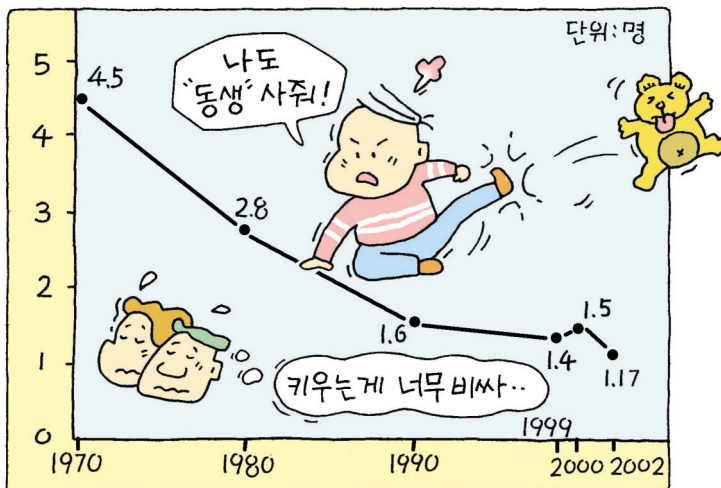
미국의 경우, 인구 1,000명당 출생자 수(이를 조출생률이라 함)는 1957년 25.3명에서 1975년에는 14.8명으로 감소하였고, 2000년에는 14.7명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출생률 감소 현상은 다른 선진국들과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는 1962년에 38.7명이던 것이 1973년에 28.4명, 2001년에는 11.6명으로 감소하였다.

1798년에 토머스 맬서스라는 경제학자는 《인구론》이라는 유명한 책에서 ‘농업 생산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데 반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오늘날 선진국과 우리나라에서는 그 예측이 전혀 맞지 않는 셈이다.

인구 통계 중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는 평균 자녀 수’(이를 ‘합계출산율’이라고 한다)를 보면 인구 변화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에 4.5명이던 것이, 2002년 1.17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그러니까 1970년대에는 각 가정마다 자식이 4~5명이었으나, 요즘은 1~2명으로 줄어든 것이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일부 선진국보다도 낮다. 1995~2000년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1.5명인 데 비해, 미국 2.0명, 프랑스 1.7명, 캐나다 1.6명, 일본 1.4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평균 자녀 수)의 변화



* 자료 : 통계청

명, 독일 1.3명, 이탈리아 1.2명 수준이다.

한 가정에서 2.1명의 자식을 낳으면 인구가 감소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게 된다. 예컨대,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이탈리아의 경우, 50년 후에는 인구가 현재의 6천만 명에서 4천만 명 수준으로 감소하고, 100년 후에는 2천만 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웃 나라 일본도 현재의 인구 1억 2천5백만 명이 100년 후에는 5천5백만 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같은 인구 감소 현상은 선진국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출산율이 낮아지면 국가 전체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해질 뿐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젊은 인구층은 감소하고 부양해야 할 노인층은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자식을 낳는 이유, 안 낳는 이유

그러면 왜 요즘 사람들은 과거와 달리 자식을 적게 낳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자식을 많이 낳도록 할 수 있을까?

앞의 콩트로 미루어볼 때, 자식을 많이 낳게 하려면 돈을 주면 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돈을 주면 자식들(국민들)이 부모(국가)를 위해 손자(아이)를 낳아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람들이 왜 자식을 적게 낳는지를 알아야 한다. 여기서는 적게 낳는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사람들이 아이를 낳는 이유부터 한번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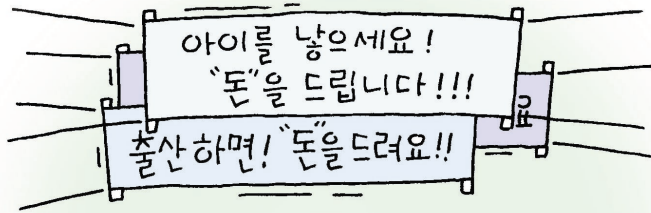
사람들은 왜 자식을 낳을까? 자식을 낳음으로써 얻는 것(편익)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사람들은 자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자식에게 애정을 주는 기쁨, 자식을 키우는 기쁨, 자식의 성장과 발전을 바라보는 기쁨 등도 맛볼 수 있다.

둘째, 가문의 대를 잇고 재산을 상속할 수 있다.

셋째, 과거 농업사회였을 때, 그리고 지금도 많은 후진국들에서 자식은 부모의 일손을 거





들 수 있는 노동력이 된다.

넷째, 노후에 자신을 돌보는 노후 대책이 된다.

이 중에서 셋째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해당되지 않는다. 과거와 같은 농업사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넷째도 과거와는 상당히 달라졌다. 요즘 자식들은 부모가 늙어도 모시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자식에게 노후를 맡기려 하기보다 돈을 저축해서 노후를 대비하고자 한다. 그러니 자식을 낳음으로써 얻는 것이 과거에 비해 훨씬 줄어들어든 셈이다.

한편, 자식을 가지면 얻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비용이 들어간다.

첫째, 먹이고 입히고, 아프면 병원 다니고 하는 데 돈이 들어간다.

둘째, 교육시키는 데도 돈이 많이 들어간다. 과거에는 교육을 많이 시키지 않아서 교육비가 별로 들지 않았지만, 요즘은 엄청난 돈이 필요하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2000년 현재 자녀 1명을 대학까지 공부시키는 데는 5,172만 원이 든다.

셋째, 결혼시키는 데도 돈이 많이 든다. 1997년 저축추진중앙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살림집 마련 비용을 제외한 혼례 비용만도 신혼부부 한 쌍당 평균 3,140만 원이나 든다. 이

는 미국에 비해 4.7배나 많은 액수이다.

넷째, 요즘 여성들은 대부분 사회에 진출해 있고, 높은 보수를 받는 여성들도 많다. 그러나 자녀의 출산이나 양육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매달 받던 월급은 물론, 자신의 사회적 실현도 포기해야 한다. 이러한 간접비용(즉, 자녀 출산으로 포기되는 소득 등)이 과거에 비해 굉장히 커진 셈이다.

앞의 네 가지 비용을 합한 것을 출산의 기회비용이라고 하는데, 이는 요즘 사람들이 자식을 적게 낳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962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87달러에 불과할 때는 인구 1,000명당 출생률이 38.7명이나 되었으나, 1인당 국민소득이 9,000달러로 증가한 2001년에는 11.6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는 데서 알 수 있다. 이는 바로 출산의 기회비용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과거에 비해 자식을 낳음으로써 얻는 것은 줄어든 반면, 자식을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크게 증가하였다. 그 결과, 사람들이 자식을 적게 낳게 된 것이다.

이제는 출산을 장려해야 할 때

이제 우리는 사람들이 자식을 더 낳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자식을 가질 때의 비용은 낮춰 주고 편익은 높여 주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취한 바 있다. 인구 증가가 사회적 문제가 되던 1960~1970년대에는 자식을 적게 낳도록 하기 위해 자식을 많이 낳으면 여러 가지의 불이익을 주었다. 예컨대 공무원의 경우, 셋째 자녀부터는 교육비를 지원해 주지 않았고, 의료보험 혜택에서도 제외시켰다. 말하자면 자식을 갖는 비용이 높아지게 하는 정책을 쓴 것이다.

중국에서는 지금도 산아제한을 위해 두 번째 자녀부터 많은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웬만한 부자가 아니면 자식을 2명 이상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자식이 2명 이상이면 부의 상징이 된다.

반면, 인구 감소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편익은 높이고 비용은 낮추는

정책을 쓰고 있다. 즉, 출산 및 양육비 지원, 교육비 지원, 공공 탁아소 운영 등을 통해 비용은 낮춰 주고, 자녀 수에 비례하여 돈을 지급함으로써 편익은 높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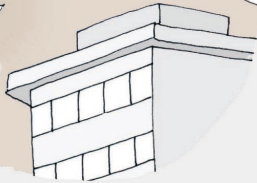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다. 1770년에 세계 최초로 보육시설을 설립했고, 1981년에는 유치원 무상 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지금은 대학까지 무상 교육이다. 출산을 앞둔 ‘예비 엄마’ 들은 임신 8개월이 되면 800유로(약 109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받으며, 출산 후 3년 동안 매달 양육수당으로 160유로(약 22만 원)를 받는다. 18세 미만의 첫 두 자녀에 대해서는 매달 육아보조금으로 월 109유로(약 15만 원)를, 셋째부터는 월 250유로(약 34만 원)를 지급한다. 이렇듯 세 번째부터 한층 후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자녀를 3명 이상 낳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프랑스처럼 자식을 낳게 하기 위해 돈을 주어야 할지 모른다. 그래서 과거와는 반대로 ‘아이를 낳으세요, 돈을 드립니다’ 라는 출산장려 포스터를 보게 될지도 모른다.

1960년대 초반에는 ‘이들 둘 딸 하나, 셋만 낳아 잘 기르자!’, 1960년대 후반에는 ‘이들 딸 하나씩, 둘만 낳아 잘 기르자!’, 1970년대 말에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리고 그 후에는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라는 표어를 내걸고 출산을 억제했다. 그러한 산아제한 정책 40년 만에 상황이 역전되어 이제는 출산을 장려해야 할 처지가 된 것이다.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 선거 개표 방송을 보면서...

2002년 12월 1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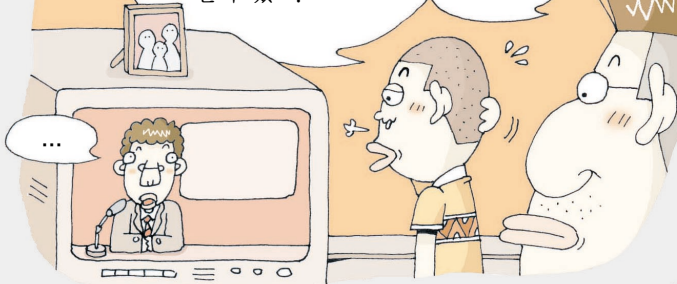
출구조사 결과
B 후보가 A 후보를
아슬아슬하게 앞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 개표 방송



이제 막 투표가 끝났는데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으응...



글쎄 말이다.
아빠 생각에도
좀 성급한 발표
같구나...



한국갤럽의 전화
여론조사에서는
A 후보가
유리하다던데요.
왜 여론조사 기관마다
예상이 다르죠?



음... 그걸 알려면 먼저
전화 여론조사와 출구조사가
어떻게 다른지부터
알아야 되지.

그럼 그것부터
가르쳐 주세요.





먼저...
전화 여론조사란
투표하기 전에 전화로
누구에게 투표할
건지를 물어보는
거고,

출구조사란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누구를
선택했는지 물어보는 거란다.

아항~.



그럼 당연히...
출구조사가 훨씬
정확하겠네요?

음...



그렇지...
그런데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니?

이유라...

생각 중...



음...
전화로 대답할 때는
아직 투표를 안 한
상황이고, 출구조사 때는
이미 투표를
하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구나?
그래... 맞았다.
하지만 그것 말고도 또 다른
이유가 있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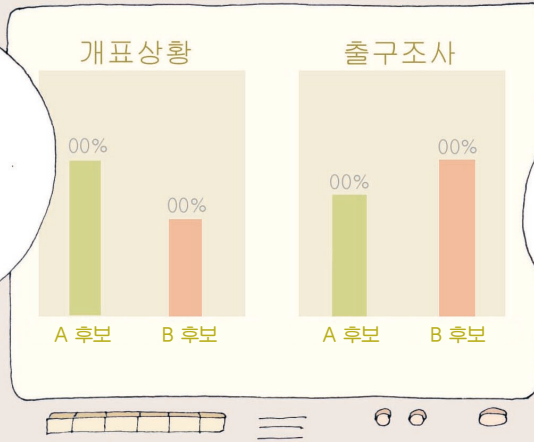
또 다른
이유요?
뭔데요?



전화 여론조사는
실제로 투표하려
안 가더라도 투표할
거라고 대답할 수
있거든.



아니...
 꼭 그렇진 않다.
 지금도 개표 상황과
 출구조사 결과가
 다르잖니.



예, 정말
 그러네요.
 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지역 편중
 현상이라는 게 있어서 어느 후보도
 모든 지역에서 골고루 지지를 받는
 경우가 드물거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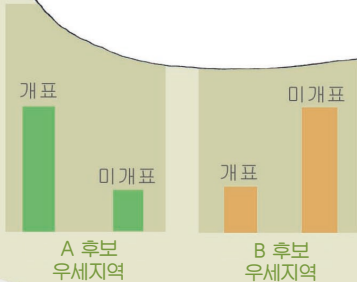
그런데 지금 방송에 나
 오는 개표율이
 지역별로 차이가
 나지 않나?

지역 편중
 현상?

네, 듣고 보니
 그렇네요.

• 지역 편중 현상 : 지역에 따라 지지율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한다.

특히 A 후보 지지자가
 많은 지역의 개표율이
 높은 걸로 봐서...



아직까지 집계에는
 A 후보의 표가
 많이 반영된 걸로
 봐야 해.

아하~



이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할 때도 조사
대상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해야 한단다.

그럼 조사 대상은
어떻게 정해요?
자원하는 사람들만
하나요?



아니지... 그건
공평하지가 않지.

왜...
왜요?



대개 자원하는 사람들은
나서기를 좋아하고,
자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반대거든. 그래서
정치적 성향도 다를 수
있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할 때는 어느 누구나 자연스럽게
조사 대상에 들 수 있도록
확률적 방법을 쓴단다.

확률적
방법이요?



그래,
예를 하나
들자면...

흐흠~



너희 반 아이들 36명을
공평하게 두 조로 나눠서
시험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겠니?

글쎄요...
키 순서로 하기도
그렇고, 몸무게
순서로 하기도
그렇고...

가웃~



그럴 때 동전 던지기
같은 방법을 쓸 수
있단다.

확~



너희 반 애들 모두에게 동전을 한 번씩 던져 보게 해서 앞면이 나온 애들은 1조, 뒷면이 나온 애들은 2조, 이렇게 나누는 거지.

그러면 놀랍게도 두 조가 아주 비슷하게 나뉘단다.

비슷하게 나뉘다뇨? 뭐가요?



앞면 (1조) 뒷면 (2조)



예를 들어 안경을 쓴 애들이나 키가 어느 정도 이상인 애들이 양쪽에 비슷하게 들어 있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반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할 일이 있을 때 1조나 2조 중 한 조만 조사해도 반 전체를 조사한 것과 거의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단다.

오옷~ 저... 정말요?

하... 거 신기 하네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도 그런 식으로 뽑는다는 거죠?

그런데 아빠, 꼭 동전을 던져야 하는 건 아니지요?

하하~ 물론이지. 예를 들어서 동전 던지기 같은 방법을 쓴다는 얘기가. 주사위 던지기도 있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단다.

그렇지.





이사를 몇 번 더 가야 우리 집이 생길까?



제비 한 마리 처음 날아와
지지배배 그 소리 그치지 않네.
말하는 뜻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집 없는 서러움을 호소하는 듯.
“느릅나무 왜나무 묶어 구멍 많은데
어찌하여 그곳에 깃들이지 않니?”
제비 다시 지저귀며
사람에게 말하듯
“느릅나무 구멍은 황새가 쪼고
왜나무 구멍은 뱀이 와서 뒤진다오.”
-〈여유당전서 1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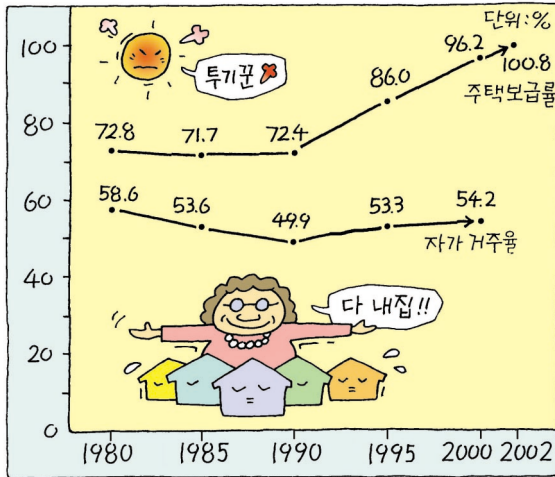
燕子初來時
제비 연, 아들 자, 처음 초, 올 래, 때 시
喃喃語不休
재잘거릴 남, 재잘거릴 남, 말씀 어, 아니 불, 실 휴
語意雖未明
말씀 어, 뜻 의, 비록 수, 아닐 미, 밝을 명
似訴無家愁
같을 사, 하소연할 소, 없을 무, 집 가, 근심 수
榆槐老多穴
느릅나무 유, 왜나무 괴, 늙을 노, 많을 다, 구멍 혈
何不此淹留
어찌 하, 아니 불, 이 차, 머물 엄, 머물 유
燕子復喃喃
제비 연, 아들 자, 다시 부, 재잘거릴 남, 재잘거릴 남
似與人語酬
같을 사, 더불 여, 사람 인, 말씀 어, 잔 돌릴 수
榆穴鸛來啄
느릅나무 유, 구멍 혈, 황새 관, 올 래, 쪼 탁
槐穴蛇來搜
왜나무 괴, 구멍 혈, 뱀 사, 올 래, 찾을 수

이 시는 다산 정약용의 고시(古詩) 27수 중의 하나이다. 자신의 집을 가지지 못하는 제비의 서러운 지지배배 소리에서, 100% 주택보급률을 보이는 오늘날 집 없는 서민들의 서글픔을 읽는다면 너무 심한 해석일까?

2002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100.8%이다. 그런데 자기가 소유한 집에서 사는 비율은 단지 54.2%이다.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다. 그러니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다고 해도 국민의 반 정도는 자기 집을 못 가진 무주택자이고, 나머지 반

주택보급률 : 전국의 주택 수를 가구 수로 나눈 단순 수치. 우리나라의 가구 수는 1,227만 1,500가구이고, 주택 수는 1,236만 6,000호여서 100%를 넘는다.

■ 늘어난 주택, 힘들어진 내 집 마련



* 자료 : 건설교통부, 통계청

정도는 2채 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지난 1995년부터 2000년 사이에 주택보급률은 10.2%포인트

(86.0% → 96.2%) 증가

자가거주율 : 자기가 소유한 집에서 사는 가구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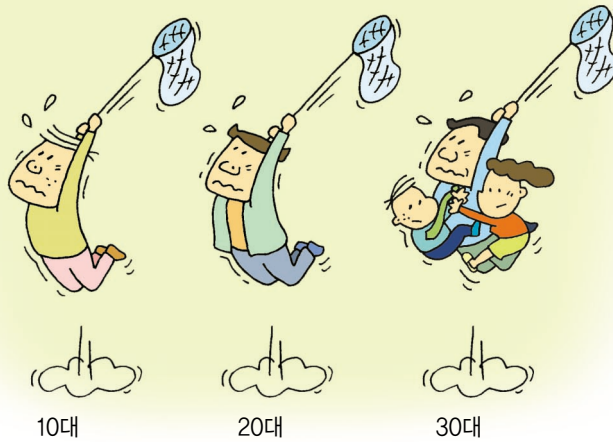
한 반면 자가거주율은 0.9%포인트 (53.3% → 54.2%) 증가에 그쳤다.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만 늘어난 것이다.

무주택자들은 전세나 월세를 살면서 이사를 자주 해야 한다. 2001년 통계청의 조사에 의하면, 결혼하고 나서

평균 10년 9개월 정도 걸려야 자기 집을 마련한다. 요즘 전세 계약이 주로 2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하면 평균 다섯 번 이상을 이사해야 자기 집을 갖는 것이다. 집을 구하는 데 드는 부동산 관련 비용, 그리고 이사 비용까지 합치면 다섯 번의 이사를 하면서 서민들이 처리해야 하는 경제적 비용은 만만치 않다. 여러 번 이사하는 과정에서 겪는 아이들의 학교 문제까지 고려하면 다섯 번의 이사는 참으로 힘든 일이다. 더구나 계속해서 오르는 집값을 생각하면 집 없는 서민들의 서러움은 어쩌면 집 없는 제비의 서러움보다 더할지도 모른다.

자기 집이 아니더라도 전셋돈이나 월세를 걱정하지 않으면서 자기 집처럼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영구 임대' 나 '장기 임대' 제도는 집 없는 사람들이 적은 돈으로 자기 집처럼 살 수 있게 하는 공공주택 제도의 한 방법이다. 그러나 이런 공공주택은 우리나라의 주택 중 겨우 2.4%에 불과하다. 외국의 경우는 전체 주택 중 적게는 14.4%(포르투갈)에서 많게는 43%(네덜란드)나 된다.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사를 하는 일도 줄어들 것이며, 가난한 사람들이 겪는 집 없는 서러움도 줄어들 것이다.

아직도 돈을 모아서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것을 중요한 삶의 목표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자기 집을 꼭 가져야 한다는 ‘소유 의식’ 대신 생활의 편리에 따라 집을 선택하는 경향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특히 신혼부부나 독신자들에게 인기를 끄는 원룸식 임대주택은 방 하나에 침실, 주방, 화장실 등을 다 갖추고 있어 새로운 주거 문화를 이끌고 있다. 대체로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이런 주택은 보통 15평 내외의 소규모이지만 여러 가지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의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 생활하기에 편리하다. 이들은 약차같이 돈을 모아서 집을 사기보다는 이렇게 원룸식 주택에 살면서 생활의 편리함도 누리고, 집을 사는 데 드는 돈으로 자신의 취미 등을 즐기려고 한다. 집을 소유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생활을 위한 공간으로 보는 인식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아닐까? 어쨌든 앞으로는 편리함이 주택을 선택하는 중요한 이유가 될 가능성이 크다.

편리함을 강조하는 미래의 첨단 주택은 어떤 모습일까?

지하철. '목욕을 하면 피로가 풀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노트북 컴퓨터를 열어 인터넷에 연결한 뒤 홈 네트워크에 접속, 욕조에 따뜻한 목욕물을 받아 두고 거실 등의 조도를 낮춘다. 간단히 먹을거리가 있는지 검색해 보니 전자레인지 속에 아침에 넣어 뒀던 만두가 보였다. 30분 뒤 따뜻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 했다.

집 앞. "나야."라고 속삭이자 현관문이 열린다. 욕실에서 자가진단 변기와 혈압계를 통해 간단한 소변 검사와 혈압 검사를 해 본다. 아직 젊기 때문인지 큰 이상은 없다. 목욕을 끝낸 뒤 알맞게 데워진 만두를 꺼내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켜다. TV 초기 화면에는 이 달 내야 할 아파트 관리비와 아파트 단지 내 쇼핑센터에서 내일부터 바겐세일을 한다는 고지사항이 떠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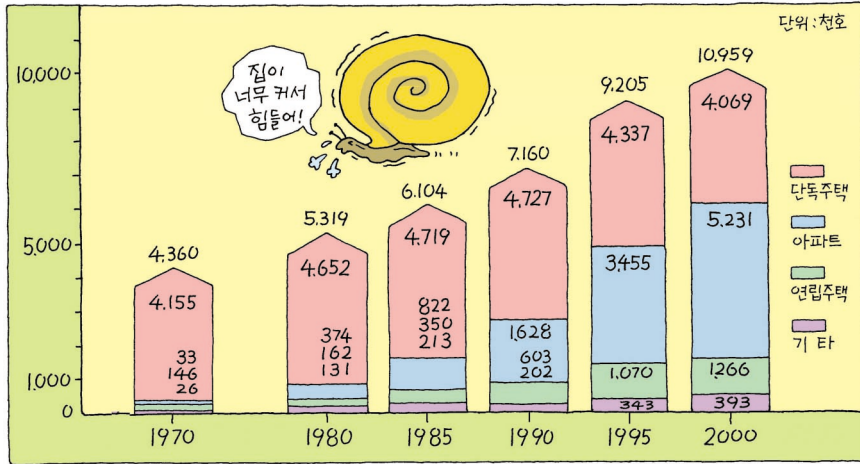
내일 오전까지 과일과 간단한 먹을거리를 보내 달라고 리모컨으로 입력한 뒤 침대로 간다. 여기서도 거실의 TV를 공유할 수 있다. 브라운관에서는 나쁜 멜로 영화가 흘러나온다. 스크림 잠이 들지만 TV와 실내등은 주인이 잠들자 저절로 꺼진다. 언제 이런 집에서 살게 될까? - 《동아일보》에서

그런데 미래에는 모두가 이런 집에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아니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이런 집에서 살게 될까? 아직도 우리나라 주택 중엔 10.9%가 목욕 시설이 없고, 12.8%가 재래식 화장실이며, 심지어 공동 화장실을 이용하는 주택도 0.2%나 된다. 아무리 편리함이 주택을 선택하는 이유가 된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 같다. 또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투기의 대상으로 보는 한 미래의 첨단 주택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꿈일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살지 않고 한 집에 정착해서 산다. 그렇다면 집은 한 채만 있으면 되는데, 어떤 이유로 사람들은 집을 여러 채 가질까? '집'과 같은 재산을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부동산에 투자함으로써 재산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종종 부동산을 투자가 아니라 '투기'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 '투기'란 시세 변동을 이용하여 큰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매매 행위로, 아파트를 사서 조금 있다가 가격이 오르면 재빨리 팔아 그 이익을 얻는 경우가 한 예이다. 이러한 투기는 물가 상승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더 높게 나타



■ 유형별 주택 수



* 주 : 단독 주택은 다가구 주택 포함, 연립 주택은 다세대 주택 포함

* 자료 : 통계청

날 때 일어나고, 그 결과 부동산 가격은 자꾸 오르게 된다.

더 문제인 것은, 부동산 가격이 터무니없이 올라가면 부동산을 많이 가진 부자들은 가만히 앉아 큰돈을 벌게 되는 데 비해, 집 없는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이 점점 멀어지고 심지어는 일할 의욕마저 잃게 된다는 것이다. 누구는 가지고 있는 집으로 몇천만 원을 버는데, 열심히 일해서 '몇만 원 버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기 때문이다.

개인이 자기 돈으로 자유롭게 집을 사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물과 공기처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면서도 한정된 자원인 집이 투기의 대상이 되면, 결국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갈등이 심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일할 의욕을 잃게 된다. 결국에는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 모두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집은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사는 곳이다."라는 소박한 생각이 통용되는 세상은 언제나 올까?

우리의 평균 수명은 얼마나 될까?



인류를 괴롭히는 3대 질병은?

인류를 위협하는 질환 세 개를 꼽으라고 하면 아마도 '한국인의 사망 원인' 같은 통계 수치에 언급되는 뇌혈관 질환, 심장병, 간암 등을 떠올릴 것이다. 또는 치료하기 어려운 정도를 기준으로 암, 치매, 에이즈 등 난치병을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생명을 직접 위협하지는 않는다 해도 한번 걸리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게 되는 디스크나 당뇨병 같은 것도 고려에 넣어야 할 것 같다. 이렇듯 인류를 위협하는 질환이 무엇이나에 대해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여러 갈래의 답이 나올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2년 《세계 질병 부담》이라는 색다른 보고서를 내놓았다. 하버드대와 함께 1996년부터 5년에 걸쳐 진행한 연구 결과물이었다. 그전까지 WHO는 사망률을 기준으로 질병의 심각성을 따졌는데, 이 연구에서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접근했다. 즉, 그 병에 걸렸을 때 들어가는 치료비와 그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생기는 경제적 손실 같은 것을 계산하여 새롭게 순위를 매긴 것이다.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 1990년에는 폐렴, 설사, 출산 관련 질병이 3대 질병으로 꼽혔다. 의외의 결과다. 하지만 지구촌 전체를 생각하면 납득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나라만 해도 이미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많이 걸리는 병을 가지고 지구촌 인류 전체를 생각해서



는 안 된다. 가난이나 형편없는 의료 기술, 불결한 환경 등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세계에는 상상 외로 많다. 또 설사가 두 번째로 심각한 병으로 손꼽힌 것은 그만큼 더러운 물을 먹고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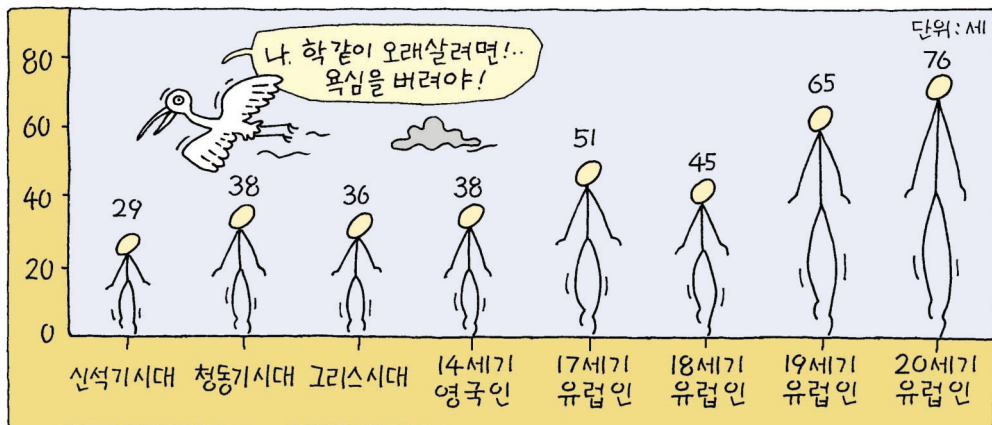
이 보고서에서는 오는 2020년의 상황도 예견하고 있다. 그때가 되면 어떤 병들이 인류를 괴롭힐까? 결과는 심장질환, 우울증, 교통사고로 나왔다. 인류 전체의 생활 양식이 상당히 선진화되고 도시화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내린 예측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추세로 간다고 할 때 한국인의 건강은 어떻게 될까? 평균 수명은 늘어날까, 아니면 줄어들까?

옛날 사람들은 몇 살까지 살았을까?

먼저 역사 속에 등장했다가 사라진 인류의 평균 수명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자. 아래 그림을 보면 우리의 조상들은 지금 기준으로는 모두 '요절' 했음을 알 수 있다. 극단적인 예이지만 영국의 산업화 초기인 18세기에 맨체스터 같은 도시의 평균 수명은 26세 정도였다고 한다. 그 정도라면 사회 자체가 유지되기 어려운 수준이 아닌가? 그런데 사실 평균 수명이 그렇게까지 내려간 것은 유아 사망 때문이었다. 우리나라에서 불과 반 세기 전만 해도 아이가 태

■ 시대별 평균 수명의 변화



어나서 서너 살 전에 죽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었다.

또 과거에는 성인이 되어서도 오래도록 살지 못했다. 예를 들어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을 보면 40세가 채 안 되었다. 물론 사도세자처럼 정치적인 이유로 타살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평균 수명이 내려간 면도 있기는 하다.

그러면 20세기에 들어와서 갑자기 인류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게 된 까닭은 무엇인가? 과학 기술의 발달이 결정적이었다. 그 가운데서도 공중 보건과 예방 의학이 가장 크게 기여했다. 13세기 유럽에 흑사병이 돌아 유럽 인구의 4분의 1 가량이 죽었는데, 놀랍게도 당시에는 그 원인이 더러운 환경이나 쥐 같은 데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심지어 '세균'이라는 것이 있는 줄도 몰랐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노해서 형벌을 내렸다고 생각하며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고, 수도사들은 자신의 몸에 채찍질을 하면서 신에게 용서를 빌었다.

근대 과학이 발달하면서 현미경으로 세균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몸 속에 들어가 어떻게 번식하는지도 밝혀졌다. 그래서 항생제 같은 치료제가 개발되었고, 놀라운 속도로 전염병들을 정복해 갈 수 있었다. 그 가운데 천연두나 소아마비 같은 것은 거의 퇴치가 되었다. 또한 소독약이 대대적으로 개발·보급되고 환경 위생을 강화하면서 질병이 거의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다. 최근에는 유전공학에 힘입어 선천적인 질병과 치매 같은 난치병까지도 정복하는 꿈을 키우고 있다.

지금 청소년들의 평균 수명을 예상한다면?

그러나 과연 인류의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날 수 있을까?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한계는 있다.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는 인간이 개발한 항생제에 잘 죽지 않는 새로운 종으로 진화한다. 물론 과학자들은 새로운 항생제를 개발하지만, 어떤 항생제로도 치료되지 않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신종 바이러스와 슈퍼 박테리아가 인류를 위협한다. 게다가 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또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 사람들의 건강 상태이다. 미래의 평균 수명을 예측하



려면 지금 젊은이들의 생활 습관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2001 국민 건강 영양 조사》에 따르면, 아침을 거르는 사람이 20대는 45%, 10대는 37%(여자 10대의 경우 43%)에 이른다.

이렇게 식사는 부실해지고 몸에 좋지 않은 인스턴트 식품이나 화학 조미료를 많이 쓰는 외식은 늘어난다. 7~29세의 젊은 층의 경우 매일 외식하는 비율이



40~45%로 나타났고, 30~40대 남성들은 소주와 삼겹살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지나친 흡연도 심각한 문제이다. 놀라운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청소년 흡연은 더욱 심각하다. 청소년 흡연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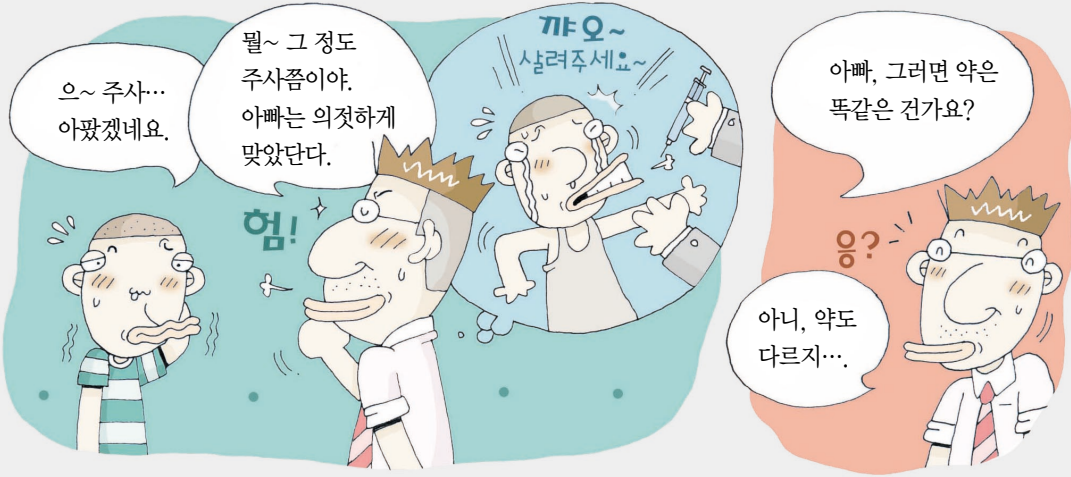
그 외에 생활 리듬도 문제다. 최근에 인터넷 때문에 밤을 새우는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영양 결핍과 운동 부족으로 성장과 면역 기능의 저하, 만성 빈혈 등이 예상된다고 경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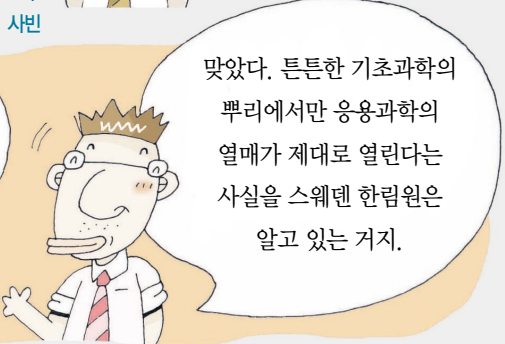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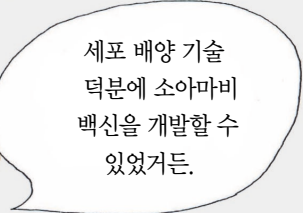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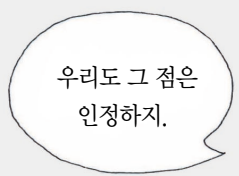
체격은 좋아지지만 체력은 점점 떨어지는 청소년들, 과연 50년 뒤에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아무리 오래 산다 해도 이런저런 병에 걸려 고생을 한다면 오래 사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지금 내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생활하는가에 따라 앞으로의 내 삶의 질이 좌우된다. 몸 속에 깃들여 있는 생명을 소중하게 대할 일이다.

동생에게

소아마비 예방 백신을 맞히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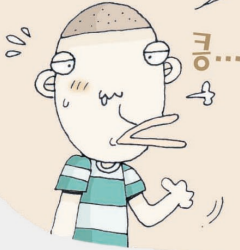


• 스웨덴 한림원 : 노벨상 수상을 선정하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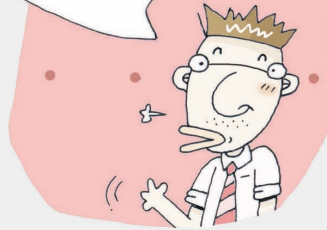
불공평해요...
그럼 예방주사를 안 맞은
아이들은 불쌍하잖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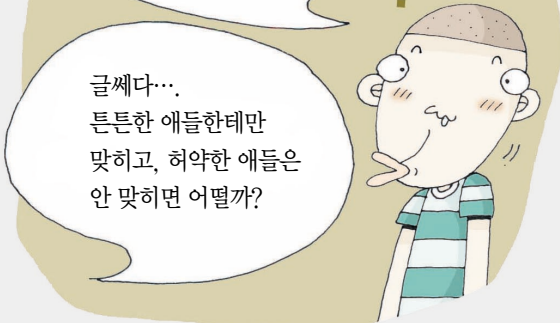
그렇진 않지.
처음 개발됐을 때는
그 예방주사가 효과가
있는지 어떤지
아무도 보장
못하는 거니까...



실제로 과거의 백신들
중에는 오히려 맞혀서
소아마비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거든.



그럼... 어떤 애들한테
예방주사를 놔 줘요?



글쎄다...
튼튼한 애들한테만
맞히고, 허약한 애들은
안 맞히면 어떨까?

에이~ 말도 안 돼요.
예방주사를 맞든 안 맞든
허약한 애들이 소아마비에
걸릴 가능성이 많을 텐데요...



그래. 그렇게 하면
정확한 결과를 얻기
힘들겠지?

그래서 1954년에 임상 실험을
할 때는 180만 명의 아이들이
참여했었던단.



180만...
명이나요?

그래... 소아마비는 보통
2천 명에 1명꼴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를 분석하려면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필요했던 거지.



음~
그렇구나...



그런데 그 많은 아이들 모두에게 주사를 놔 주면,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예방주사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하하~ 우리 아들 똑똑한걸?



그래서 아이들을 둘로 나눠서 한쪽 아이들에게는 진짜 예방주사를 놓아 주고, 다른 아이들에게는 가짜 주사를 놔 줬단다.

예? 가짜... 주사를요??

엄~

※ 이렇게 임상 실험에서 비교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약을 플라시보라고 한다.



그래, 사람 마음이란 게 묘해서 감기 환자에게 소화제만 먹여도 낫는 경우가 있잖나.

아~! 그런 얘기 들어본 거 같아요!



그런데 한쪽은 주사를 맞히고 다른 쪽은 안 맞히면 혹시라도 심리적인 불안감이 생겨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겠나?

예... 그래요. 하~ 정말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실험을 하는군요.

피덕~

피덕~



그럼~ 그만큼 중요한 실험이니까.

궁금...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흠! 과학의 승리였지. 예방주사를 맞은 아이들보다 가짜 주사를 맞은 아이들보다 거의 세 배 정도나 소아마비에 걸리지 않았거든!

짜

잔~



우와~! 그래서 이제는 모두 안심하고 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게 된 거군요!

그렇지!
하하하~

소득으로 본 난쟁이와 키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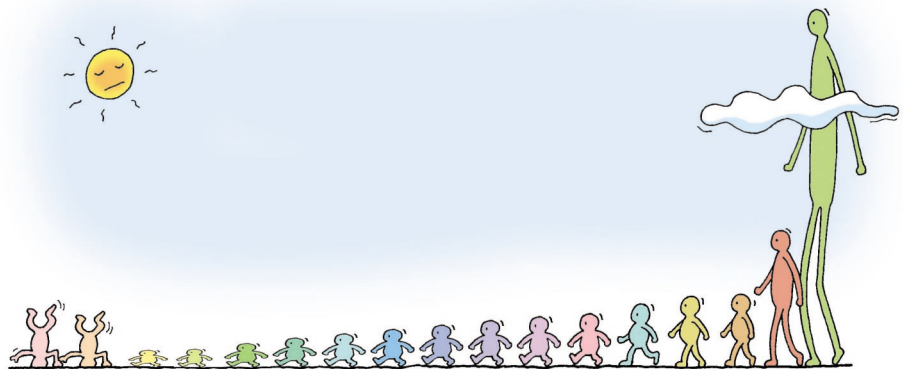


네덜란드의 경제학자 펜(J.Pen)이 쓴 《소득 분배》라는 책을 보면 현실의 소득 불평등 상태를 잘 말해 주는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있다.

펜은 가상의 가장행렬을 연출한다. 그 행렬에는 소득을 가진 모든 사람이 출연한다. 흥미로운 것은 출연하는 사람들의 키가 각자의 소득에 비례한다는 점이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키다리로 출연하고, 평균 소득을 가진 사람은 평균 신장(170cm)으로 출연하며, 소득이 적은 사람은 난쟁이로 출연한다.

이 가장행렬은 영국에서 1시간 동안 벌어진다. 영국의 모든 인구 모델들이 1시간 동안에 모두 출연해야 하므로 이 가장행렬은 빠르게 진행된다.

가장행렬에 처음 등장하는 사람들은 머리를 땅 속에 파묻고 거꾸로 나타난다. 거꾸로 서 있다는 것은 키가 마이너스(즉, 소득이 마이너스)라는 뜻이다. 즉, 파산한 사업가나 빚진 사람



들이 이들이다.

거꾸로 선 사람들이 지나가고 나면 마치 개미처럼 땅바닥에 붙어 선 사람들이 등장한다. 신문배달 소년, 시간제로 일하는 주부 등 소득이 아주 적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소인국 사람 들처럼 키가 몇 cm밖에 되지 않는다.

이들이 지나가고 난 한참 뒤에 키가 1m가 채 안 되는 난쟁이들이 등장한다. 정부가 주는 보조금으로 살아가는 노약자와 실업자, 장사가 안 되는 노점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천 재 화가 등이 그들이다.

그 다음에는 1m가 조금 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 청소부, 지하철 집표원 등 저임금 노동 자들이다. 이때도 '레이디 퍼스트(lady first : 여성 먼저)'의 원칙이 지켜져 여성들이 먼저 등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여성들의 임금이 남성보다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30분이 지나도록 계속 난쟁이들만 등장한다. 그래서 펜은 이를 '난쟁이의 행렬' 이라고 불렀다. 이것은 한 사회 내에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 다시 말해 소 득 분배가 불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행렬이 시작된 후 48분이 지났을 때에야 비로소 평균 신장(170cm)의 사람들이 등장 한다. 이것은 사회의 대다수가 평균 소득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키가 급속히 커진다. 54분이 되면 키가 2m가 되는 키다리들 이 등장한다. 대졸 회사원, 교장 등이다. 그 다음에는 5m가 되는 거인들이 등장하는데, 이들 은 군 대령, 국영기업 기술자, 성공 못한 변호사 등이다.

59분이 되면 8~12m나 되는 거인들이 대학 교수, 대기업 중역, 고등법원 판사 등을 상 징하며, 그 다음에는 20m가 되는 거인들이 수입 좋은 회계사, 의사, 변호사들을 상징하며 등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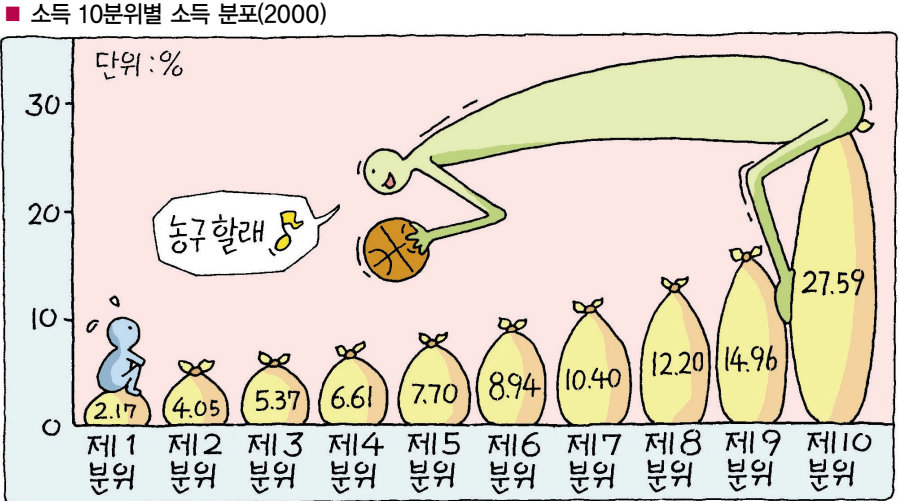
마지막 몇십 초를 남겨 놓고는 수십 m의 초거인들이 등장한다. 주로 유명한 대기업의 중 역들이고, 약간은 왕족이다.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남편인 필립 공은 60m이고, 석유 회사 '셸'의 전무는 110m이다. 마지막 몇 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키가 너무 커서 얼굴이 구

름에 가려져 있으며, 마일(1마일=1,600m) 단위로 키를 재야 한다. 대부분 거대한 유산을 물려 받은 사람들이다. 영국의 유명한 가수 톰 존스도 1마일의 키를 자랑하며 등장한다. 맨 나중에 등장하는 석유왕 폴 게티는 키가 10마일이 되는지 20마일이 되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크다.

이와 같이 소득에 비례하도록 키를 조정하여 가장행렬을 펼쳐 보니, 대다수가 난쟁이고 키다리하는 소수에 불과하다. 이를 통해 한 사회 내에는 소득이 적은 사람(난쟁이)이 많고 소득이 많은 사람(키다리)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가장행렬을 펼쳐 본다면 어떤 모습일까? 우리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난쟁이 행렬' 일까? 아니면 평균 신장의 사람들이 많을까? 난쟁이도 키다리도 적은 모습, 즉 소득 분배가 보다 평등한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통계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도 영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소득이 최상위인 10%계층(제10분위)은 소득이 최하위인 10%계층(제1분위)보다 12.7배나 많이 벌고 있고, 제9분위는 제1분위보다 6.9배나 많이 벌고 있다. 키로 말한다면, 제10분위



* 자료 : 통계청

사람들의 키는 제1분위 사람들보다 12.7배나 크며, 제9분위 사람들은 제1분위 사람들보다 6.9배나 큰 셈이다.

세계은행은 제1~4분위의 40%계층을 저소득층, 제9~10분위의 20%계층을 고소득층, 제5~8분위의 40%계층을 중소득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저소득층의 소득점유율과 고소득층의 소득점유율의 비율을 계산해서 한 사회의 불평등 정도를 재는 지표로 사용하는데, 이를 10분위 분배율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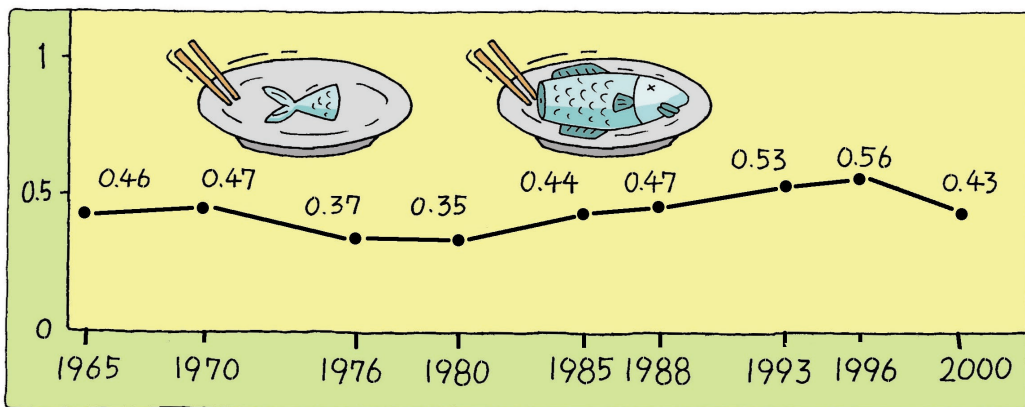
소득점유율 :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10분위 분배율은 저소득층이 차지하는 점유율을 분자로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소득이

$$10\text{분위 분배율} = \frac{\text{제1}\sim\text{4분위(저소득층) 소득점유율}}{\text{제9}\sim\text{10분위(고소득층) 소득점유율}}$$

클수록 값이 커진다. 따라서 이 값이 클수록 소득 분배가 보다 평등하다고 할 수 있다. 보통 0.45 이상이면 고균등 분배, 0.35 미만이면 불균등 분배, 그 사이는 저균등 분배라고 한다. 아래 그림에서 2000년 당시 우리나라는 10분위 분배율이 0.43이므로, 저균등 분배 상태를 알 수 있다.

■ 10분위 분배율의 추이



* 자료 : 통계청

자본주의 시장경제 구조에서 소득 분배는 어느 정도 불공정하거나 불평등한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분배의 불공정 또는 불평등이 방치된다면 저소득층의 소외는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된다. 사회의 공동체적 연대의식을 와해시키고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공정한 분배를 시정하고 불평등을 완화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공정한 분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고대 그리스 이래 아직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나, 오늘날 세계적으로 광범한 지지를 얻고 있는 롤즈(J. Rawls)의 견해는 우리나라에서도 귀담아들을 만하다. 그는 사회의 가장 못사는 계층의 복지가 극대화되는 것, 다시 말해 저소득층의 소득이 커지는 분배가 공정하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저소득층의 소득점유율을 나타내는 10분위 분배율이 1993년 0.53, 1996년 0.56에서 2000년에는 0.43으로 오히려 낮아졌다. 롤즈의 견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분배 상태는 과거에 비해 공정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하도록 정부에서도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우리 모두 경제생활에서 이들을 먼저 배려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밀밭이 왜 사라졌을까?



나그네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삼백 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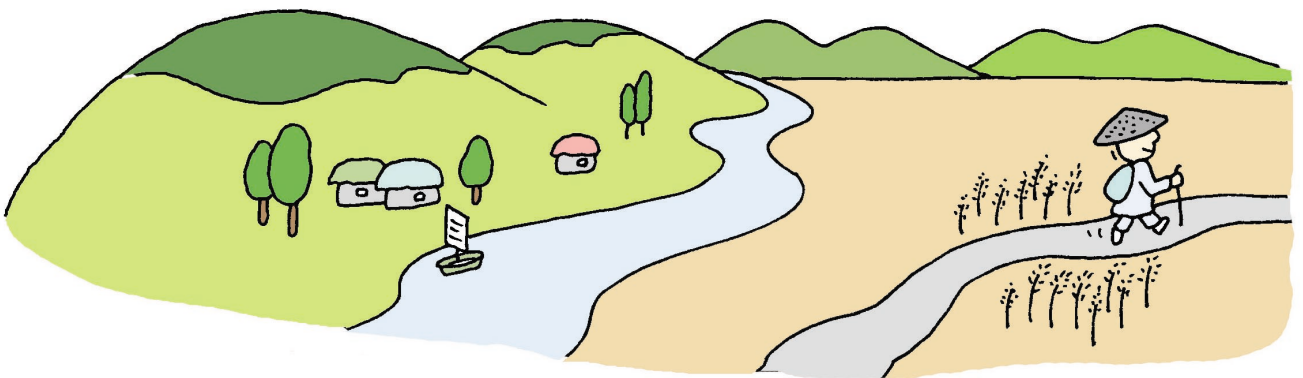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 박목월의 <나그네>



우리나라에서 밀밭이 사라진 이유는?

〈나그네〉는 청록파 시인 박목월의 대표작으로, 넓게 펼쳐진 밀밭길을 유유자적하며 걷고 있는 나그네의 모습을 서정적으로 그려 낸 아름다운 시이다.

그런데 이 시에 나오는 것과 같은 밀밭을 이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우리나라 들판에서 밀밭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나그네〉가 1946년에 《청록집》에 실린 것을 보면 당시에는 쉽게 밀밭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60년대만 해도 시골에서는 밀밭을 쉽게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요즘은 거의 볼 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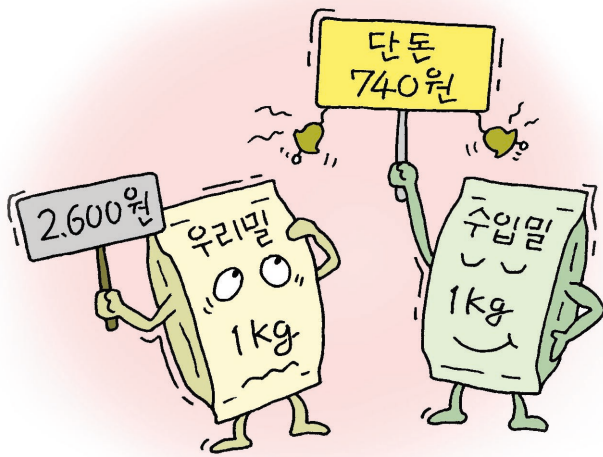
왜 우리나라에서 밀밭이 사라졌을까? 밀에 대한 수요가 없기 때문일까? 아니다. 우리나라의 밀 수요는 엄청나다. 빵, 라면, 국수, 자장면 등 밀가루를 사용하는 음식의 종류도 한두 가지가 아니며, 소비량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국민 1인당 연간 밀 소비량은 2001년 기준 34.4kg으로, 1970년에 26.1kg이었던 것에 비교하면 8.3kg(31.8%)이나 증가하였다. 하지만 쌀은 같은 기간에 136.4kg에서 88.9kg으로 47.5kg(34.8%)이나 감소하였다.

이처럼 쌀 소비는 감소하고 밀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니, 밀 농사를 지으면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정작 농민들은 밀 농사에 전혀 관심이 없다. 가톨릭 교단에서는 1991년 서울 명동성당에 ‘우리밀 살리기 운동본부’를 설립해 농민들이 우리 밀을 재배하도록 적극 권유하고 있지만 동참하는 농민들은 극히 적다. 이유는 간단하다. 농민들이 재배한 밀을 좋은 가격에 팔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소비자들은 우리 밀을 좋은 가격에 사 주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는 외국에서 수입한 밀과 우리 밀의 가격을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2003년 3월 기준 우리 밀가루는 1kg에 2,600원인 데 반해, 수입 밀가루는 740원밖에 하지 않는다. 우리 밀가루가 3.5배나 더 비싼 것이다. 그러니 경제적인 면을 고려하면 우리 밀을 살 수가 없다.

그러면 농민들이 밀가루 값을 내리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밀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을 감안하면 농민의 입장에서는 1kg에 2,600원 이하로 팔았다가는 손





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은 밀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수입 밀가루가 들어 오기 시작한 것은 6·25전쟁 후 (1954년)부터였다. 미국의 농산물수출원조법에 의해 대량의 미국 밀이 우리나라에 무상으로 제공되었다. 전쟁 후의 폐허 상태에서 이루어진 미국의 밀 무상 원조는 우리나라 사람에게 생명줄

과도 같았다. 당시로서는 고맙기 그지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무상 원조된 밀이 싼값으로 시장에 나오면서 국내 밀 가격도 하락하게 되었다. 무상 원조가 끝난 다음(1960년대)에는 미국 밀 수입이 허용되어 값싼 미국 밀이 국내에 대량으로 들어왔고, 우리 밀 가격은 계속 하락하게 되었다. 결국 농민들은 밀 농사를 그만두기 시작했고, 들판에서 밀밭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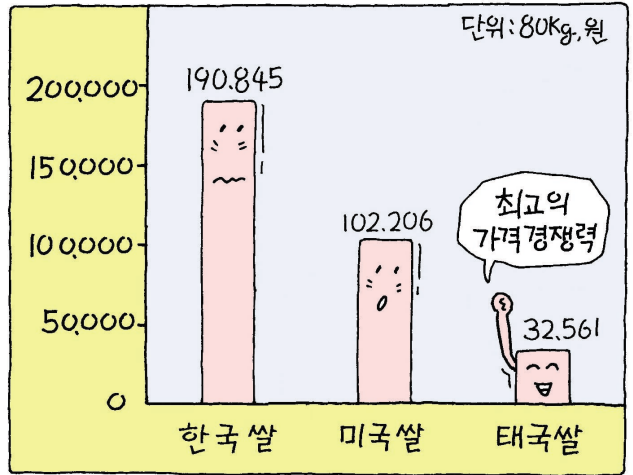
2001년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밀 소비량의 99.9%가 수입 밀이며, 우리 밀은 겨우 0.1%에 불과한 상황이 되었다.

논도 밀밭처럼 사라지게 될까?

우리나라에서 밀밭이 사라졌듯이 논도 사라질 수 있을까? 밀밭의 예로 보아, 앞에서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아마 논도 사라질 것이다. 국내 쌀시장이 개방되어 값싼 외국 쌀이 대량으로 수입된다면, 국내 쌀 가격은 크게 하락할 것이다. 쌀 가격이 하락하면 농민들은 쌀농사를 지으려 들지 않을 것이고, 논은 점차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것이다. 이런 과정이 계속되면 우리나라에서 논이 사라지는 것 또한 시간 문제일 것이다.

그러면 과연 외국 쌀 가격은 어떠하며, 앞으로 외국 쌀이 대량으로 수입될 가능성은 있는 것일까? 실제로 한국 쌀은 외국 쌀보다 대략 2~6배가 비싸다. 생산비가 그만큼 많이 들기 때문이다. 쌀시장이 개방된다면 주로 미국 쌀이 수입될 가능성이 많은데, 우리나라 쌀은 가격과 생산비면에서 미국보다 2~3배가 높다.

■ 국제 쌀값 비교(2000)



* 자료 : ILO(국제노동기구)

국내 쌀시장은 1993년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에서 이미 개방하기로 결정되었다. 그 결과, 1995년부터 국내 쌀 소비량(1986~1988년 평균 소비량)을 기준으로 일정량을 수입하고 있다. 2004년까지 10년 동안은 이렇게 국내 소비량의 일정량을 수입해야 하며, 마지막 해인 2004년에는 국내 쌀 소비량의 4%(약 158만 가마)를 반드시 수입해야 하고, 2005년부터는 쌀시장을 완전히 개방하도록 되어 있다.

다행히 국내 쌀 가격과 외국 쌀 가격의 차이만큼을 수입 쌀에 관세로 부과할 수 있어서 수입 쌀의 가격은 국내 쌀 가격과 같게 된다. 하지만 이 관세는 매년 1%씩 20년간 낮추게 되어 있고, 외국 쌀이 대량 수입되면 국내에서 유통되는 쌀의 양이 많아져 결국 쌀 가격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쌀 가격이 계속 낮아진다면 쌀농사를 포기하는 농민들이 점점 늘어날 것이고, 그런 과정이 계속되면 앞으로 몇십 년 후에는 정말로 논이 사라지는 불행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아이들이 밀밭을 모르듯이 아이들은 논을 모르게 될 것이며,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속담도 이해하지 못할지 모른다. 또 모내기철에 시골길을 걸으며 개구리들의 장엄한 교향곡을 듣는 낭만도 사라질 것이다.



선택 1

값이 싼 걸 사는 게 합리적이니 수입 쌀을 산다.



쌀시장을 완전 개방한다.



결국 농민들은 쌀값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되고...

우 리 의

선택 2

그래도 우리 농민을 보호 해야 하니 우리 쌀을 산다.



쌀시장을 일부만 개방한다.



수입 쌀에 비싼 관세를 부과하여 우리 쌀과 수입 쌀의 가격이 같다.

헛?! 쌀값이
언제 이렇게
올랐지?

이... 이거 쌀이 나올
데가 없으니 안 살
수도 없고...

쌀가
른바
인상!

수입쌀

몇 년 후, 눈이
있던 자리엔
공장이 들어서게 된다.

자아~ 이제 슬슬
쌀값을 올려 보실까?

우리나라에서 눈이 사라진 뒤 수입 쌀값이
오르면 우리는 비싼 값으로 쌀을 살 수밖에
없다.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농업을
보호 할걸...



선택은 ?

달팽이와 오리클
이용한 친환경 쌀농사를 지어
농약을 많이 친 다른 나라 쌀보다
친환경 한국 쌀이
외국에서도 잘 팔린다.

다른 나라 쌀보다
비싸긴 하지만
건강에 좋은
무농약 한국 쌀이
좋아요.
원터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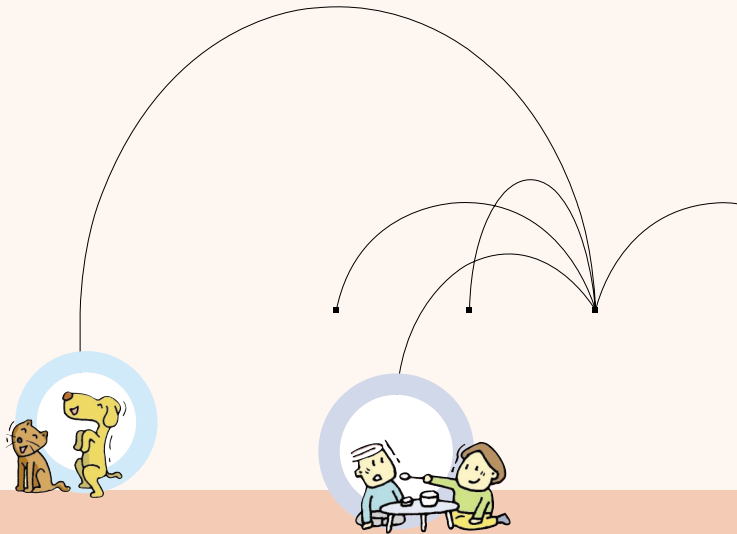
요즘은 농사
지을 맛이 팍팍
난다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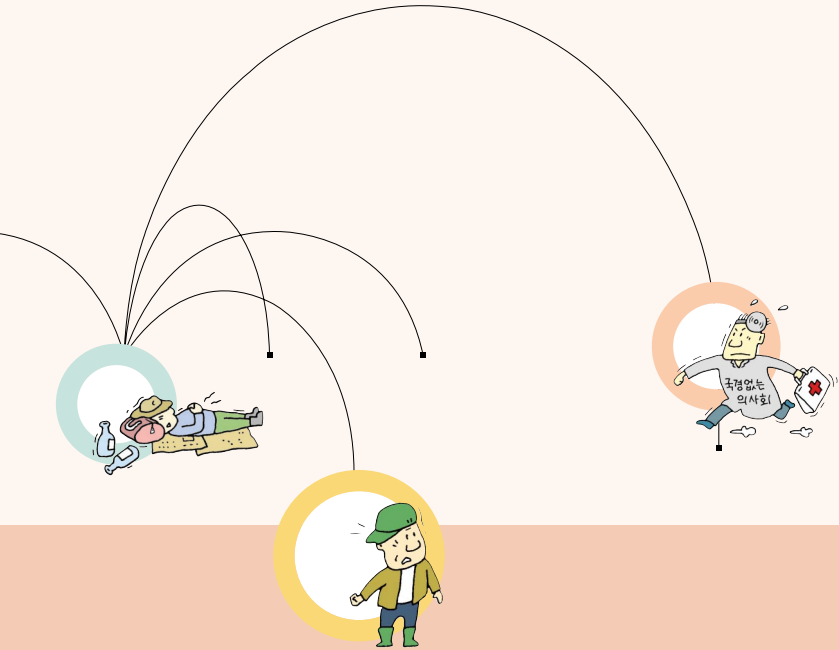
겨울겨울~

쌀을 외국으로 수출하게
되어 우리 농업이 발전한다.

우리 민족은 역시
앞날을 내다보는
민족이라니까!







3부

함께 만드는 큰 세상

민주주의를 위한 밑거름, NGO

1%로 만드는 큰 세상

우리의 이웃, 외국인 노동자

코미디언 이주일 씨를 추모하면서

소년 소녀 가장은 즐기고 있는가

새로운 가족, 애완동물

우리 반에 생일이 같은 아이가 있어요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 어디 갔나?

우리 나이 일흔엔...

베트남 신부와 결혼하세요

쉬어 가는 코너 외국인의 눈에 비친 한국인

민 주주의를 위한 밑거름, NGO



아름다운 청년 대니 서

'지구상에서 가장 경이로운 스물두 살', '기적을 만들어 내는 사람', '인정 많은 영웅'. 누구에게 붙여진 이름일까? 그 이름은 대니 서. 1973년 미국으로 이민간 한국인 부모의 2남 1녀 중 막내인 대니 서는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레딩에서 태어나 자란 한국계 미국인이다. 이미 12살 때 2000년이 되기 전에 지구를 구해 내려는 당찬 포부를 품고 어린이 환경단체 '지구 2000'을 만들었다. 자신의 생일에 선물을 받는 대신 7명의 친구들을 단체에 가입시키는 등 열성적인 활동으로 1997년 해체되기 전까지 회원수를 2만 6천 명으로 늘렸다.

동물의 서식처인 유서 깊은 숲 '히든 폰드'를 개발하려 하자 '숲 지키기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그때 대니는 13살이었다. 또 대형 의류 체인점에서 모피 코트를 전시하자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항의 편지를 보내 결국 중지시켰다. 어릴 때부터 동물 해부를 싫어했던 대니는 생물 시간에 꼭 해야 하는 동물 해부 실습을 거부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켰다. 동물을 죽이는 것은 인간에게 해로우며, 실험하는 데 사용하는 화학물질도 해롭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조사하고 신문에 투고하고 의회에 로비를 펼친 결과다.

병원에서 에이즈 환자를 돕기도 한 그의 학교 성적은 그리 좋지 않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는 170명 중 169등이었다. 대학 진학 대신 사회 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영어 성적은 낙제였지만 신문이나 잡지에 글을 기고했고, 사회 성적도 낙제였지만 그가 추진한 캠페인은 성공했다. 필요한 기금을 모으고, 사람들의 관심을 모아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냈다. 대학을 다니지는 못했지만 대니는 요즘 대학 강단에서 강의를 한다. 인류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들에게 주는 '슈바이처 인간 존엄상'을 수상했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50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각종 언론에서는 늘 그를 주목한다.

- www.salimkin.com에서 (대니 서의 공식 사이트는 www.dannyseo.com)

이 경이로운 젊은이의 직업을 무엇이라고 해야 될까? 사람들은 그를 '시민운동가'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가 만든 '지구 2000'과 같은 단체를 시민단체 또는 NGO라 부른다. NGO는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의 머리글자로, 말 그대로 번역하면 '비정부 조직', '비정부 기구'라고 부를 수 있다. 반대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말로는 일반적으로 시민단체라고 부른다. 쉽게 말하면 정부나 기업과는 달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외부의 간섭 없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이다.



시민단체는 왜 필요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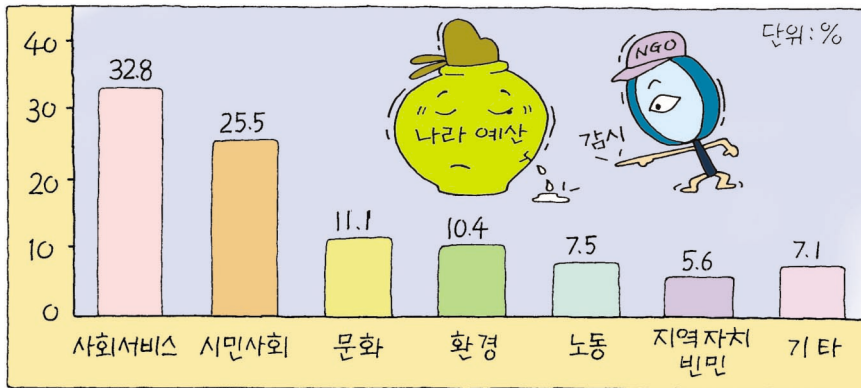
새 학기가 되어 3월에 반장 선거를 한 후, 반장은 학급의 미화를 위해 학급 운영비를 거두기로 했다. 대부분 학원 가고 공부하는 데 바쁜 아이들로서는 처음에는 반장이 알아서 거둔 돈으로 환경 미화를 해 준 데 대해 고마울 따름이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일로 반장이 돈을 거두는 일이 많아졌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돈을 어디에 얼마씩 썼는지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다. 반 운영위원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또 다른 일로 바빠서, 반장이 거두는 학급 운영비의 사용 내역에 대해 자세하게 살피지 못했다. 반 아이들 중 몇 명이 모여, 공부나 학원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장이 학급 운영비를 '바르게 사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이들은 잠깐씩 시간을 내어 '반장이 학급 운영비로 사용한 일'을 간단히 확인하고, 필요하지 않은 곳에 돈을 쓴 경우에는 반의 다른 친구들에게도 알렸다. 이렇게 되자, 학급 운영비를 함부로 사용하는 일이 줄어들었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작은 활동은 반 아이들 전체에 이익이 되었다.

이런 자발적인 소모임은 사실 작은 학급보다 정부의 활동을 감시하고 살펴보는 데 더 필요하다. 이런 일을 하는 대표적인 곳으로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있다. 이 단체에서는 국민이 내는 세금인 혈세가 '주인 없는 돈'이 되어 잘못 쓰여지거나 낭비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활동을 한다. 이러한 예산감시운동을 통하여 시민들은 수동적으로 세금만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감시하고 통제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밑 빠진 독 상'을 만들어 한 달에 한 번 정도 잘못된 예산 집행 사례를 언론에 알리고, 예산 집행을 포기하게 하여 2002년까지 공식적으로 1,024억 원의 국가 예산을 아끼는 데 공헌하였다.

결국 시민단체는 직접적으로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이익과 관련된 사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탄생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시민단체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하는 활동을 '시민운동'이라고 한다. 이러한 활동은 인권, 환경, 경제, 정치, 여성, 평화, 의료 및 구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 시민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창립된 해인 1989년이다. 《2003 민간단체총람》에 의하면 현재 약 2만 5천여 개의 민간단체가 활동하고 있는데, 이 중 시민운동단체는 3,937개로서, 일본의 34만 개나 미국의 114만 개 이상에 비하면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 분야는 다양한데, 그 중에서 사회

■ 시민운동단체의 분야별 분포



서비스(32.8%) 분야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시민사회(25.5%), 문화(11.1%), 환경(10.4%), 노동(7.5%), 지역자치·빈민(5.6%) 분야순이다. 시민단체는 21세기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지역자치와 환경 분야에서 두드러진 증가를 보이고 있다.

땀 흘릴 그대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최근 시민단체 내부에서는 ‘시민 없는 시민단체’라는 반성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가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을 지지하고 회원들의 회비로 시민단체가 운영되어야 한다. 한 시민단체는 “당신의 힘을 느껴 보십시오. 당신이 세상을 바꿉니다. Feel your power. It’s changing our world!”라고 권유하지만,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 1999년 사회통계조사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15세 이상의 사람들 중에서 단체 활동을 하는 사람은 전체의 23.1%이다. 이 중에서도 NGO와 유사한 사회봉사단체와 이익단체에서 활동하는 비율은 9.1%이다. 따라서 전체 국민 가운데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사람은 2.1% 정도밖에 안 되는 셈이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대니 서처럼 고등학교 시기에 또래들이 만든 청소년 NGO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IGL이다. 청소년 환경 단체인 IGL은 ‘녹색연합’의 청소년 소모임으로, ‘I G(lobe) love’를 줄여서 부르는 말이다. IGL은 새만금 간척 사업 중단을 촉구하면서 집단 소송을 내기도 하였고,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 행사와 ‘컵라면 종이 용기 바꾸기 운동’, ‘내복 입기 캠페인’ 등을 벌이면서 직접 실천하고 있다.

요즘 들어 시민단체들은 한 국가 안에서만이 아니라 외국의 여러 나라와 연대하거나, 국경에 관계없이 시민운동을 벌이기도 한다. 그런 단체로는 노벨 평화상을 받은 ‘국경 없는 의사회’가 대표적이다.

이런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시민단체들의 인터넷 주소

함께하는 시민행동 www.wv.or.kr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www.ccej.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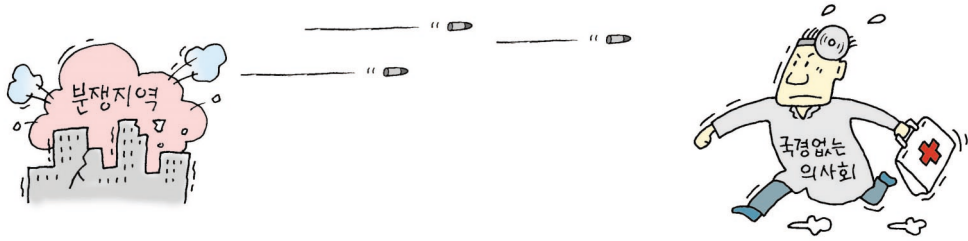
녹색연합 청소년 소모임 cafe.daum.net/powerIGL

국경 없는 의사회 www.msf.org



국경 없는 의사회를 아세요?

1968년 나이지리아 비아프라 내전에 파견된 프랑스 적십자사 소속 베르나르 쿠시네를 비롯한 의사와 언론인 12명이 1971년 파리에서 '중립·공평·자원'의 3대 원칙과 '정치·종교·경제적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가치를 내걸고 설립한 국제 민간 의료구호단체이다. 이들은 전쟁·기아·질병 등으로 고통받는 세계의 주민들을 구호하기 위하여 매년 80여 개국에 2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를 파견하며, 세계의 분쟁·참사 지역에 신속히 들어가 구호활동을 펼침으로써 인도주의를 실현한다. 1995년 10월 북한에 홍수가 났을 때 NGO로서는 유일하게 의료진을 파견하여 100만 달러의 의약품과 의료장비를 기부하고 구호활동을 벌였다. 이런 국제적인 구호활동으로 1999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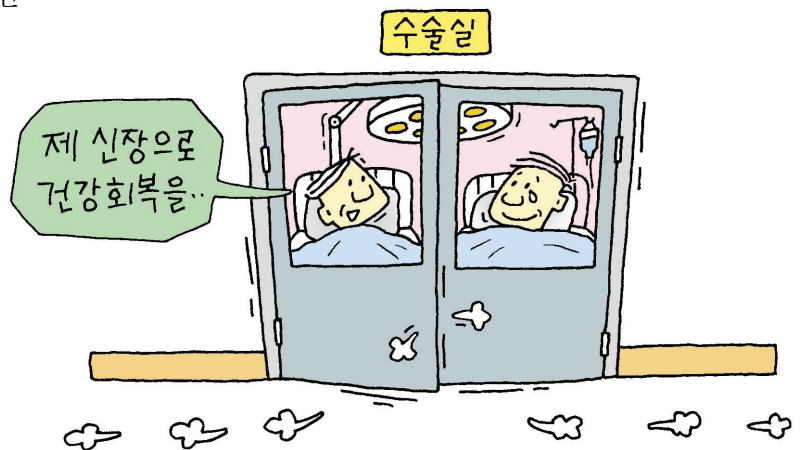
'민주주의를 위한 밑거름' 이라고 한다면 과장일까?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삶과 관련된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는 원리를 민주주의라 한다면, 우리는 시민운동과 시민단체를 통해 본래의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다. 이제 시민단체가 제대로 된 거름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좋은 농사를 위해 거름을 만들 때는 힘들고 역겨운 냄새 때문에 그만두고 싶기도 하다. 그러나 좋은 거름이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지를 생각한다면, 좋은 거름을 만드는 데 땀 흘릴 그대들이 필요하다.

1%로 만드는 큰 세상



“상처를 치료받은 사람만이 이웃의 아픔을 덜어 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의 조건 없는 장기 기증이 불씨가 되어 국내에서 가장 많은 7쌍 14명이 기적 같은 ‘사랑의 릴레이 장기 기증’을 실천해 감동을 주고 있다. 릴레이 신장 기증의 첫 주인공은 고성원 목사. 1996년 간암으로 아내를 잃은 그는, 목회자의 길로 들어선 뒤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장기 기증 의사를 밝혔다. 고 목사의 첫 릴레이 신장 이식은 2002년 8월 29일에 이뤄졌다. 고 목사의 신장을 이식받게 된 서모 씨는 만성 신부전증으로 투병하다 자신의 어머니 신장을 이식받았지만 거부반응을 보여 재이식을 받아야 했다. 다른 신장 기증자를 찾던 서씨는 고 목사의 기증으로 새 삶을 찾게 됐고, 이에 대한 보답으로 서씨의 큰오빠가 또 다른 환자에게 자신의 신장을 기증했다. 이번 릴레이 신장 기증자는 고 목사와 서씨의 오빠, 자영업자 1명, 주부 4명 등 모두 7명이다. - 《연합뉴스》, 2002. 9. 22

자신의 몸 일부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주는 일은 아름답긴 하지만 선뜻 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자신이 가진 아주 작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주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물며... 흔히들 이렇게 남에게 무언가 베풀고 도움을 주는



사람은 우리와 다른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이야기들은 신문의 미담으로 또는 TV의 칭찬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남을 돕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밥 한 그릇을 주는 것부터 자신의 재산을 모두 사회에 내놓는 것까지 매우 다양하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남을 돕고 있을까? 2002년 민간 기부단체 ‘아름다운재단’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 2명 중 1명이 기부를 했으며, 이들의 연평균 기부액은 10만 원 정도라고 한다. 이 중 23.6%는 9천 원 이하의 소액 기부자였고, 100만 원 이상의 고액 기부자는 3.7%였다. 이런 기부를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이 5명 중에 1명꼴이어서, 성인 전체로 보면 10명 중 1명 정도가 정기적인 기부를 하는 셈이다. 또한 1인당 한 해 평균 기부액은 5만 원 정도이니, 소득 수준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미국에서 1인당 평균 120만 원을 기부하는 점이나 대부분의 사회복지가 개인 기부에 의해 이루어지는 점과 비교해 볼 때 큰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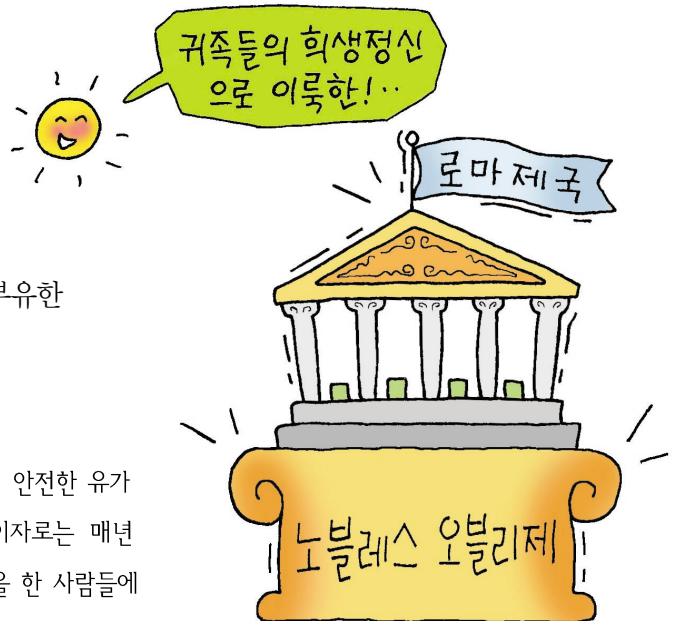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것을 기부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이유는 무엇일까? 조사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 때문’이라고 하며, 그 다음으로 ‘사회 개선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거나 ‘도덕적 의무와 책임감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신이 낸 기부금이 사용되길 원하는 분야도 ‘소년 소녀 가장 지원’과 ‘결식 아동 지원’이 가장 높다. 그러나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면 기부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위한 길임을 알게 된다.

1960년대만 해도 설탕이 귀하던 시절이라 명절 때면 하얀 설탕이 가득 든 둥근 양철통들을 선물로 주고받곤 했다. 나는 한때 그런 양철 설탕통 대여섯 개를 가득 채울 만큼 많은 구슬을 가졌던 구슬 재벌이었다. 수전노 돈 굶어모으듯 동네 아이들의 구슬을 몽땅 따들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아무도 더 이상 구슬놀이를 하려 하지 않았다. 나만 빼놓고 친구들은 모두 다른 놀이를 하는 것이다. 생각다 못한 내가 친구들에게 구슬을 100개씩을 거저 나누어 준 후에야 그들은 비로소

못 이기는 척 나와 놀아 주었다.

우리 사회의 부자들은 서구 사회에 비해 너무나 베푸는 일에 인색하다. 서구의 부자들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 그들이 천성적으로 남에게 베풀 줄 알아서가 아니라 베풀지 않으면 그들의 기반이 무너진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 《한국일보》, 2000. 9. 18

이 글은 '남에게 무언가를 베푸는 것이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자신을 위한 일'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더 많이 가진 자에게는 더욱 그렇다. 가진 자, 특권자들이 다른 사람보다 사회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더 지는 것을 '노블레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라고 한다. 이 노블레스 오블리제는 일개 도시국가였던 로마가 세계 제국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된 '포에니 전쟁'에서 로마 귀족들이 취한 태도에서 유래한다. 당시 귀족들은 100여 년에 걸친 전쟁 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자신의 돈을 수레에 실어 나랐으며, 평민들보다 먼저 전쟁터에 나가 목숨을 바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다. 이를 본 평민들이 주저 없이 세금을 내게 되었음은 두말할 것 없다. 이러한 로마 귀족들의 전통이 현대까지 이어져 사회 지도층이나 부유한 자의 책임의식의 뿌리가 되었다.



“나의 재산은 유언 집행인에 의해 안전한 유가 증권에 투자하며, 거기서 나오는 이자로는 매년 인류의 복지를 위해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들에게 상금 형식으로 분배하라.”

알프레드 노벨의 몇 줄 안 되는 이 글은 참으로 '아름다운 유언'으로 기억되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전 지구인에게 그 진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노벨처럼 많은 재산은 없더라도,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행할 사회적 지위에 있지는 않더라도, 남을 돕는 작은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남을 돕는다는 것은 꼭 많이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남을 도운 미담의 주인공들을 보면 대부분 특별한 사람보다는 아주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이 더 많다. 샷바느질, 국밥 장사, 콩나물 장사를 해서 한평생 꼬깃꼬깃 모은 돈을 한치의 망설임 없이 내놓은 여러 할머니들을 기억해 보라. 또한 최근에는 '유산 1% 기부', '월급 0.1% 기부', '보은 기금', '양심 기금', '의인 기금' 등 다양한 기부가 생기면서 경제적 여유가 별로 없는 사람들의 참여도 늘어나고 있다.

일상 생활에서 자신이 가진 것이나 받은 것의 0.1~1%를 내는 기부운동이 확산되면서 이전에 비해 개인 기부가 증가하고 있다. 신참 샐러리맨은 자신의 월급 중에서 1%, 학생은 자신의 용돈 중 1%, 전업 주부는 생활비를 쪼개서 1%운동에 동참한다. 목발을 짚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어떤 장애인도 컴퓨터를 모르는 친구들을 돕는 기부를 한다. 어떤 화가는 대안 학교의 교실에서 미술 강의로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며, 어떤 의사는 한 달에 두 번의 일요일을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아낌없이 내놓고 있다. 결혼한 신혼부부는 축의금의 1%를 기부금으로 내기도 하고, 회갑잔치 비용을 모아 장학기금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 기부가 다양해지면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자원봉사의 증가이다. 자원봉사는 자신의 시간과 노동을 기부하는 것으로, 단순히 돈을 기부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에서는 참여가 적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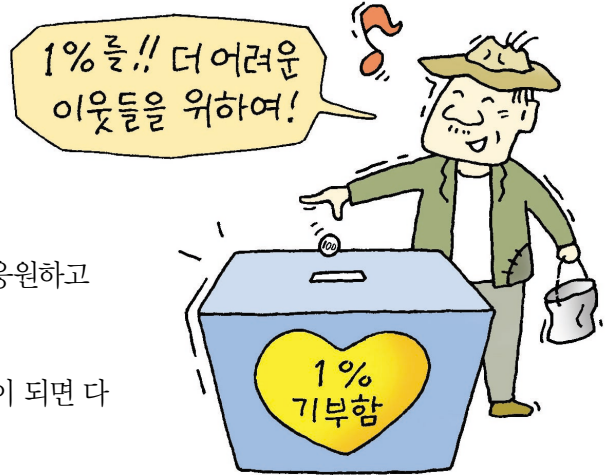
최근 우리나라 사람들 중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전체 국민 중 13.0%로 8명 중 1명꼴이다. 이들의 대부분은 청소년 자원봉사자이며, 주로 지역의 환경보전이나 복지시설에서 일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차츰 이웃의 위급한 상황이나 대규모 행사를 돕기 위한 자원봉사가 늘어나고 있다. 2002년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다고 알려지자 휴가와 생

업을 마다하고 수해 현장을 찾은 자원봉사자가 전국적으로 43만 명에 달했으며, 2002 월드컵 때는 1만 6천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행사를 도왔다. 또 응원 서포터스들은 자기 가 맡은 나라의 선수단을 열광적으로 응원하고 도움을 주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저도 나중에 어른이 되면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꼭 하겠습니다.”

“저도 나중에 조금의 여유라도 생기면 이 도움 잊지 않고 꼭 보답하겠습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인터뷰에서 반드시 하는 말이다. 자신의 신장을 떼어 주자, 신장을 받은 가족 중에서 그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자신의 신장을 다시 제공하는 사랑의 연결고리를



이런 기부 들어 보았나요?

- **의인 기금** : 의로운 일을 한 의인(義人)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기부금으로, 한 예로 일본 지하철역에서 일본인 취객을 구하고 숨진 고(故) 이수현 씨를 기리는 기금이 있다.
- **양심 기금과 보은 기금** :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사죄하는 마음으로 기부하거나, 자신이 입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대신 갚는다는 의미의 기금이다.
- **월급 0.1% 기부와 유산 1% 기부** : 자신의 재산 중 일부를 기부하는 것으로,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소액으로 한다.
- **고양이 손 기부** : 현금이 아니라 자원봉사의 형태로 하는 기부 행위이다.
- **달란트 1% 기부** :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재능이나 끼를 기부하는 것이다.
- **가계부 소비 0.1% 기부** : 주부들이 한 달간 가계부를 작성한 뒤 그 소비액의 0.1%를 기부하는 것으로, 주부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생각한다면, 작은 '기부'가 얼마나 큰 사랑을 엮어 내는지 알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기부'는 일단 걸리면 남에게 퍼뜨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점점 확산되는 전염병과 같다. 이 아름다운 전염병에 당신도 감염되고 싶지 않은가?

우리의 이웃, 외국인 노동자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던 외국인 노동자의 삶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모두 자신들의 가족을 위해 먼 곳까지 와서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들이 한국이라는 곳에 머물렀다는 것 자체가 자랑스러운 경험이었다고 여길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도 외국인 노동자를 학대하는 사장이나 한국 사람들이 있다면 이 프로를 꼭 보여주고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고 싶군요.”

한 방송의 ‘아시아, 아시아’ 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시청자들이 올린 글이다. 주로 동남아 지역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의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연예인이 직접 그의 고향에 가서 어렵게 생활하는 가족을 만난 후 그들을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그 프로그램을 보고 있으면 ‘아, 저들도 가족이 있구나. 그 가족을 위해 남의 나라에 와서 저렇게 고통받으며 힘들게 일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나중엔 ‘우리와 같은 인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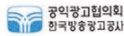
검은색, 흰색,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살색의 크레파스가 나란히 놓여 있고 ‘모두 살색입니다’ 라고 쓴 공익 광고가 있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꼬집는 신선한 광고였다. 우리는 우리의 피부색만을 살색이라고 여기는 것만큼이나 강하게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하고 있다. 러시아 출신의 한 노동자는 나이키 가방을 메고 다녀야 한국에서 대접받는다고 더듬거리는

모두 살색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피부색만 다를 뿐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민족은 인종의 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일제시대의 아픔이 아직도 우리 가슴에 아물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심상찮게 돌아오는 외국인 근로자 인권유린의 소식들은
더욱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의 인권이 소중한듯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도 소중합니다.



한국말로 이렇게 말했다.

“좋은 옷, 좋은 가방, 좋은 신발을 입거나 신어야 아이들도 미국 사람이라고 좋아하고,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도 친절하게 대해주지요. 옷을 허름하게 입으면 러시아 사람이라고, 부모들이 아이를 우리 곁에 오지 못하게 하고, 가게에서도 불친절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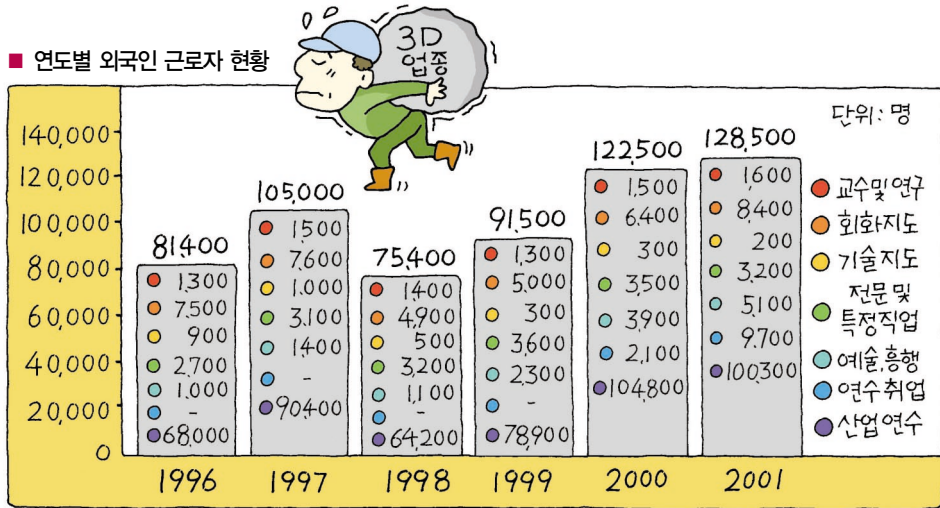
우리는 혹시 우리보다 잘사는 서유럽이나 북미의 백인들에게는 약하고, 다른 지역의 백인이나 동남 아시아인, 흑인에 대해서는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2000년에 특이한 달력이 하나 만들어

졌다.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로 손목이 잘리거나 화상을 입은 네팔인의 사진 12장이 실린 달력이었다. 그들은 먼 이국땅에서 ‘코리아드림’을 이루기 위해 비행기를 탄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우리와 피부색이 다르고 말과 문화가 다르고 우리보다 조금 가난하긴 하지만 좋은 자연환경에서 여유롭게 살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가족을 좀더 풍요롭게 살도록 하기 위해 낯선 땅에 와서 차별과 편견, 모욕을 당하면서 참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공식적으로는 13만 명 가량으로 집계된다. 1990년대 들어 3D 산업 분야를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게 되자 외국인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고 외환위기 이후 잠시 줄었다가 2000년부터 다시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합법적으로 교수나 강사, 기술자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약 2만 명 정도, 산업연수생, 연수 취업자, 해외투자기업 연수생 등 합법적으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약 11만

3D 산업 : 더럽고(dirty), 어렵고(difficult), 위험한(dangerous) 산업



* 자료: 법무부

명 정도 된다. 그리고 불법 체류 노동자들이 약 28~29만 명 정도에 이르러,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노동 활동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40만 명이 조금 넘는다. 우리나라 인구의 1%인 셈이다.

문제는 '미등록 노동자' 또는 '불법 체류자' 라고 불리는 이들이다. 우리나라의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는 10명 중 7명꼴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다. 싱가포르와 대만의 경우는 불법 체류율이 2~7%에 불과하다.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불법 체류자가 많은 걸까? 혹시 우리나라의 임금이 높아서인가, 아니면 우리나라의 노동 조건이 좋기 때문인가? 아니다. 이들이 합법적으로 일할 때에 비해 불법으로 일할 때 돈을 더 많이 벌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수생 신분을 버리고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것이다.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불법 체류자인 사람들의 월평균 소득(95만 원)이 산업연수생(88만 원)보다 더 많다. 이들은 보통 32만 원 정도를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의 대부분은 가족에게 송금한다. 하루 평균 11.1시간을 일하며, 4명 중 1명꼴로 매주 4차례 이상 야간 근무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임금을 제때에 제대로 받지 못할 때도 많다.

불법 체류자 존스 씨의 생활

“구걸할 수 있는 힘만 남아 있어도 한국에 사는 게 소원입니다.” 필리핀인 존스(29세) 씨는 오늘도 경기도 수원시 한 가구공장의 숨막힐 듯 비좁은 작업장에서 나무 먼지에 온몸을 시나브로 하얗게 묻혀 가며 기계처럼 사포를 문지르고 있다. 그는 환기도 되지 않는 공간에서 유해 가스와 역겨운 냄새를 얇은 마스크 한 장으로 막아 내며 하루 10시간의 고된 노동을 견딘다.

존스 씨는 1998년 봄 ‘코리안 드림’을 찾아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한국 땅을 밟아 지방의 한 재활용품 공장에 취직했다. 그러나 하루 14시간의 살인적인 노동과 온갖 욕설이 난무하는 비인간적인 대우를 참다 못해 9개월 만에 직장을 뛰쳐나왔다. 그는 “월급 60만 원 중 15만 원의 강제 적립금과 식대 및 기숙사비를 빼면 손에 쥐는 돈은 몇 만 원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한국 노동자들이 힘들다는 이유로 외면한 가구 제작 공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일하는 그는 불법 체류자이다. 하지만, 전에 비해 월급이 늘어 적은 돈이지만 고향의 부모님과 딸아이에게 부칠 수 있어 만족한다. 그가 가장 겁내는 것은 작업 중에 당할지 모르는 불의의 사고. “일단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고생해서 모아 뒀던 돈마저 모두 날리게 되죠.” “고국에 있는 딸이 자꾸 눈에 밟혀 힘들다.”는 그는 “한국인이 끼리는 3D 업종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꼭 강제 추방시켜야 하네요. 한국은 제 삶의 터전이기도 합니다.”라고 말한다.

- 《한국일보》에서

“7년 동안 30군데서 일했어요. 그 중 6~7군데에서만 돈을 받았어요. 나머지는 못 받았어요. 비자 없어서 못 싸워요. 사장님이 ‘개새끼야! 돈 없어! 나가! 안 줘!’ 그래요. 한국서 돈 못 받은 거 500만 원이 넘어요. 비자 없어 싸우면 경찰에 잡혀가요. 그냥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더 문제인 것은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존스 씨가 말한 것처럼 불의의 사고나 병이 났을 때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불법 체류자는 단 4%



에 불과하다. 현재 일과 관련하여 병이 있는 사람이 10명 중 4명 정도인데도 말이다. 게다가 불법 체류자 10명 중 4명은 여권을 압수당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사장님이 여권을 압수해서 밖으로 잘 못 나가요. 여권을 압수한 것은 아마 다른 회사로 옮길까 봐 그런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람들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할까 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불법 체류자란 이유만으로 당하는 구타, 감금, 성희롱, 성폭력도 만만치 않다.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한국을 떠나지 못하는 걸까? 고향의 가족들 때문이다. 적게는 5~6명, 많게는 10명이 넘는 가족들의 생계를 그들이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가족에게 희망이에요. 제발 관심을 가지고 우리 문제를 살펴봐 주세요. 제발 보내지 말아 주세요.”라고 하면서 그들은 “Achieve Labor Rights!(일할 권리를 달라!)”고 호소하며, ‘고용허가제’를 도입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한다.

그러면서 이들은 임금의 대부분을 고향에 보내고 자신의 생활에도 빠듯한 땀이 뻘 돈을 조금씩 모아 대구 지하철 참사 피해자들을 위해 써달라고 300만 원을 내놓았다. “우리의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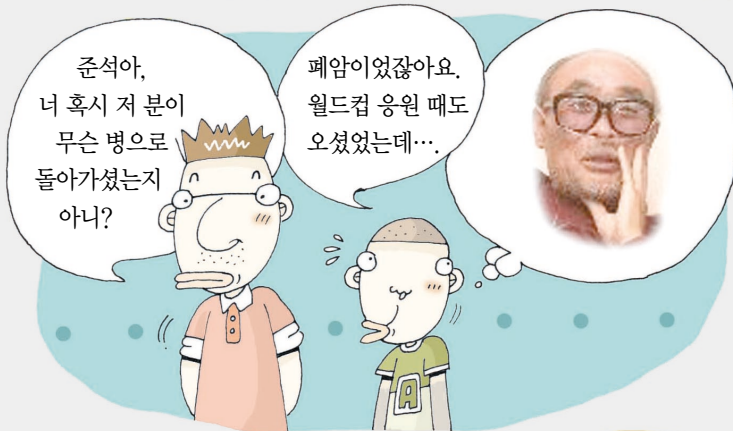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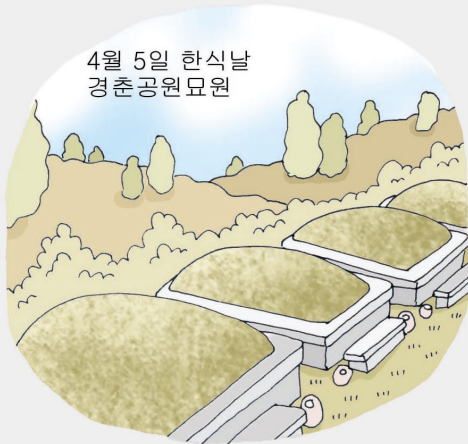
터인 한국 사회와 한국 사람들에게 불행하고 슬픈 일이 생길 때 남의 일이라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라며, 그들을 불법 체류자로 규정한 이 땅의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행동과 말이다.

알고 싶어요!

- **외국인 산업연수 제도** :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우리나라의 지정된 중소기업에서 일정 기간 연수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줄이고 외국에서 온 연수생들은 기술 습득과 함께 돈을 벌도록 하여 국가간의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993년 11월에 도입되었다.
- **외국인 고용 허가 제도** : 노동 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스스로 일할 곳을 선택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영세 사업장의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노동력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코미디언

이주일 씨를 추모하면서





이래서 할 수가 없는 거야. 게다가 담배의 나쁜 영향이 나타나는 데는 이삼십 년이 걸리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실험을 하기도 어렵지. 만약에 한다 해도 이런 경우가 생기면 어쩌겠니?

아아아~ 이제 2년만 더 지나면 20년이 되는데 실험하던 사람들이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야?

그럼 아빠... 임상 실험을 하지 않고 어떻게 안 거예요?

과학적인 자료를 모으는 방법에는 실험뿐 아니라 관찰도 있단다. 이 경우엔 관찰의 방법을 이용했지.

1955년에 영국의 힐 경과 돌 박사가 의료인들 6만여 명에게 담배와 관련된 습관을 물어보는 설문지를 보낸 적이 있단다.

그래서 4만여 장을 돌려받았는데, 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계속해서 흡연 습관과 사망 원인과의 관계를 분석했어.

힐 경? 돌 박사? 우헛~ 이름이 참 재미있는 분들이네?

오웃~ 그랬더니요?

그 결과... 놀랍게도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들은 피우지 않는 사람들보다 폐암으로 죽은 비율이 22배나 높았지.

2...22배나요?!

우연인지 미국에서도 해먼드와 혼이 거의 동시에 같은 연구를 했는데, 결과는 똑같았어.

흠~ 역시...



그 후... 미국 정부에서는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시작했지.

으호~ 정부에서 그런 조사도 하는구나...



...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폐암으로 죽을 확률이 아주 높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 → 관료



담배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군요...

이건 그냥 알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미국 정부 → 관료



그래서 대통령 직속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시작했지.



그리고 1963년에 담배를 피우는 것이 몸에 해롭다는 결론을 내리고...

특별조사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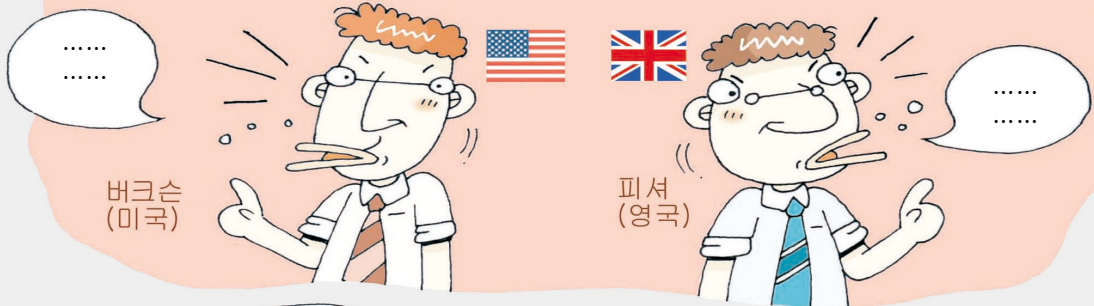
담배를 피우면 병에 걸리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아주 많음이 확실합니다!



그 이후로는 담뱃갑에 이렇게 경고문을 붙이도록 했단다.



당시 영국에는 피셔라는 유명한 통계학자가 있었고, 미국에는 버크슨이라는 통계학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똑같은 비판을 했단다. 하지만 그 둘은 원래부터 사이가 아주 나빴어.





소년 소녀 가장은 줄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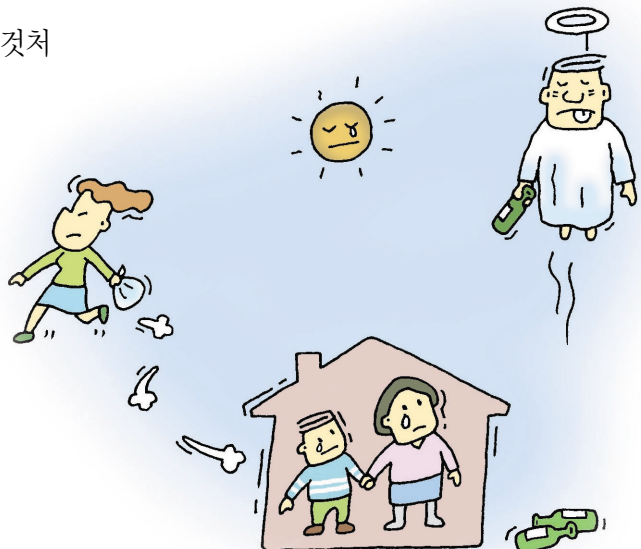


소년 소녀 가장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발라드 가수인 이수영을 두고 소년 소녀 가장인데도 참 밝은 인상이라며, 그가 정말 소년 소녀 가장이 맞느냐고 묻는 팬들이 있다. ‘소년 소녀 가장’이란 부모의 사망 혹은 이혼, 별거, 결손 등으로 인해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보호나 부양을 받을 수 없어 스스로 가정 생활을 꾸려나가야 할 책임을 지닌, 만 20세 이하의 미성년자를 말한다. 그런데 가수 이수영은 1980년생이라고 하니 만 20살이 넘어 이제는 소년 소녀 가장이 아니다. 하지만 그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데뷔하던 1999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집안의 맏이였던 그녀는 한때 집안을 책임지는 소년 소녀 가장이었다.

그런데 팬들이 이수영에 대해 소년 소녀 가장인데도 밝은 인상이어서 잘 몰랐다고 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보통 ‘소년 소녀 가장’ 하면 불쌍하고 어둡게 살아갈 것이라고 지레짐작을 하게 된다. 실제로 소년 소녀 가장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요즘 들어 부쩍 지난해에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자주 나요. 그



른데, 미영이네같이 두 명인 경우에는 한 달에 59만 원에 소년 소녀 가장 특별지원금까지 합쳐 70만 원 가량이다.

일도 안 하고 70만 원을 받으니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돈은 우리나라에서 두 사람이 먹고사는 데 필요한 최저생계비 정도이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생활만 가능할 뿐이다. 교육비와 한 달간 집세를 내고 식생활비와 잡비 등을 쓰면 아주 빠듯하다. 그리고 나면 또래의 다른 친구들이 누리는 한 편의 영화 관람이나 유명한 가수의 CD 한 장 사는 것, 놀이공원에 놀러 가는 것과 같은 그 단순해 보이는 행복도 쉽게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소년 소녀 가장이라고 하면 대체로 생활이 힘들어질 것이라 짐작하고 그들의 얼굴이 어두울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2003년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

						단위 : 원
1인가족	2인가족	3인가족	4인가족	5인가족	6인가족	
						
360,000	590,000	810,000	1,020,000	1,160,000	1,3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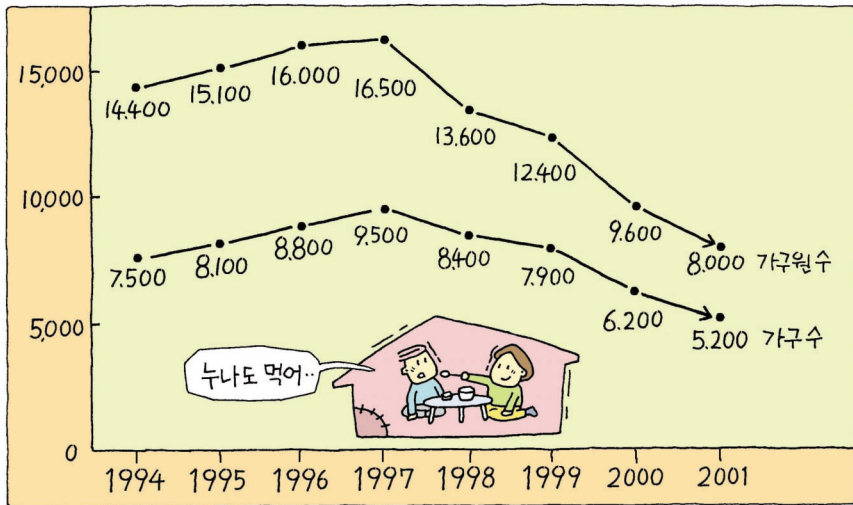
최저생계비에는 의식주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와 주거비뿐만 아니라 교육비와 의료비가 포함되어 있다. 대개 생계비와 주거비는 현금으로, 의료비와 교육비는 개별 가구의 특성에 따라 무상지원하고 있다.

소년 소녀 가장은 과연 줄고 있나

이런 소년 소녀 가장은 얼마나 될까? 2001년 기준 우리나라의 소년 소녀 가장은 8,060 명이고, 미영이네처럼 남매나 형제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실제 소년 소녀 가구는 5,248가구이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0.017%로 인구 6천 명 중 1명이 소년 소녀 가장인 셈이다. 한 집을 이루고 있는 가구로 따져 보면 전체 가구 중에서 0.033%가 소년 소녀 가구여서 우리



■ 소년 소녀 가장 수의 추이



* 자료 : 보건복지부

이웃의 2,700집 중 한 집이 소년 소녀 가구이다.

그런데 그래프를 보면 소년 소녀 가장의 수는 외환위기 때인 1997년에 가장 많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줄어들고 있다. 2001년에는 1997년에 비해 소년 소녀 가장이 반이나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실제로 그 수가 줄었을까?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무엇일까? 외환위기 이후로 경제가 서서히 회복되면서 소년 소녀 가장들 중 부모님과 같이 살게 된 경우가 늘어나서일까? 이 그래프만 가지고는 답하기 어렵다. 실제로 소년 소녀 가장인 아이들의 수가 줄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더 생각해야 한다.

생각 1 소년 소녀 가장 수가 줄었다고 해도 그 나이 또래의 전체 인구와 비교하여 실제로 줄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1995년에는 20세 이하 전체 인구 1,445만 명 중에서 소년 소녀 가구원 수가 1만 5천 명 정도로 0.10%이고, 2001년에는 20세 이하 인구 1,340만 명 중에서 소년 소녀 가구원 수가 8천 명 정도로 0.06%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비중은 줄었다.

생각2 경제가 나아지면서 가출했던 부모들이 돌아와 직접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게 되면 그만큼 소년 소녀 가장이 줄어든다. 그러나 그 지역 사회복지사가 그들을 고아원 등의 시설이나 다른 가정에 위탁 또는 입양을 시킨 경우에도 소년 소녀 가장의 수는 줄어들게 된다. 실제로 1997년 이후 고아원 등의 시설에 수용되거나 다른 가정에 위탁되어 양육되는 아이들, 입양된 아이들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로 입양되는 아이의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소년 소녀 가장은 줄었는지 몰라도 실제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하는 아이들은 줄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소년 소녀 가장이 우리 곁에 있다

부모에게 사랑받고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은 최소한의 행복이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부모의 가출, 이혼, 사별 등으로 원치 않게 소년 소녀 가장이 되거나 고아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많다. 또한 다른 가정에 입양되어 양부모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외국으로 입양되어 낯선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들도 많다.

“삶이 힘들다고 해서 아는 분들께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요. 제 친구들도 우리 힘든 것 의식하지 않고 잘 대해 주었으면 하고요.” “4,750원이면 동생과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어요.”라고 말하는 소년 소녀 가장이 우리 곁에 있다.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힘겹게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불쌍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들에게 이상한 시선을 던지지는 않는가? 지금 부모님과 행복하게 살고 있는 우리도 한순간에 소년 소녀 가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들의 일을 남의 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제 우리 모두 그들을 한가족처럼 따뜻한 가슴으로 대해 주자. 그래야 이 땅에서 소년 소녀 가장이 정말로 줄어들지 않겠는가?



새로운 가족, 애완동물



점점 늘어나는 애완동물

거리에 나서 보면 개를 데리고 산책하거나 쇼핑을 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애완동물에게 이름을 지어 주고 가족처럼 대하는 경우도 많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것은 애완견인데, 때로는 주인과 개가 뽀뽀를 하는 모습도 자주 보게 된다. 같이 살다 보니 애정이 깊어진 결과일까? 아니다. 개가 주인의 입을 혀로 날름날름 핥는 것을 사람들은 뽀뽀라고 착각하지만, 그것은 애정 표현이 아니라 먹이를 달라는 표현이다.

야생의 개는 사냥을 한 후 새끼를 위해 먹이를 입에 담아 오곤 했다. 그래서 어미 개가 집에 오면 배고픈 새끼들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먹이가 들어 있는 어미의 입을 핥는 것이었다. 그러면 어미 개는 입에서 고기를 꺼내어 새끼에게 준다. 이런 야생의 습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개는 먹이를 달라고 자신의 주인에게 키스를 퍼붓는 것이다. 자신에게 애정을 표현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착각일 뿐이다.

어찌 되었건 야생의 동물이 집안에 들어와 살게 되면서 그들의 어미 노릇을 이제는 사람이 하는 셈이다. 가족이 많았던 예전에는 애완동물이라기보다는 집에서 같이 살아가는 동물 정도로 생각했고, 종류도 ‘개’나 ‘고양이’ 정도로 단순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가족 수가 급격하게 줄고 주거 환경이 달라지면서 애완동물에게 보내는 애정의 손길이 더 깊어졌다.

애완동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단순히 개, 고양이, 토끼 정도에 불과했던 애완동물은 요즘 들어 아주 다양해졌다. 물고기의 경우 과거에는 금붕어나 잉어 정도였던 것이 영화 <쉬리> 이후 쉬리나 키싱구라미 같은 것을 기르는 집도 많아졌다. 구관조, 십자매, 카나리아,



앵무새 같은 조류는 거북이나 이구아나, 뱀과 같은 파충류에 비하면 아주 전통적인 애완동물이다. 최근에는 게나 가재, 거북뿐만 아니라, 원숭이, 다람쥐, 고슴도치, 기니피그 등을 기르는 집도 많아졌다. 그러다 보니 애완용 쥐인 햄스터를 비롯하여 도마뱀을 기르는 것이 특이한 일도 아니며, TV 오락 프로그램에서 원숭이를 기르며 참여 관찰을 하는 연예인들까지도 볼 수 있게 되었다.

애니메이션 채널 투니버스가 2003년에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해 ‘어린이날 꼭 갖고 싶은 선물’을 조사한 결과 휴대전화(21.3%), 게임기(19%), 컴퓨터(7.4%), 디지털 카메라(6.3%), 인라인스케이트나 자전거(6.2%)를 제치고 애완동물(21.7%)이 1등을 차지했다. 어린이들이 이렇게 애완동물을 원하는 이유,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점점 더 많이 기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양해진 애완동물의 종류만큼이나 사람들 사이에 정이 메말라 있기 때문은 아닐까? 그래서 차라리 아무 말도 못하는 그들에게 위안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

개 팔자가 상팔자?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애완동물과 관련된 비용도 늘어나고, 애완동물

과 관련된 사업도 번창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애완견 숫자는 자그마치 120여 종류에 300만 마리가 된다. 그런데 애완견 1마리를 제대로 키우는 데 연간 4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하니, 애완견 관련 사업의 시장 규모만도 연간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대체 어디에 돈이 드는 걸까? 요즘 애완견에게 가족들이 먹다 남긴 것을 주는 집은 드물다. 그래서 개 간식은 애완동물 관련 사업 분야에서 가장 크게 성장한 분야다. 가장 잘 나가는 것이 소시지인데, 사람이 먹는 소시지보다 가격이 비싸 엄지손가락 굵기만한 소시지 4~5개 들어가 1만 원 정도나 된다. 그러다 보니 간식을 포함한 사료 비용이 애완견을 키우는 데 들어가는 전체 비용의 50%를 차지한다.

또 애완견에게 사람처럼 정기적으로 미용을 해 주는 것도 당연한 일처럼 되었다. 수요가

보너스 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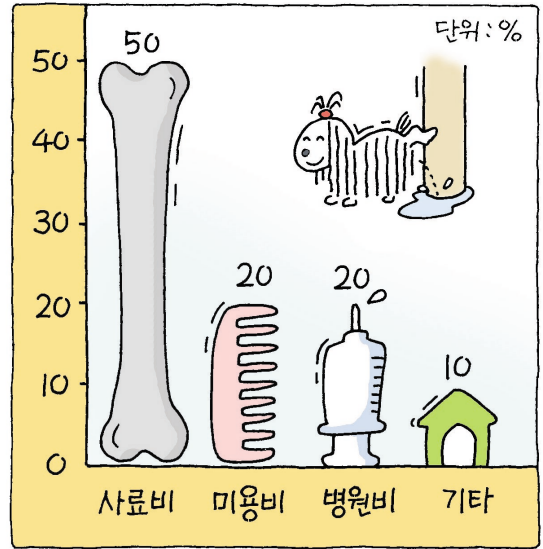
금붕어를 기르는 사람은 누구일까?

참고로 이 문제는 아인슈타인이 직접 낸 것인데, 이 문제를 풀면 IQ가 200이라고 하네요. 아인슈타인은 이 문제를 단지 인류의 2%만 풀 것이라고 단언했어요. 당신은 2%인가요, 아니면 98%인가요?

- | | |
|----------------------------------------------------------------|-----------------------------------------|
| 1. 5채의 각각 다른 색깔의 집이 있다. | 11. 한가운데 사는 사람은 우유를 마신다. |
| 2. 각 집에는 각각 다른 국적의 사람이 산다. | 12. 노르웨이인은 첫 번째 집에 산다. |
| 3. 집주인들은 각각 다른 종류의 음료수를 마시고, 다른 종류의 담배를 피우며, 다른 종류의 애완동물을 기른다. | 13. 블렌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 옆집에 산다. |
| 4. 영국인은 빨간색 집에 산다. | 14. 말을 기르는 사람은 던힐 담배를 피우는 사람 옆집에 산다. |
| 5. 스웨덴인은 개를 기른다. | 15. 블루 매스터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맥주를 마신다. |
| 6. 덴마크인은 흥차를 마신다. | 16. 독일인은 프린스 담배를 피운다. |
| 7. 녹색 집은 흰색 집 왼쪽에 위치해 있다. | 17. 노르웨이인은 파란색 집 옆집에 산다. |
| 8. 녹색 집 사람은 커피를 마신다. | 18. 블렌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물을 마시는 사람 옆집에 산다. |
| 9. 풀물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새를 기른다. | |
| 10. 노란색 집 사람은 던힐 담배를 피운다. | |

늘어나자 애견 미용사를 배출하는 학원도 전국에 40여 곳 이상으로 늘어났으며, 3천여 개나 되는 애견센터에서도 애견 미용을 겸하고 있다. 애견 미용을 위한 자격증을 따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애견 미용사가 미래의 유망 직종으로 꼽힐 정도이다. 이렇듯 애완견을 키우는 비용 중 미용과 관련하여 들어가는 비용이 20%, 이 밖에 동물 병원에 들어가는 비용이 20%, 기타 비용이 10%를 차지한다. 그래서 이런 현상에 대해 ‘웬만한 사람보다 나은 대접을 받는다’고 비꼬아 말하면서 ‘개 팔자가 상팔자’라는 표현을 쓴다.

■ 애완견 사육 비용



그런데 이런 호화로운 대접에도 불구하고 애완동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꼭 상팔자는 아닌 것 같다. 애완동물의 생활이나 습관 등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충동적으로 사서 기르다가 죽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살아 있는 생명체인 애완동물을 기르려면 최소한 죽이지 않고 기를 수 있도록 미리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애완동물, 어떻게 대해야 할까?

애완동물이 늘어나고 관련 사업이 성장하는 것과는 달리 애완동물과 관련한 문화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개의 경우, 털이 빠지고 먹은 양만큼 배설하며 이웃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데도, 이런 점에 미리 대비하지 않아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정을 주고 기르던 애완동물이 늙거나 병들면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내버리는 사람도 많다. 한 해 동안 서울 시내에서 버려진 애완동물만도 3천여 마리를 넘는다고 한다.

네로와 버려진 개 파트라슈의 사랑을 그린 《플랜더스의 개》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동물이

인간이 동물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이야기는 실제로 많이 있다. 이렇듯 사람이 애완동물을 기르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서라고 한다. 애완동물을 키우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많지만 자녀나 친구, 형제에게 하듯 사랑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도 많다. 이들은 애완동물이라고 하지 말고 ‘인간과 더불어 사는 동물’이라는 의미에서 반려 동물(伴侶動物)로 부르자고 주장한다.



중요한 것은 애완동물이나 반려 동물이라는 명칭이 아니다.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감정이 없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기르는 동물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정을 주었다가 버려서도 안 된다.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생명체이기 때문이다. 또한 애완동물을 사랑하고 가족처럼 여기는 것은 좋지만, 애완동물로 인해 인간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이 줄어들었다면 그것도 잘못된 일일 것이다. 애완동물에게 베풀 애정은 베풀면서도, 인간과 나누어야 할 애정은 인간과 나누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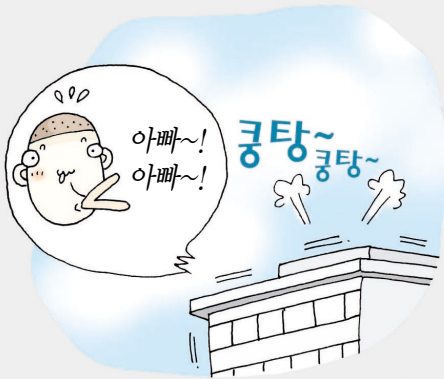
금붕어를 기르는 사람은 누구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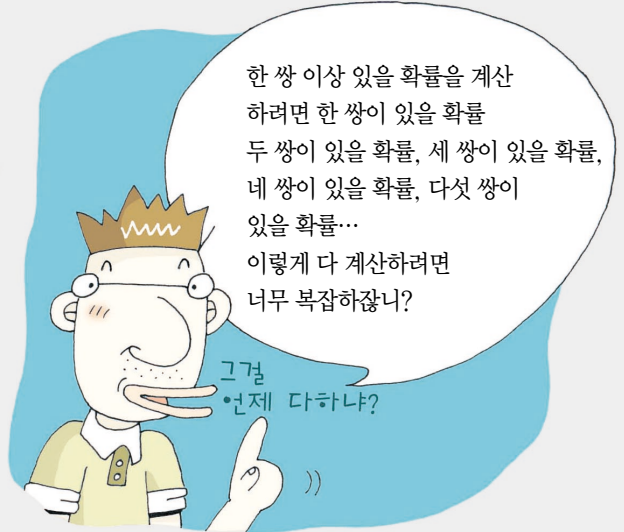
집	녹색	흰색	빨강	파랑	노랑
주인	독일	스웨덴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애완동물	금붕어(?)	개	새	말	고양이
음료	커피	맥주	우유	홍차	물
담배	프린스	블루 매스터	풀몰	블렌드	던힐

문제를 풀어 보면 위와 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렇다면 정답은 ‘독일인’ 일까요? 아닙니다. 정답은 “독일인이거나 그 밖의 다른 나라 사람”입니다. 꼭 독일인만 금붕어를 키우란 법은 없으니까요. 이 말이 이해되지 않으면 문제를 다시 한 번 읽어 보세요. 금붕어를 기르는 사람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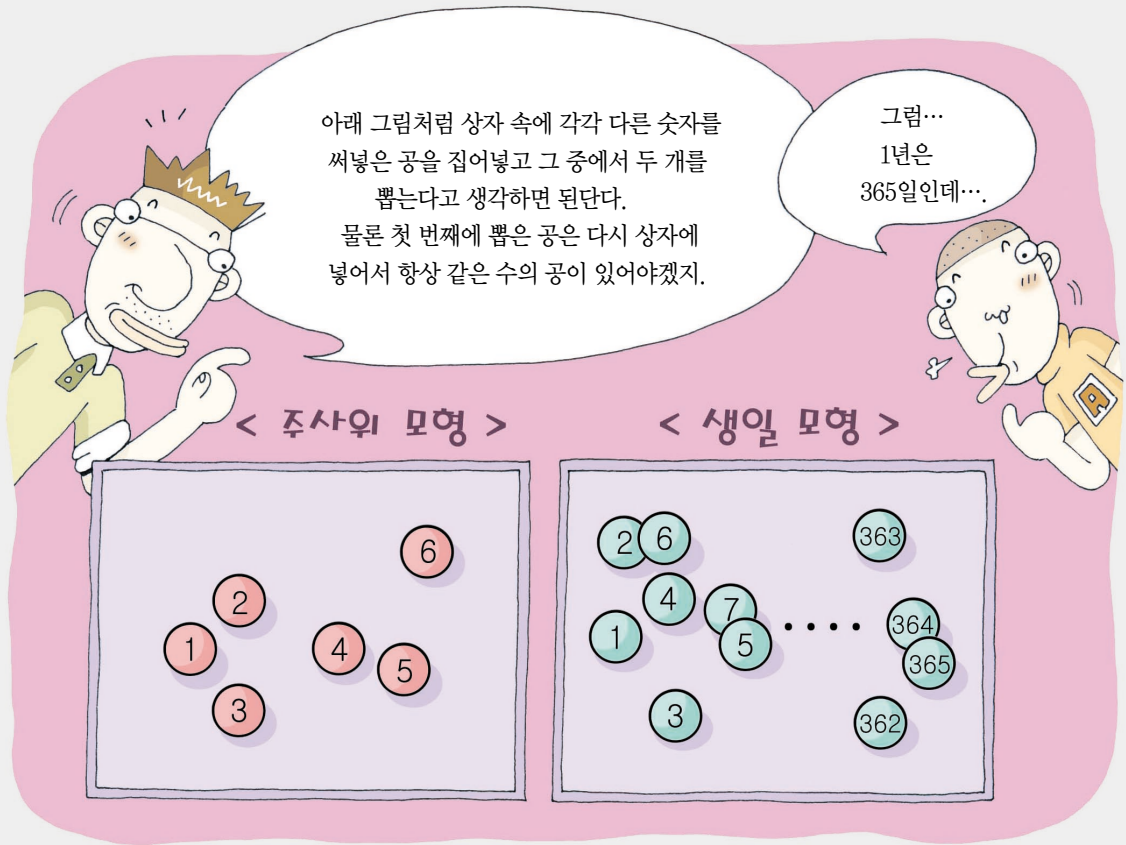
우리 반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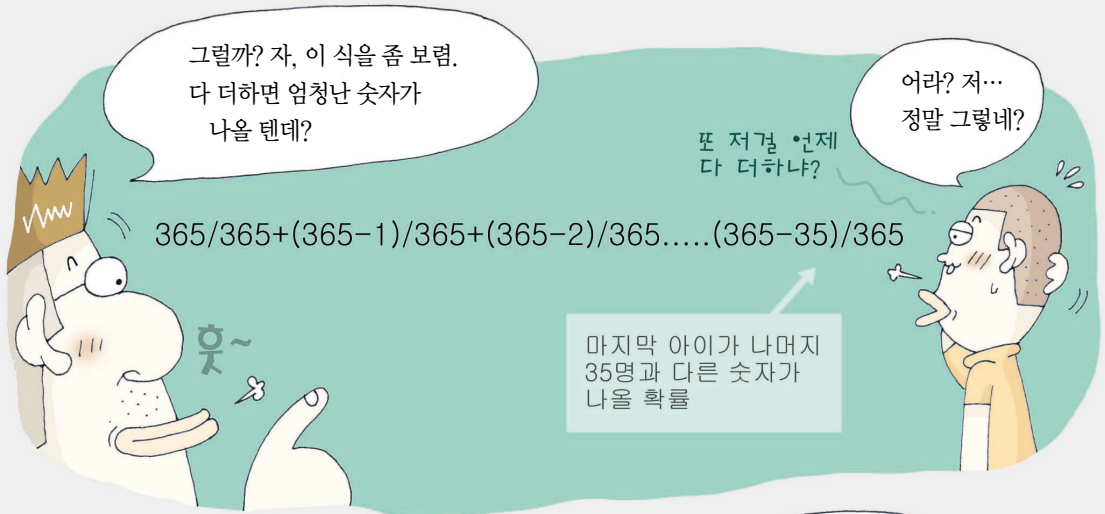
생일이 같은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수학자들은 이렇게 복잡한 계산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로그 함수라는 거야.

로... 로그 함수요?
저는 처음 들어 보는데요...?



그건 나중에 배우게 될 거다. 어쨌든 지금은 어려워니까 아빠가 계산해서 답을 알려주마...

아... 냅~!



로그 함수로 계산을 해 보니 0.18이 나오는구나... 대략 0.2로 보면 되겠다.

그러니까 생일이 같은 아이들이 한 쌍도 없을 확률이 0.2라는 거죠?

로그함수... 거 신기하네.

쓰익~
쓰익~



그래. 그런데 우리가 알아보려던 건 생일이 같은 애들이 한 쌍 이상 있을 확률이었지?

예, 그러면... 전체인 1에서 0.2를 빼면...



0.8! 우와~ 80%나 되는 거네요?

그래, 상당히 높은 확률이구나.

헉?!



그렇다면 우리 학년이 모두 열 반이니까... 여덟 반에 생일이 같은 아이가 한 쌍 이상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지.

하아... 생각했던
것보다 확률이
훨씬 높네요.

가만... 그럼 뭐 서른여섯 명
중에 생일이 같은 애가 있는 건
그렇게 신기한 일도 아니네요.

하하~
그렇다고
할 수 있지.

그리고 보니...
아빠가 대학 다닐 때도
같은 과 서른 명 중에
아빠랑 생일이 같은 친구가
한 명 있었구나.

앗! 아빠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아빠는
생일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녀석...
잘 살고
있겠지?

그게 문제더라구... 우리 둘은
상대방 생일에 가 보질 못했잖니.
친구들도 본의 아니게 반씩
나누어졌고.

헤헤~ 봉구랑 저는
번갈아 가면서
생일잔치 하기로
오늘 합의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우리 집에서
하기로 했거든요?
으히히히~♪

음... 정말 며칠
안 남았네?
이거 또 아빠 지갑
얇아지게 생겼구먼...

아버님~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가고파』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 어디 갔나?



그 파란 물이 어디로 갔을까?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 눈에 보이네.

꿈엔들 잊으리오, 그 잔잔한 고향 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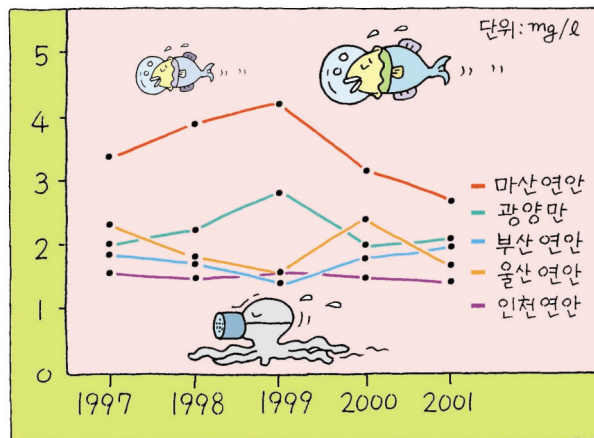
지금도 그 물새들 날으리 가고파라 가고파.

- 이은상의 <가고파> 중에서

<가고파>는 노산 이은상 선생이 고향인 경남 마산을 그리며 지은 시이다. 파랗고 잔잔한 바다, 그 위를 나는 물새, 그리고 같이 뛰놀던 어릴 적 동무들을 생각하며 고향에 대한 애뜻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이은상 선생이 어릴 적에 바라본 마산 앞바다는 맑고 파란 물이었다. <가고파>를 지은 1932년에도 그랬다. 하지만 지금은 고동빛의 탁한 물이다. 마산 앞바다에는 돌섬(월영도)

■ 주요 연안의 수질 오염도(COD)



* COD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 이라고 하는데, 물 속의 오염물질을 산화시키는데 필요한 산소의 양으로서, 오염이 심할수록 높은 값이 나온다.

* 자료 : 해양수산부

해상유원지라는 곳이 있다. 그곳 관광을 위해 배를 타고 가면서 바닷물을 자세히 보면 마산 앞바다의 오염이 얼마나 심한지를 실감하게 된다.

이은상 선생이 애뜻하게 그리워한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은 어디로 간 것일까?
바닷물만이 아니라 강물 오염도 심각하다.

4대 강 수질 10년 전보다 악화

정부가 지난 1993년 '맑은 물 공급종합대책'을 수립한 이후 전국 4대 강 수질개선사업에 15조 원 이상을 투입했는데도 10년 전보다 수질이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과 영남 지역의 상수원인 한강과 낙동강의 지난해 평균 수질 점수는 100점 만점에 각각 79점으로, 먹는 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정수 처리 과정이 요구되는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23일 지난 10년간(1990~1999) 전국 주요 하천 오염도의 추이를 분석해 수질종합점수를 매긴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중략)

연구원은 "대체적으로 71~80점대의 경우, 일반적인 물고기와 야생동물의 서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먹는 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처리 과정이 까다롭고 처리 비용이 많이 든다."고 밝혔다.

- 《한겨레》, 2000. 3.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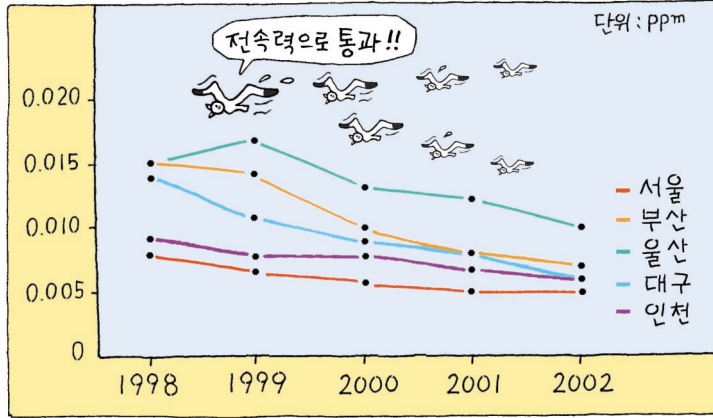
2003년 3월 5일에 발표된 유엔 <세계 수자원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자원의 양은 세계 146위로 만성적인 물 부족 국가이지만, 수질은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제일 좋은 나라는 핀란드, 그 다음은 캐나다이다). 이같이 좋은 물을 보전하지 못하고 오염시킨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가 하면 공기 오염도 무시할 수 없다. 2002년 기준 대도시의 아황산가스(SO₂) 농도는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했지만, 자동차의 증가로 이산화질소(NO₂)와 오존(O₃)의 농도는 증가하고, 오존경보 발령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대기 오염에 대한 생각도 매우 부정적이다. 환경부와 국정홍보처가 2003년 4월 여론조사기관인 (주)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수도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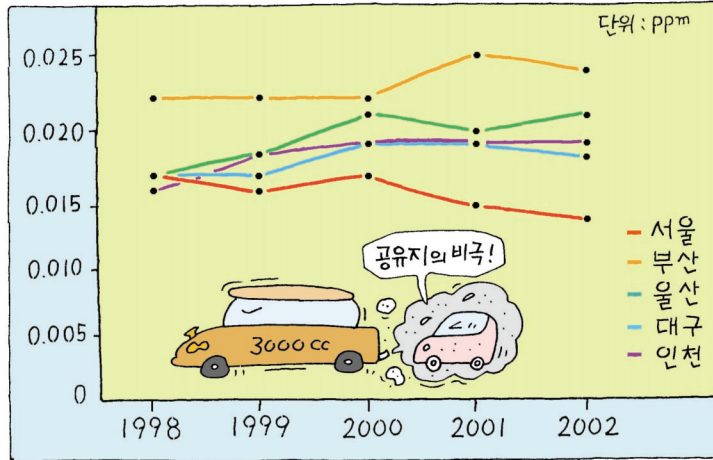


■ 주요 도시의 대기 오염도(SO₂)



* 자료 : 환경부

■ 주요 도시의 대기 오염도(O₃)



* 자료 : 환경부

살고 있는 만 20세 이상 성인 1천 명 중 60.1%가 '대기 오염이 심각하다' 고 응답하고 있다.

환경 오염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러면 어째서 우리나라의 물과 공기가 이렇게 오염된 것일까? 지난 40년 동안 우리 경

제는 급속히 성장하였다. 산업사회에서 경제성장은 곧 산업생산의 증가를 의미한다. 산업생산이 증가하면 공장에서 매연과 폐수가 많이 배출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경제성장으로 소득이 증가하여 자동차를 가지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자동차 배기가스도 많이 배출되었다. 그 결과 물과 공기가 크게 오염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산업생산의 증가와 자동차의 증가가 물과 공기 오염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18세기 영국에는 각 지역마다 사용료를 내지 않고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유지가 있었다. 공유지는 누구나 공짜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소나 양을 기르는 사람들은 자기 땅 보다는 공유지에 가축을 풀어 풀을 뜯어먹게 하였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너도나도 공유지로 소와 양을 몰고 나오자 얼마 지나지 않아 공유지는 풀이 사라지고 황무지가 되어 버렸다.

공유지와는 달리 개인이 소유하는 목초지는 풀이 무성하였다. 목초지가 황폐해지면 가축을 기를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목초지는 황폐해지지 않도록 조심하지만 공유 목초지에 대해서는 그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자기 것이 아니므로 아낄 동기(이를 경제학에서는 ‘유인 incentive’이라고 한다)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개인 소유가 아닌 공유 자원이 황폐화되는 것을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한다.

비단 공유 목초지뿐만이 아니라 소유권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은 자원은 무엇이든 금방 황폐화되고 만다. 주인 있는 소나 돼지, 닭 등의 가축은 그렇게 잡아먹는데도 여전히 많지만, 바다의 고래는 씨가 마를 정도로 남획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남획 : 짐승·물고기 따위를 마구 잡음

바다와 강과 공기가 오염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소유권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은 공유 자원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끼고 보호하려고 하지 않는다.

만약 어떤 강이 개인이나 기업의 소유라면 어떻게 될까? 아마 오염이 훨씬 줄어들 것이다. 자기 강이니 오염시키지 않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오염시키는 것도 방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물과 공기가 오염되는 근본 원인은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공유 자원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물과 공기의 오염은 ‘공유지의 비극’의 전형적인 예인 것이다.

공유지의 비극을 막는 방법은?

그러면 물과 공기의 오염을 막는 방법은 무엇일까? 먼저 ‘공유지의 비극’을 막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아마도 첫째는 공유 자원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방법을, 둘째 사람들이 공유 자원을 자기 것처럼 아끼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물과 공기의 오염을 막는 방법도 마찬가지로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두 번째 방법이다. 모든 사람이 공유 목초지를 자기 것처럼 아끼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바다와 강과 공기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사람이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하면 공기 오염도 심해지고 도로도 복잡해져 모두에게 손해가 된다. 하지만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 교통수단을 많이 이용하면 오염도 줄고 교통 소통도 원활해져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따라서 우리는 공유 자원인 바다와 강과 공기를 자기 것처럼 아끼고 보호해야 한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공유 자원을 자기 것처럼 아끼고 보호하려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그래서 공유 자원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첫째 방안이 현실적인 대책이 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바다나 강, 공기 등의 자원은 소유권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다른 방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공유 자원에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즉, 기업이 매연이나 폐수를 배출하거나 개인이 자동차 배기가스나 생활하수를 배출하는데 대해 적절한 사용료를 부과한다면 바다나 강, 공기가 오염되어 황폐화되는 것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환경 사용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하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오염물질의 배출량에 따라 공해배출세를 부과하는 것이 있다.

미국의 대다수 주에서는 기업들에게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판매하는 흥미로운 정책을 사용한다. 주정부로부터 일정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산 기업은

그 권리를 다른 기업에게 팔 수도 있다. 오염권을 사고 판다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환경 사용에 대한 일종의 사용료 부과인 셈이다. 이 경우 오염권의 판매량을 제한하면 오염을 일정 한도에서 막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공유 자원을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고 아끼는 마음이 더욱 절실할 것이다.

우리 나이 일흔엔...



점점 좁아지는 노인들의 자리

“옛날 내가 부모를 모시고 살 때는 집안일을 결정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권한이 부모님께 있었지. 그런데 지금은 그게 모두 자식들에게 넘어가 있으니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재산 상속법이 바뀌었잖아. 이제 재산을 자식님들에게 똑같이 나눠주게 되니까 만이는 부모 부양 책임이 자기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고, 둘째나 셋째는 여전히 장남이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서로 미루는 것 같아.”

“손주들? 우리를 얼마나 무시하는데. 냄새난다고 싫어하고 텔레비도 자기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렇다고 그 아이들이 하는 전자오락을 같이 할 수도 없고, 공부를 가르쳐 줄 수도 없고...”



“50 고개에 있는 우리들은 직장에서는 고물 취급 받고, 경로당에서는 애 취급 받는 중늬은이란 말이야. 애비 노릇 한답시고 퇴직금이고 빚이고 끌어모아 등록금, 혼수 비용 들이고 나면 부부는 쪽박 차기 딱 좋지. 그런데 요즘 자식한테 얹혀살려는 부모 있겠어? 결국 사회가 노인을 주변으로 내쫓는 거야.”

서울 탐골 공원이나 남산, 을지로 지하도

입구나 관악산에 가면 쉽게 만날 수 있는 노인들이 하는 이야기이다.

‘한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가운데 하나가 ‘동방예의지국’이다. 지하철에서 젊은이들이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든 미풍양속이다. 명절 때마다 전국의 고속도로는 부모님을 뵙기 위한 귀성 행렬로 가득 메워진다. 외국인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의 노인들은 각별히 공경을 받고 있구나’ 하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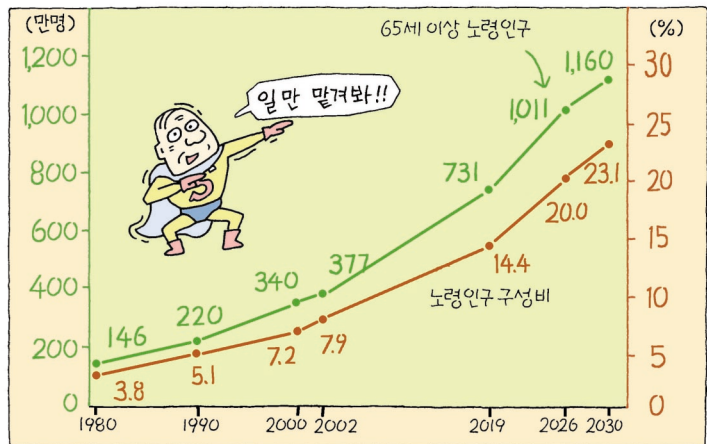
그러나 앞의 이야기가 보여주듯 한국에서 노인들이 설 땅은 자꾸만 좁아지고 있다. 노인 인구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 그들은 자신의 위엄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느낀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

역사상 가장 빠르게 진전되는 고령화

우선 노령인구를 살펴보자. 지난 20년 동안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꾸준히 높아졌다. 그래서 2002년 통계에 따르면 약 7.9%에 이른다. 인구학에서는 전체 인구에서 노령인구의 비율이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 사회’, 그리고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 또는 ‘후기 고령 사회’라고 한다. 한국의 노령인구는 2000년에 34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7.2%를 넘으면서 이미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고, 2019년에는 14.4%를 넘어 고령 사회가 되며, 2026년에는 20.0%를 넘어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한국의 노령인구

■ 우리나라의 노령인구 추이



* 자료 : 통계청

는 세계적으로 볼 때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부터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넘어가는 데 걸리는 시간을 비교해 보자. 프랑스는 115년, 독일이나 미국은 40~70년이 걸렸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은 24년이 걸렸다. 그렇다면 한국은 얼마나 걸릴 것인가? 놀랍게도 19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물론 이것은 예상 수치일 뿐이며 출산율이나 평균 수명에 따라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대충 20년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은 거의 확실하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다. 그로 인해 사회는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것이다.

노인들이 겪는 문제

노인들이 겪는 문제는 크게 역할의 상실, 둘째 가난, 셋째 고독, 넷째 건강의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역할의 상실에 대해 생각해 보자. 지금 평균 수명은 계속 올라가는데 정년은 지난 반 세기 동안 거의 그대로다. 아니, 실제로는 정년이 더 단축되는 추세다. 결국 일터가 없는 상태에서 보내는 여생이 그만큼 길어진 셈이다. 산업화와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노인들의 역할은 갈수록 줄어들다. 사람들은 점점 더 빨리 노인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의 사회, 그 중에서도 아메리카 인디언 부족의 노인들의 삶을 보여주는 다음 글을 보면 뚜렷이 대비가 될 것이다.

노인들은 쇠약해지고 눈이 어두워질 때까지도 가축을 돌본다. 그러다 더 이상 가축을 몰고 다닐 수 없게 되면 들이나 과수원에서 일을 하고 종종 들판에서 휴식을 취한다. 그들은 약용 식물이나 뿌리와 열매를 모으려고 조금씩 여행을 하기도 한다. 그러다가 들에도 더 이상 나갈 수 없을 정도로 늙으면 집이나 오두막에 앉아 실을 뽑고 천을 짜서 담요를 만들거나 나무에 조각을 하고 신발을 만들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눈이 멀거나 걸을 수 없을 때까지 실을 뽑는다. 늙은 여자들은 아주 쇠약해질 때까지 정원을 가꾸고 다리를 움직일 수 있는 한 나무와 물을 운반한다. 그들은 맷돌을 준비하고, 토끼풀로 바꾸니

와 장식품을 만들거나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며, 곡식을 빵고 옷을 꿰매며 아이들을 돌본다. 전혀 할 일이 없을 때는 햇볕 아래 앉아 열매를 말린다. 노인은 '죽을 때까지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종종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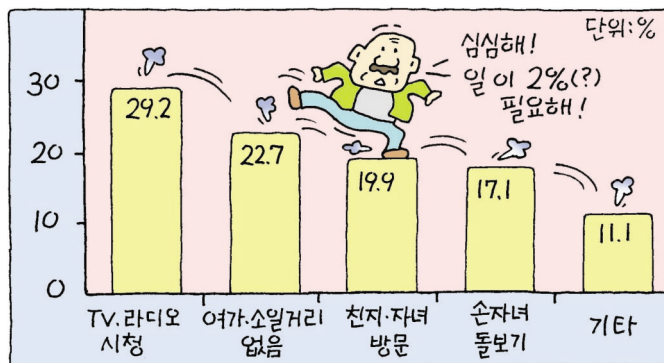
역할의 상실은 두 번째 문제인 가난, 즉 경제적인 문제로 직결된다. 한국에서는 그나마 모아 놓은 돈이나 퇴직금을 자녀의 결혼 비용으로 써 버리기 일쑤다. 노후를 위해 따로 돈을 모으면서 대비하는 사람들보다는 아무 준비 없이 노후를 맞는 사람들이 더 많은 형편이다.

물론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고 해서 행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세계에서 노인 복지가 가장 잘 되어 있다는 북유럽 국가의 양로원에서조차 자살하는 노인들이 종종 있다. 경제적으로 국가가 모든 것을 보장해 주는데도 생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들이 남기는 유서에는 종종 '오늘도 내게 아무도 말을 걸어 오지 않았다.'는 문구가 들어 있다고 한다. 사람은 외로움 때문에 죽을 수 있으며, 노인들은 그 고통을 더 깊이 느끼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어떨까? 노인들은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10여 년 전 자료이지만 아래 그림을 보면 노인들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상대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은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아니, 어쩌면 예전보다 더 고독하게 지낼지도 모른다.

그래서 노인들은 우울증 같은 마음의 병이 생기고, 그것은 신체적 건강의 문제로 직결된

■ 우리나라 노인들의 여가 보내기



* 자료 : 한국갤럽조사연구소(1992)

다. 게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결국 그러한 의료 비용을 국가가 사회복지정책으로 감당해 주어야 하는데, 바로 이것이 고령 사회가 떠안는 가장 큰 짐이 된다.

여러분이 노인이 되는 50년 후에는 노인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 그때가 되면 사회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질까? 가령 지하철에 경로석이 따로 있을 필요도 없지 않을까? 당신은 행복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을까? 그때를 위해 당신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국가는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그리고 개인도 국가도 하기 어려운 부분은 누가 담당해야 하는가? 이제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때다.



베트남 신부와 결혼하세요

농촌 총각이 결혼을 못 하는 이유

얼마 전 경주에서 세미나를 마치고 울산 공항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차창 밖으로 농촌 풍경이 한가롭게 펼쳐지다가 갑자기 큰 현수막이 나타났다. '베트남 신부와 결혼하세요.' 처음에는 무슨 연극 제목인가 했으나, 같은 현수막이 계속 나타나면서 결혼정보회사의 광고임을 알았다.

그렇다면 왜 농촌에 이렇게 여자가 귀한 것일까? 농촌에서 나고 자란 여자들은 다 어디에 간 것일까? - 《주간조선》, 2002. 10. 24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 초혼, 재혼, 장애자, 연세 많으신 분.'

베트남 결혼시장이 확대되면서 플래카드가 방방곡곡에 펴럭이고 있다. '재혼, 장애자, 연세 많으신 분'과 '베트남 처녀'의 이 불편한 조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 《한겨레21》, 2003. 3. 20

요즘 농촌 지역을 다녀 보면 위의 기사처럼 베트남 처녀와 맞선 보고 결혼하라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다. 왜 이런 현수막이 전국 방방곡곡에 걸려 있는 것일까?

말도 안 통하고 외모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베트남 여자와 결혼하라니, 이



무슨 똥단지 같은 소리인가? 처음에는 누구나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된다. 아, 농촌 총각들이 이렇게 결혼하기 힘든 모양이구나 하고….

어째서 농촌 총각들이 베트남 여성과 결혼해야 할 정도로 우리나라 여성을 찾기 힘든 것일까? 농사일은 힘들고 고되면서도 소득은 도시보다 낮다. 그뿐 아니라 농촌은 교육 여건도 열악하고 문화시설도 도시에 비해 빈약하다. 그래서 여성들이 농촌 총각들과 결혼하기를 꺼리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만약 여성이 남성보다 많아서 여성들이 도시에서 결혼 상대자를 찾지 못한다면, 농촌 남성들과도 결혼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촌 총각들의 결혼난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부족한 데 근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결혼적령기 남자 26~30세와 여자 24~28세의 성비는 2000년 현재 110.5이다. 다시 말해, 여자 100명에 남자 110.5명으로 남자 10.5

성비 : 여자 100명당 남자의 수

명이 짝을 구하기 힘든 상황인 것이다. 그러다 보니 결혼 여건이 좋지 않은 농촌 남성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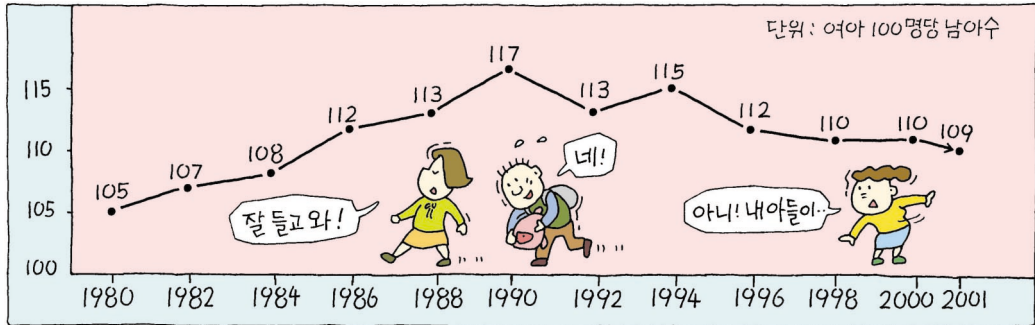
여자가 부족하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결혼적령 인구의 성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어 2010년에는 여자 100명당 남자 118.9명 수준이 될 전망이다. 그때가 되면 남자 118.9명 중 18.9명이나 짝을 찾기 힘들게 된다. 농촌 총각들의 결혼난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지속될 것임을 알 수 있다. 그와 더불어 베트남인과의 결혼 중매를 광고하는 현수막도 앞으로 계속 펴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결혼적령 인구의 성비 불균형이 심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결혼적령기 사람들이 태어날 당시에 남자가 여자에 비해 많이 태어났기 때문이다. 자연 상태의 출생 성비는 103~107로, 외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이 104, 영국이 105, 일본이 106이며, 우리나라도 1980년대 초까지는 이런 상태를 유지했다.

출생 성비 : 출생시 여아 100명당 남아의 수

■ 출생 성비 추이



* 자료: 통계청

그러나 1980년대 중반부터 출생 성비 불균형이 심화되어 1984년에 108.3이 되더니 1986년부터는 110을 넘어서기 시작하여 1990년에는 117선까지 증가하였다. 그 후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2001년에도 109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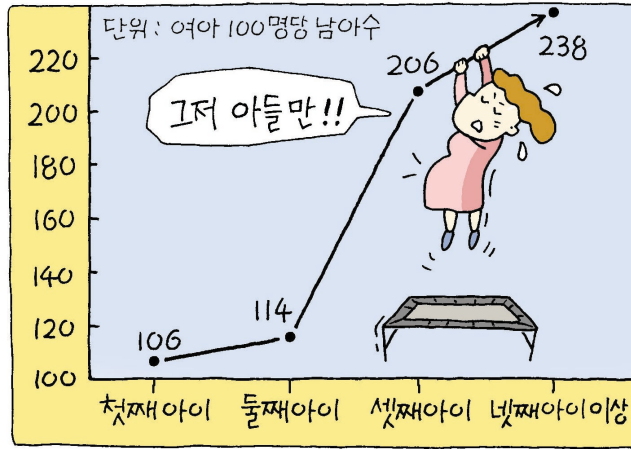
이렇게 출생 성비가 불균형을 이루게 되면, 앞에서 본 것처럼 여자가 부족해서 결혼을 못하는 남자들이 증가하게 된다. 그 결과 결혼을 못한 남성들은 심리적 좌절을 겪게 되는 한편, 여자의 부족으로 인해 매춘이 늘어나고, 여성 납치 등 성범죄가 증가하며, 외국 결혼시장 개척을 통한 여성 수입이 계속되는 등 부작용이 생겨날 것이다.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이러한 문제들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생 성비 불균형을 완화시켜야 한다. 그러면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먼저 출생 성비 불균형의 원인부터 알아보자. 출생 성비 불균형의 직접적인 원인은 의학기술의 발달로 태아의 성감별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태아의 성을 감별할 수 있게 되자, 남아를 원하는 사람들이 검사를 해서 아들이면 낳고 딸이면 낙태를 시켰던 것이다. 이는 출산 순위별 출생 성비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출생 성비 불균형이 가장 심했던 1994년의 경우, 첫째 아이 성비는 106.1인 데 비해, 둘째는 114.3, 셋째는 205.9, 넷째 이상은 237.7로, 둘째 아이부터 남아가 급격하게 증가한

■ 출산 순위별 출생 성비(1994)



* 자료 : 통계청

다. 자연 출산이라면 첫째나 둘째, 셋째 아이의 성비가 모두 비슷해야 한다. 그런데 첫째 아이만 자연 상태의 성비이고, 둘째 아이부터는 남아가 훨씬 많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출생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태아 성감별 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 그런데 1987년 11월에 의료법(제19조 2항)을 개정하여 태아 성감별 의료 행위를 금지시키고, 1994년과 1996년에는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태아 성감별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된다고 예상되는 것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녀 관련 문제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태아의 성을 감별하여 낙태하는 것이 비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는다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비윤리와 불법을 버젓이 저지르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법적 태아 성감별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감시와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또한 그에 덧붙여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 즉, 태아 성감별을 하게 되는 원인인 남아선호 의식을 바꿔 나가야 하는 것이다. 물론 남아선호 의식을 바꿔 나가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전통적으로 남아선호 사상이

남아선호 : 아들을 더 좋아함

뿌리 깊게 깔려 있기도 하거니와, 우리 사회의 구조가 아직도 남성들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면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더욱 요구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아 가고 있기 때문에 미래가 그리 어둡지만은 않다고 할 수 있다. 장차 남녀가 동등하게 대접받는 날이 오면, 농촌 총각들이 결혼하지 못하는 불행이 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꿀볼건 하나

식당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소란을 피우는데도 부모들이 아이들을 야단치지는커녕 자기들까지 큰 소리로 떠들어댄다.

꿀볼건 둘
길거리 아무 데서나 함부로 침을 뱉는다.



외국인의 눈에 비친 한국인



꿀볼건 셋

금연 빌딩의 복도에서 담배를 피운다.

꿀볼건 넷
외국 호텔 방 안에서 냄새를 피우며 음식을 해 먹고 소란을 피운다.





꿀볼건 다섯

연수가 끝난 뒤 자기가 쓴 물건들을 그대로 놓아 두고 나간다.



꿀볼건 여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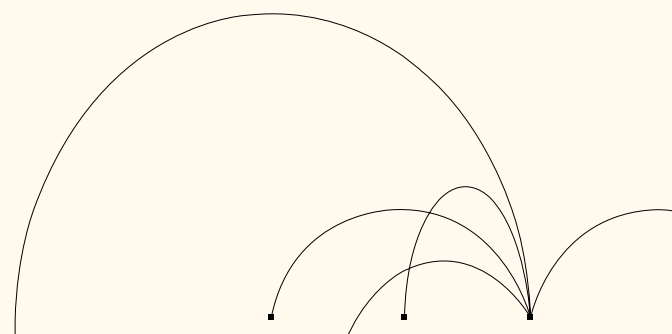
외국인들이 실례라고 생각하는 신상에 관한 질문을 함부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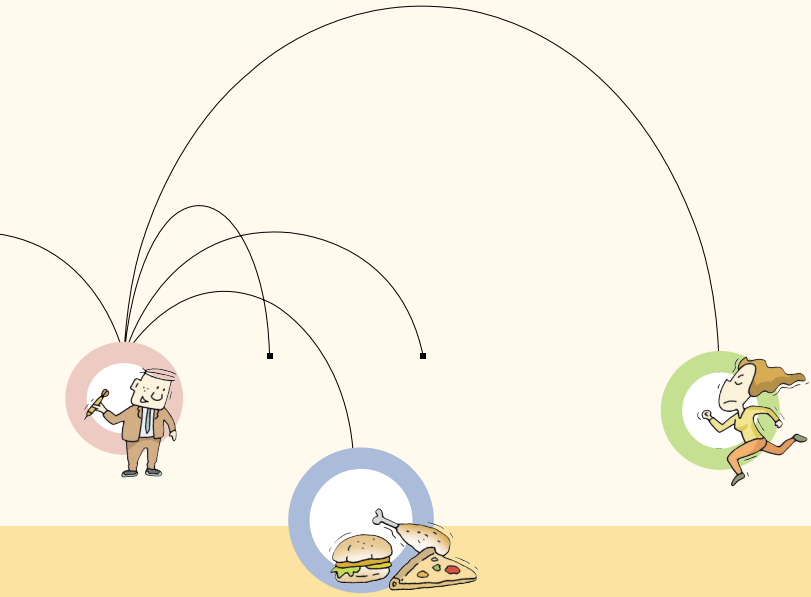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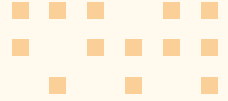
이런 모습들은 외국에서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조심해야 할 행동들이죠
이제 지구촌이 하나인 시대,
부끄러움 없는 세계시민이
됩니다!



꿀볼건 일곱
엘리베이터 안에서 커다란
목소리로 떠들어 댄다.







4부

우리 시대 우리 이야기

만일에 한글이 없었다면?
외모지상주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나의 진짜 몸무게는?
으~ 간식에 살고 간식에 죽고...
지금 무슨 책 읽고 있나요?
신유목민, 디지털 노마드의 삶
'책을 많이 읽는다' 에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주5일제 시대의 라이프 스타일
숫자가 말하는 여자의 일생
나와 같은 성(姓)을 쓰는 사람은 얼마나 되나?
쉬어 가는 코너 맹모삼천지교가 집값을 올린다?

만일에 한글이 없었다면?



쓸 줄은 아는데 입을 줄을 모른다?

어떤 범죄자가 경찰에 붙잡혀 취조를 받고 있었다. 경찰이 여러 가지를 조사하던 중 글자를 입을 줄 아느냐고 물었다. 그런데 범인의 대답이 희한했다.

“쓸 줄은 아는데 입을 줄은 모릅니다.”

경찰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호통을 쳤다.

“그게 말이 돼? 어떻게 쓸 줄은 아는데 입을 줄을 모른단 말이야?”

범인은 계속 그렇다고 우겼다. 그러자 경찰은 종이와 연필을 주며 한번 써 보라고 했다. 범인은 종이 위에 뭔가를 휘갈겨 썼다. 경찰이 보니 그것은 글씨가 아니었다.

화가 난 경찰이 다그쳤다.

“야, 이놈아, 이게 무슨 글씨냐? 뭐라고 썼는지 네가 한번 읽어 봐라.”

그러자 범인은 태연스럽게 말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쓸 줄은 알지만 입을 줄은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범죄자와 같이 글자를 모르는 것을 가리켜 ‘문맹(文盲: illiteracy)’이라고 한다. 문맹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 문맹자는 최소한의 적응조차 힘들다. 문자는 사회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문명의 바탕에는 문자가 있었다

이런 상상을 해 보자.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서 글자가 모두 사라져 버린다면? 외계인의 장난으로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글자를 읽지 못하게 된다면? 또는 정부의 컴퓨터 시스템에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들어와 그 안에 문자로 보존되어 있는 국민들의 신상 정보가 모조리 없어진다면? 은행의 예금 기록이 사라진다면? 학교에 불이 나서 성적이나 수행 평가 기록이 불타 버린다면…?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사회 질서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렇듯 글자는 이 거대한 문명을 떠받치는 바탕이 되고 있다.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 말을 매우 정교하게 구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글자로 옮길 수도 있다. 그것은 인류의 문명을 가능하게 한 토대였다.

다른 동물들의 경우, 자기의 경험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려면 직접 가르치는 수밖에 없다. 인간도 문자가 생기기 전까지는 그랬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아이디어를 발견했다 해도, 본인이 죽고 나면 그 정보는 입에서 입으로 전달될 뿐이었다. 살아 있는 동안이라 해도 그를 직접 만날 수 없다면 누군가가 대신 전달해 주어야만 했다.

그러나 문자가 생겨나면서부터는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본인을 직접 만나지 않고도 그 사람의 생각을 전달받을 수 있고, 죽고 난 다음에도 그의 생각이 고스란히 남을 수 있게 되었다. 기록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해서 글자는 지식을 저장하고 전달하는 도구로서 인간의 삶을 변화시켜 왔다.

한국은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

그런데 인류 문명이 최고조로 발달한 21세기에도 글자를 읽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유네스코(UNESCO)의 통계에 따르면, 지금 전 세계 인구의 문맹률은 대체로 50% 정도가 된다. 놀라운 수치가 아닌

유네스코 : 국제연합(UN)의 전 문기구의 하나로, 교육·과학·문화를 담당하는 기구



가? 그런데 이 수치는 어린아이까지 포함된 것으로, 15세 이상 인구로 한정하면 20%가 된다고 한다. 그렇다 해도 역시 대단히 높은 수치가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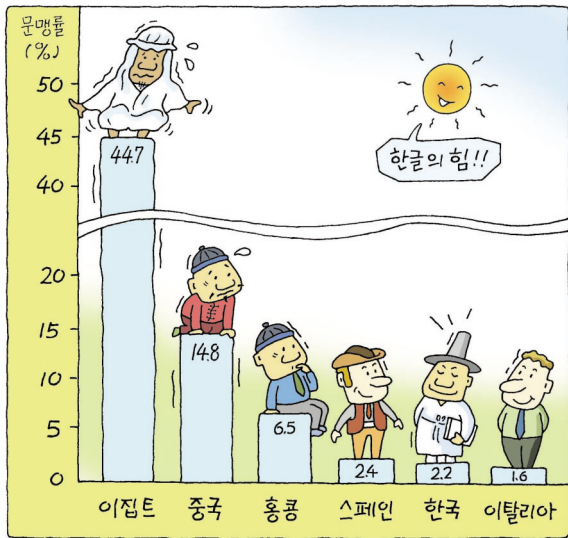
문맹률은 가난한 나라일수록 높다. 그 상관관계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선진국이라고 해서 문맹률이 낮은 것만은 아니다. 막강한 경제대국 미국에도 문맹자가 많다. 17세 청소년의 17%가 문맹이라고 하니 엄청난 일이 아닌가. 그것도 가난한 계층만 그런 것이 아니다. 역대 연봉을 받는 NBA나 메이저리그 선수들 가운데도 문맹이 꽤 많다고 한다. 그래서 구단에서 강제로 교육을 시키려 하는데 잘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건 미국만의 사정이 아니다. 홍콩의 유명 배우 성룡도 글자를 읽지 못해 수행 비서가 항상 서류 업무를 처리해 준다고 한다.

그렇다면 한국의 문맹률은 과연 얼마나 될까? 유네스코 통계에 따르면 2.2% 정도라고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것은 정확한 통계라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문맹률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 제대로 조사하지 않을까? 조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필요가 없다니?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문맹 퇴치가 중요한 정책 과제가 아니다.

주변을 둘러보라. 글자를 모르는 사람은 옛날에 교육을 받지 못한 아주머니나 노인층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글씨는 읽고 쓴다. 오히려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에게 너무 일찍 글자를 가르치는 것이 문제가 될 지경이다. 사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문맹률이 낮은 나라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아마도 우리와 비슷한 나라는 일본과 유럽의 일부 국가 정도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문맹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

■ 나라별 문맹률 비교



* 주 : 2000년 기준, 15세 이상 인구 / 자료 : UNESCO

는 한글이라는 뛰어난 발명품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문화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한글은 언어학적으로 대단히 특이하다. 한글은 모든 문자 가운데서 가장 나이가 어리다. 그리고 상형문자같이 서서히 변형, 발전된 것이 아니라, 아무 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하듯 발명해 냈다는 점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문자이다. 문자를 몇 년 사이에 완전히 체계화한 경우는 한글 말고는 없다.

상형문자 : 일부 한자와 고대 이집트 글자처럼 물체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문자

훈민정음의 과학성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밝히고 있다. 문자가 없는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한글을 보급하여 쉽게 문맹을 극복한 사례도 그 중의 하나이다. 그만큼 배우기 쉽고 여러 가지 발음을 정교하게 표기할 수 있다는 말이다. 500년 전 선조가 남겨 주신 유산이 이렇듯 지구촌의 문화에 기여하고 있다. 아는가? 유네스코에서 매년 문맹 퇴치에 기여한 단체를 선정해 상을 주는데, 그 상의 이름이 ‘세종대왕상’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상금을 한국에서 내놓는다는 것을.

인터넷 세계에서 돋보이는 한글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언어는 15,000개 정도로 추정된다. 그리고 현존하는 언어는 3,500~8,000개쯤 된다고 한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는 중국어이며, 그 다음은 영어다. 그렇다면 한국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몇 번째쯤 될까? 한국어보다 많이 사용되는 말들을 헤아려 보면, 스페인어, 아랍어, 프랑스어, 일본어... 그렇게 많지 않다. 한국어는 현재 사용 인구 면에서 13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문자는 어떤가? 세계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문자는 56개 정도 된다. 그러면 많이 사용되는 문자의 순위는 어떻게? 이것을 측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말보다는 문자로 한글을 사용하는 인구의 순위가 틀림없이 더 높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문맹률이 낮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것은, 정보화 사회가 발달하면서 한글을 사용하는 인구의 순위가 더 올라간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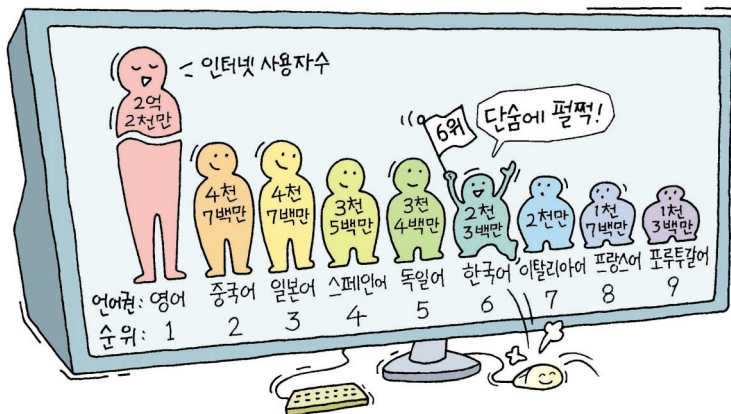


점이다. 다른 아닌 인터넷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컴퓨터와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에서 꽤 높은 수준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지난 5년 사이에 사이버 공간이 폭발적으로 확장되면서 엄청난 정보가 그 안에 축적, 유통되고 있다. 우리 글은 일본의 가나나 중국의 한자, 심지어는 영어 알파벳에 비해서도 키보드를 치기에 적합한 문자라고 한다. 덕분에 한글로 담긴 정보들이 인터넷 세계에서 대단한 속도로 계속 축적되어 인터넷에서 한글의 순위는 6위로 펄쩍 뛰어오른다.

미국의 청소년들 가운데는 채팅이나 문자 메시지를 하고 싶어도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중국 사람들은 평생 배워도 한자를 다 알지 못한다. 20세기에 들어 약자를 많이 발달시켜 실용화시켰지만, 그래도 한글에 비하면 복잡하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데도 매우 불편하다. 한국의 인터넷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달하게 된 배경에는 이렇듯 한글이라는 문화적 토대가 있는 것이다. 세종대왕님께 새삼 고마움을 느낀다.

약자 : 글자의 획을 줄여서 간단하게 나타낸 한자

■ 인터넷 사용 언어 순위



외모지상주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다이어트가 사람 잡는다

다이어트가 사람 잡는다는 말을 실감하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바로 제 딸 때문입니다.

제 딸은 2년 전 대학에 합격한 뒤 서울로 올라가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 올라갈 때까지만 해도 딸애의 키는 162cm에 몸무게는 54kg 정도였습니다. 제가 보기엔 전혀 문제가 없는 몸매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올라가 대학에 다니면서 딸애는 음식을 많이 먹는 자신을 다른 아이들이 짐승처럼 본다고 하며 자신이 뚱뚱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체중이 42kg에 불과합니다. 기력이 없어 보이는 건 물론이고 생리도 잘 안 나온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 보자고 하면 오히려 역정만 냅니다. 보내준 용돈으로 죄다 다이어트 제품을 구입한 모양입니다.

방에 가 보니 큰 거울이 눈에 띄었습니다. 매일 거울 앞에서 몸매를 점검하기 위해 샀답니다. 체중계도 세 개나 있더군요.



예전엔 밥도 곤잘 해먹던 애가 지금은 변비약과 다이어트용 생식 가루로 끼니를 때우고 있습니다. 굶어도 상관없으니 살만 빠지면 좋겠다고, '똥똥한 몸매로 사느니 차라리 죽겠다'고도 합니다. 돈이 생기면 얼굴 살을 빼는 성형수술까지 받고 싶다고 말합니다.

도무지 제 딸 같지가 않고 다이어트의 노예가 된 느낌입니다. 어떻게 해야 자신이 저체중이라는 것을 알게 될까요.

한 주부가 어느 신문 상담 코너에 올린 내용이다. 극히 일부의 예라고 생각하겠지만, 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는 외모지상주의 국가라고 불릴 정도로 다이어트나 성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몸무게가 정상보다 적은 저체중인데도 끊임없이 다이어트를 하고 자신이 비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2003년에 보건복지부에서 11~17세의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외모 인식과 건강 수준 실태를 조사하였는데, 결과가 충격적이다. 여학생 3명 중 2명이, 남학생은 3명 중 1명이 체중 조절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한다. 문제는 상담에 등장하는 주인공처럼 '저체중'인 여학생의 3분의 1 정도가 체중 조절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저체중인 여학생의 3분의 1 정도가 자신의 체형을 보통이라고 생각하고, 정상 체중인 여학생의 5분의 2 정도는 자신을 약간 뚱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실제 체중에 비해 자신을 더 비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왜곡된 인식이 체중 조절을 하게 하는 원인은 아닐까?

나는 정말 비만일까?

일반적으로 비만은 체내에 지방이 지나치게 많이 쌓여 있는 상태를 말하며, 체질량 지수에 의한 계산법인 '표준 체중(kg) = (신장-100)×0.9'를 구해서 그 값보다 자신의 체중이 10% 이상 더 많이 나가면 과체중, 20% 이상이면 비만이라고 한다. 그런데 청소년 시기는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성인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비만을 측정한다.

$$\text{롤러(Rohler)지수} = \frac{\text{체중(kg)}}{(\text{신장})} \times 10^7$$

키 110~120cm일 경우	계산 후 Rohler지수	180 이상이면 비만
130~149cm일 경우		170 이상이면 비만
150cm 이상일 경우		160 이상이면 비만

그러면 앞 글에 나온 어머니의 딸은 어떤 상태인가? 162cm에 54kg이므로, 먼저 체질량 지수법에 따르면 표준 체중은 $62 \times 0.9 = 55.8$ 이 되어, 다이어트 이전에도 표준 체중보다 낮았다. 그리고 롤러(Rohler)지수로 계산을 하더라도 지수가 127로 나와 아주 정상인 상태이다. 그러니 다이어트가 전혀 필요 없는데도 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떤 상태인가?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TV에 나오는 야원 연예인과 비교하여 스스로 뚱뚱하다고 생각지는 않는가?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야위어 보이기 위한 다이어트 열풍이 불면서 다이어트의 의미 또한 달라졌다. 다이어트는 원래 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식이요법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살을 빼기 위해 음식을 줄이거나 먹지 않는 모든 행위를 표현하는 말이 되었다. 아마 극빈증을 제외하면 우리 사회 모두가 어떤 형태로든 다이어트 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다이어트뿐만이 아니다. 외모를 가꾸기 위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치아 교정은 기본이고, 쌍꺼풀과 보톡스 수술은 필수이며, 라식 수술과 지방흡입술은 선택이 되어 버렸다. 거기에 세대별로 자신을 꾸미는 방식 또한 다양하게 행해진다.

극빈증 : 몹시 가난한 계층
보톡스 수술 : 주름살을 펴는 수술

화장이나 머리 염색과 같은 일상적인 것부터 피부 스케일링, 다이어트, 성형, 지방흡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외모 가꾸기는 특정 세대에 한정되지 않는다. 특히 성형이나 지방흡입은 단순한 외모 가꾸기를 넘어서 버렸다. 부작용으로 고민하다 자살하는 사례까지 있을 정도로 심각한데도 성형외과는 자꾸 늘어나며 성형수술도 다양해지고 있다.



1318세대 : 남의 관심을 끌기 위해 값비싼 운동화나 액세서리 등 소품에 집착한다.

2534세대 : 외모에 대한 관심이 절정을 이룬다. 헬스와 피부 관리는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꼭 해야만 하는 인생의 중요한 목표가 된다. 심할 경우 목숨을 건 성형수술과 다이어트도 한다.

1924세대 : 성형과 화장으로 자신을 변형시키고 고가의 선글라스와 액세서리에 관심을 기울인다.

3543세대 : 어리게 보이는 것이 외모 가꾸기의 최대의 목표이다. 기능성 속옷과 찜질방, 그리고 명품 패션을 통해 몸매 관리에 심혈을 기울인다.



우리나라의 외모 가꾸기 열풍에 대해 외국 언론이 은근히 꼬집는 기사를 실은 적이 있다. ‘한국 여성들은 날씬한 몸매를 위해 신경을 마비시키고 근육을 자르는 성형수술로 해결책을 찾는다’, ‘한국 여성들은 서구 미인을 닮기 위해 코를 높이고, 턱을 깎고, 눈을 크게 만든다.’는 내용이었다. 우리 사회의 전문가들도 이렇게 성형과 다이어트에 집착하는 것을 병이라고 진단한다. ‘떨쩍한 신체를 가지고도 어떤 부분에 결점이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막대한 돈과 시간을 투자해 자신의 신체를 변형하려고 매달리는 일종의 정신병’인 ‘신체변형장애’라고 보는 것이다.

외모지상주의 사회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은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되어 가는가? 그것은 우리 사회에 외모가 인생을 좌우한다고 믿는 ‘루키즘(lookism : 외모지상주의)’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루키즘은 특히 여성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난다. 우리나라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조사 결과를 보면,

3명 중 2명 이상이 '외모가 일생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피부와 몸매가 생활 수준을 나타낸다', '몸매 좋은 여자가 부럽다', '외모에 따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데 대해서도 3명 중 2명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



사회 다수가 루키즘에 빠져 있는 지금, '다이어트 열풍' 혹은 '성형 열풍'을 아름다워지고 싶어하는 한 사람의 개인적 욕망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그 안에 숨겨진 사회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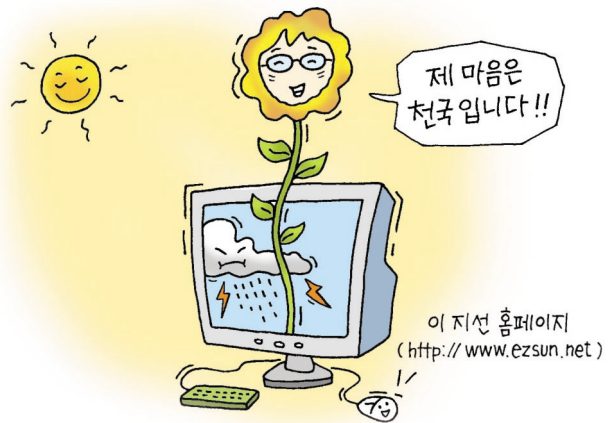
'마음씨 나쁜 것은 용서되어도 얼굴 못생긴 것은 용서 안 된다.'는 말은 단순한 유머가 아니다. 남녀 모두 외모에 집착하다 보니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도 왜곡되어 간다. 한 조사에 의하면, 남자 10명 중 8명, 여자 10명 중 5명이 정상 체중인 여자를 비만으로 오인하고 있었다. 또한 남자 10명 중 5명, 여자 10명 중 3명이 정상 체형인 남자를 비만으로 보고 있었다. 남자와 여자 모두 왜곡된 기준으로 체형을 평가받지만, 특히 여자의 체형에 대한 왜곡이 더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왜곡된 평가는 용모를 따지는 기업의 채용 관행, 날씬하고 예쁜 사람이 최상이라고 부추기는 TV와 영화, 상업주의에 물든 병원들이 마구잡이로 행하는 성형수술, 넘쳐나는 다이어트 산업 등이 모두 함께 부추기고 있다. 덕분에 '비만치료제' 산업은 해가 갈수록 급성장하여, 2001년 말 5백억 원대의 시장을 형성하였으며, 2010년에는 2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또 우리나라 미용 산업의 시장 규모는 2002년에 26조 4천억 원, 그 중에서 다이어트와 미용성형 산업이 각각 1조 원과 5천억 원을 차지하고 있다.

젊은 여성의 90% 이상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불만족스럽다고 하고, 82%가 ‘성형수술을 받고 싶다’고 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만나 보아야 할 아름다운 여성이 있다.

“앞으로 지선 씨보다 더 예쁜 여자는 다시 못 볼 것 같습니다. 우리 딸도 지선 씨처럼 멋있게 커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지선의 홈페이지(<http://www.ezsun.net>)에 누군가가 남긴 글이다. 이지선은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4학년이던 2000년 7월 여름, 오빠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음주 운전 차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그 사고로 몸의 55%에 3도 화상을 입었다. 응급실에 실려 갔을 때 의료진들이 ‘가망 없다’고 말했을 정도였다. 그러나 7개월간의 입원, 그리고 일본에서의 11차례 수술로 많이 회복되었다. 하지만 예쁘던, 정말 예쁘던 얼굴을 되찾지는 못했다. 그런데도 그녀는 자신의 일그러진 외모로 당당히 세상에 나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지 말아 주세요.
너무나 못난 얼굴을 갖게 되었지만, 예전처럼
예쁘게 화장도 못하지만,
이 마음은 그 누구보다 예쁜 것을 좋아하는 스
물네 살 여자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쫄쫄” 불쌍하다 하지
말아 주세요.
누가 봐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불행할 것 같은 모습
이지만 그 누구보다 마음이 행복한 천국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따뜻한 눈으로 대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세상은 참 살아 볼 만한 곳입니다.
지금도 아픔 속에 있는 모든 분들께도 이 마음이 전해지길 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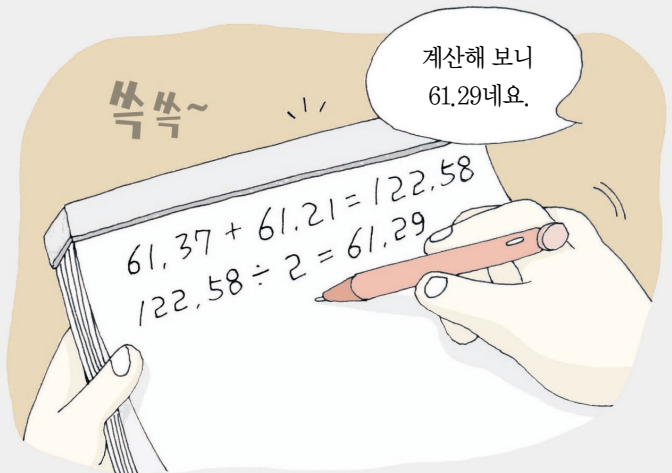
나의 진짜 몸무게는?





▶ 측정오차 : 측정하는 기계의 정확도 때문에 생기는 참값과 관찰값의 차이.





그래~ 잘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더 쉽게 계산할 수 있단다.
61은 똑같으니까 나머지 0.37과 0.21만 더하는 거야.
어떠냐? 같은 값이 나오지?

오! 정말 그렇네요~!

$$0.37 + 0.21 = 0.58$$

$$0.58 \div 2 = 0.29$$

$$61 + 0.29 = 61.29$$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표준편차

61.21 61.29 61.37

↑
평균값(표준)

이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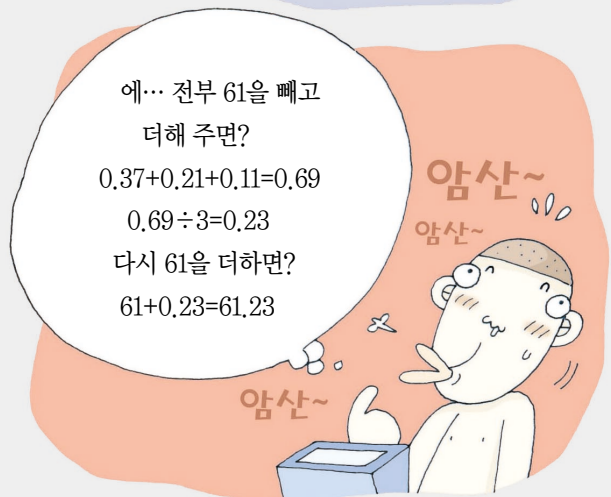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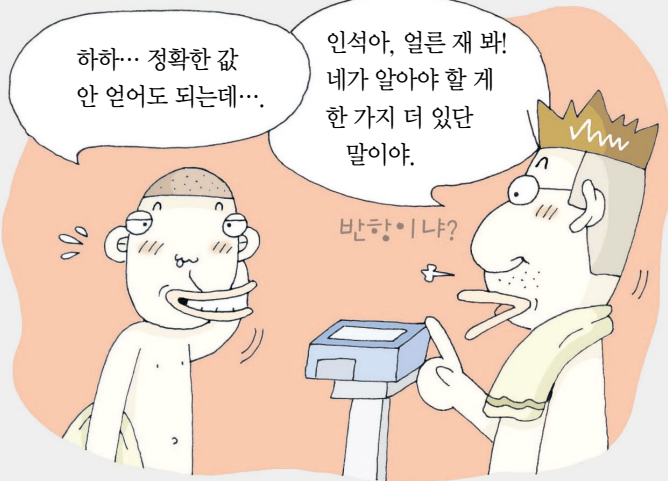
이제 뭐가 뭔지 알겠어요!
알고 보니 쉽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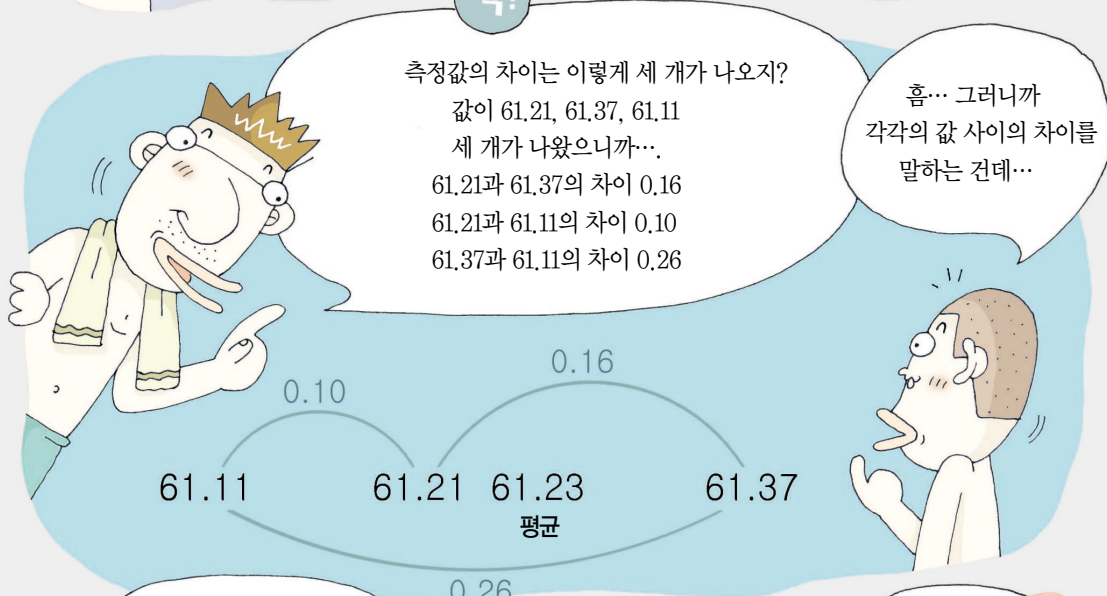
우히히~

이 경우에 두 측정값 중 어느 하나하고 평균값의 차이를 표준편차라고 하고...
평균값에서 표준편차만큼의 오차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단다.

그러니까 제 진짜 몸무게는 61.29kg에서 0.08kg(0.16÷2) 만큼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차이들을 제공하면
표준오차를 구할 수
있거든.

예? 이 값들을
또 제공한다구요?



그래. 그러면 좀더
정확한 몸무게를 알 수
있으니까 말이다.



아우~ 아빠...
이제 그만하면
안돼요?

그까짓 몸무게
정확하게 알아서
뭐 한다고...

하하하~
그래, 알았다
알았어...

이제 그만
하고 갈까?



그런데 몸무게 같은 거야
그렇게 정확하게 알
필요 없을지 몰라도...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상품을 개발해서 생산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소비량이 얼마나 될지를 조사할 때는 정확도가 아주 중요하단다.
그 조사 통계에 맞춰서 상품을 생산할 건데, 너무 적게 만들어서 모자라도 안되고, 너무 많이 만들어서 남아도 안 되기 때문이지.



바로 이런 경우겠지...

팅팅...

한 개 남았어?
에이 진짜~.
팔릴 때 팔아야
되는데 왜 물건을
이렇게 조금밖에
안 만든 거야?



에구... 팔리지도 않을 걸
쓸데없이 왜 이렇게 많이
만든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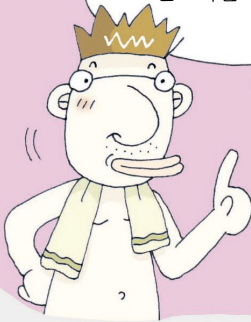
재고
수북~



그래서 그럴 때는 정확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기 위해
표준오차를 구하게 되는 거란다.

아아~ 그런 경우에
표준오차를 구하는
거구나...

그렇게
깊은 뜻이...



헤헤~ 그럼 전
꼭 알아야 되는 거였네요.
나중에 사장님이 되면
꼭 필요할 테니까~♪

하하하~
그럼~!

씨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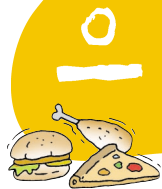


자, 이제 그만 가자.
오늘은 아빠 얘기 잘 들어
줬으니까 특별히 햄버거
사 주마.

야호~
신난다~♪
아빠 최고!!

음... 목욕탕에
와서까지 공부를
하다니...
대단한 부자군...





간식에 살고 간식에 죽고...

간식, 삶의 다양한 즐거움

‘자장면? 아니, 짬뽕?’ 중국집에서 주문할 때마다 생기는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다. 두 가지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짬짜면’이라는 아이디어 상품으로 이 고민을 해결해 주는 중국집이 생길 정도니까. 그렇다면 간식은? 떡볶이, 순대, 김밥과 같은 약간은 토속적인 간식? 아니면 빵, 햄버거, 치킨, 피자와 같은 서구화된 간식? 다 먹으면 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선택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간식’ 이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정해진 식사와 식사 사이에 먹는 가벼운 간식은 주식에서 채우지 못한 영양뿐만 아니라 삶의 다양한 즐거움까지 채워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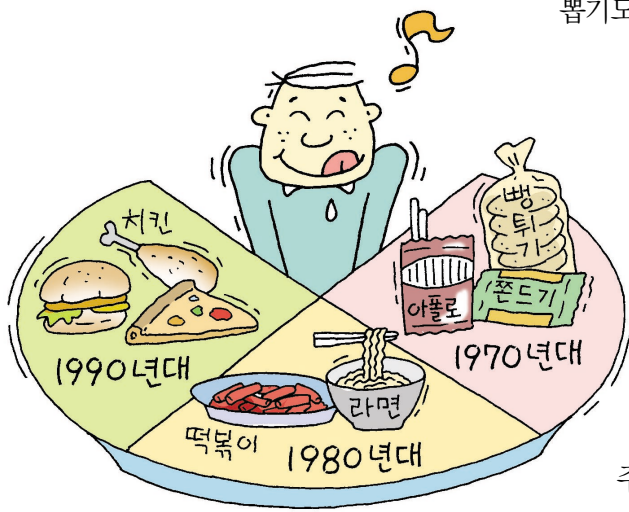
“스트레스 쌓일 때 라면 면발이 얼마나 당기는데요. 그거 한 그릇 먹으면서 친구들과 같이 수다 떨면 스트레스 끝이에요.”

“친구들이랑 피자 한 판 시켜서 셋이 나눠 먹으면 그날 분위기 끝내 줘요.”

딱히 어느 시대에 무엇이 유행했다고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1970년대는 쫄면, 아폴로, 그리고 빵튀기, 1980년대는 라면, 떡볶이, 1990년대는 햄버거, 치킨, 피자로 구분하면 간식을 너무 단순화시킨 것일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빵’은 시기를 막론하고 중요한 간식으로 사람들의 입을 즐겁게 해 주었다.

난롯불에 구워 먹던 쫄면, 앞니로 깨물어 빨아먹던 아폴로와 같은 추억의 간식은 “불량식품 사먹지 말아라.”라는 선생님의 근엄하신 당부에도 불구하고 그 원색의 색깔만큼이나 황홀하고 달콤한 당분으로 허허롭고 고픈 배를 채워 준 먹을거리였다. 거기엔 빵튀기, 번데기,





뽑기도 한몫을 했는데, 학교를 마치고 골목길로 접어들 때 저 멀리서 유혹하던 그 냄새는, 공기놀이, 구슬치기, 딱지치기와 더불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거리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즐거움 중의 하나였다.

1980년대로 접어들면서 간식은 거리에서 분식집으로 공간 이동을 했다. 분식집에는 잘생긴 DJ도 있고, 그가 틀어주는 음악도 있었다. 작은 공간이지만 DJ가 틀

어 주는 노래를 듣고 뮤직 비디오를 보는 것은 떡볶이,

김밥, 순대를 간식으로 먹으면서 덤으로 누리는 최대의 행복이었다.

새롭게 떠오른 간식, 패스트푸드

그런데 1988년 올림픽을 지나면서 새로운 간식거리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 있으니, 이 름하여 패스트푸드. 햄버거, 치킨 그리고 피자 등이다. 1970년대에 “저거 한번 먹어 봤으면... 무슨 맛일까?”라는 생각을 갖게 했던 것이 바나나였다면, 1980년대 말에 그런 생각을 하게 한 것은 피자를 비롯한 패스트푸드였다. 이 패스트푸드 산업은 1990년대를 넘어서면서 급격하게 성장했고, 어디서나 쉽게 만날 수 있는 전 국민의 간식이 되었다. 이렇게 패스트푸드가 급속하게 성장한 이유는 무엇일까?

보통 1인당 국민소득이 3천 달러가 넘어서면 삶의 여유가 생긴 사람들이 외식을 즐기기 시작한다. 우리나라도 1980년대 중반에 1인당 국민소득이 3천 달러를 넘어섰고, 외식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특히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올림픽 이후 서구 외식산업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외식 문화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한다. 서구화된 먹을거리는 우리의 생활

문화까지 변화시켰다. 햄버거와 같은 서구식 패스트푸드가 입맛을 사로잡게 되면서 맛벌이 부모들이 아이들 생일 파티를 패스트푸드점에서 하기 시작했고, 이것은 아이들의 새로운 문화로 자리잡게 되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닐 무렵이 되면서부터 생일 파티를 해 달라고 조르기 시작했다. 동화책에 나오는 근사한 생일 파티가 멋있어 보이고, 친구의 생일 초대에 갔다 오면 부러운 마음이 생기는 모양이다. 자기 생일이 언제인지 스스로 찾아 달력에 동그라미를 해 놓고 손꼽아 생일 잔치를 기다리니 안 해 주고 넘어갈 재간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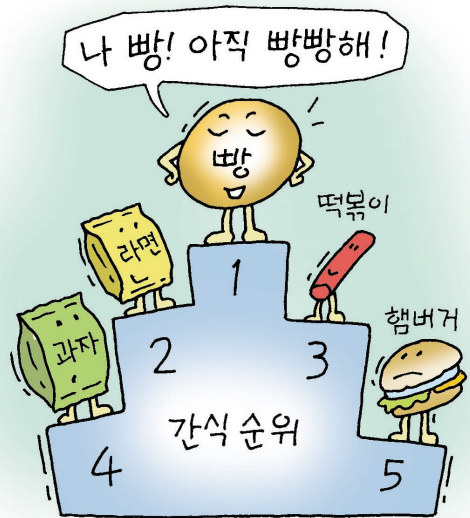
그런데 막상 생일상을 차려 주려니 아이들이 무엇을 잘 먹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꽤나 신경이 쓰였다. 다른 친구들의 생일 파티에 대해 물어보니 대부분이 패스트푸드점에서 피자나 치킨, 햄버거에다 콜라 등의 음료를 같이 먹는다는 것이다. 간혹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하는 경우에도 자장면을 시켜 먹거나 인스턴트 음식, 과자류가 주 메뉴였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기원하며 손수 만들어 주시던, 정성이 깃든 음식들이 식탁에서 사라지면서 아이들도 점차 우리 고유의 입맛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 무슨 행사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가 아니더라도 아이들을 데리고 외식하는 부모들은 으레 피자집이나 햄버거집을 찾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고 말았다. -한 어머니의 일기 중에서

패스트푸드, 그 뒤의 그림자

실제로 간식을 먹지 않는 아이들은 거의 없다. 2000년,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에서 서울 시내 중·고등학생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 가운데 단 2%만 간식을 먹지 않는다. 그 많은 학생들이 간식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맛인데, 가장 많이 먹는 간식 1위는 빵, 2위는 라면, 3위는 떡볶이, 그 다음으로 과자, 햄버거, 피자 순이다. 여전히 전통적인 빵이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라면과 떡볶이 같은 분식집의 간이 요리가 그 다음을, 그리고는 패스트푸드점의 메뉴가 뒤를 잇고 있다. 간식을 먹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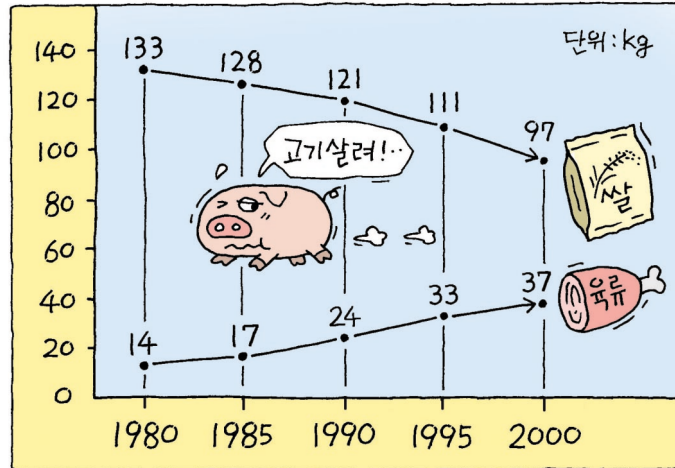
장소는 집, 분식점, 패스트푸드점, 학교 매점 순이다. 생각보다는 햄버거나 피자를 적게 먹고 여기겠지만, 2001년에 한 여론조사기관이 우리나라 국민 1,282명의 패스트푸드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사람들 중 49.4%가 1주일에 1~4회 패스트푸드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이틀에 한 번 패스트푸드를 먹는 사람도 13.6%나 됐다. 덕분에 패스트푸드 상위 5개 업체의 연간 매출액은 1조 원을 넘어선 상태이다.



어릴 때부터 입맛이 패스트푸드에 길들여져 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리고 주변에 자꾸만 늘어나는 패스트푸드점을 보면서 패스트푸드에 대해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다. 패스트푸드는 단순히 아이들의 입맛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햄버거를 비롯한 패스트푸드는 우선 아이들 비만이나 과체중의 주범이다. 미국의 경우, 아이들의 비만·과체중의 증가와 패스트푸드 산업의 성장은 시기적으로 거의 일치한다. 패스트푸드의 대표 격인 햄버거는 성분의 30~40%가 지방으로, 삼겹살보다 더 많은 지방을 함유하고 있다. 패스트푸드는 비만 외에도 당뇨병, 동맥경화증과 같은 성인병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성장에 꼭 필요한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 화학조미료, 다이옥신과 같은 발암 물질, 그리고 환경호르몬 성분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패스트푸드는 영양과 건강에 문제가 많다는 의미의 '정크 푸드(junk food : 쓰레기 음식)' 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합하다. 어떤 사람들은 패스트푸드가 담배보다 더 위험하니 '경고 : 햄버거 등 패스트푸드는 비만을 포함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특히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에 해롭습니다.' 라고 경고문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한 사람이 1년에 소비하는 식품 양의 변화



*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패스트푸드를 세계 문화적인 차원에서 보면 또 다른 문제가 보인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패스트푸드점은 맥도널드다. 121개국에서 2만 9천여 매장을 운영하며, 미국식 맛과 운영으로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를 차례로 공략하고 있다. 현재는 평균 5개가 매일 새로 생기는데, 그 중 4개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문을 연다. 이 같은 서구식 패스트푸드는 단순히 간식의 메뉴를 변화시키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음식 문화와 생활 방식 전체를 변화시키고 있다.

간식, 다시 생각해 보자

이렇게 패스트푸드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이에 대항하는 작은 운동이 생겨났으니, ‘슬로푸드 운동’이 그것이다. 슬로푸드는 패스트푸드와는 정반대로, 오랜 시간 천천히 조리하는 음식, 깨끗한 환경에서 생산된 재료를 이용해 전통적인 조리 방식으로 만드는 음식을 말한다. 이 슬로푸드 운동은 1986년 미국 패스트푸드의 대명사인 맥도널드가 이탈리아 로마에 진출하는 데 반대하여 ‘식사, 미각의 즐거움, 전통 음식의 보존’을 강조하면서 시작되



었는데, 현재는 40여 개국에 7만 명의 풀뿌리 조직을 둔 운동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이 운동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내 곳곳에 패스트푸드점이 들어서 이탈리아의 생활 문화를 변화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작은 시골에까지 패스트푸드점이 들어서 천 원 안팎의 돈을 주면 풍성한 햄버거 하나를 아이들에게 안겨준다. 그리고 TV에서 “너희가 게 맛을 알아?”, “이제부터는 통이란다.” 등의 광고 문구로, 심지어는 대통령의 목소리를 패러디하면서 풍성한 햄버거를 선전한다. 누가 뭐래도 이제 패스트푸드는 아이들의 중요한 간식이 된 것이다.

그렇다고 문제가 많은 패스트푸드를 아이들에게 이대로 먹게 할 수는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앞서 말한 ‘슬로푸드 운동’도 좋은 방안일 수 있지만, 무엇보다 패스트푸드를 대신할 수 있는 간식, 즉 아이들의 기호와 입맛에 맞는 우리의 간식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간식을 먹는 이유는 단순히 입을 즐겁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영양분을 채우고,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고, 마음속에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려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지금 내가 먹고 있는 간식이 나를 살리는지 아니면 죽이는지, 그리고 내가 우리의 간식 문화를 바꾸고 있지는 않은지를...



지금 무슨 책 읽고 있나요?

책을 통해 쌓이는 지혜

책은 왜 읽어야 할까? 사실 책을 읽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기억하는 내용이 별로 없다. 그냥 그런 책을 읽었다는 사실만 기억하는 것 같다. 《학문의 즐거움》이라는 책을 쓴 일본 출신의 유명한 수학자 히로나카 헤이스케는 “책을 읽고 공부를 하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혜가 쌓인다.”고 말한다. 그런데 책을 많이 읽으면 정말 지혜가 쌓이는 걸까?

우리가 날마다 먹는 밥과 반찬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로 모두 소비되는 것 같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몸을 자라게 한다. 마찬가지로 독서도 한권 한권 읽은 내용이 쌓이고, 그 내용들이 합쳐져서 지혜를 형성해 가는 것이다.

우리의 선조들은 “하루의 독서는 천 년의 보배요, 백 년간 물질만 탐하는 것은 하루아침의 티끌과 같다.”와 같은 글귀를 통해 글 읽는 것을 장려했다. 또 안중근 의사는 약지가 잘린 손도장과 함께 ‘하루라도 글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는 뜻의 “一日不讀書口中生荊棘(일일부독서구중생형극)”이라는 글귀까지 남겼다.

그리고 멀티미디어계의 핵심 인물인 빌 게이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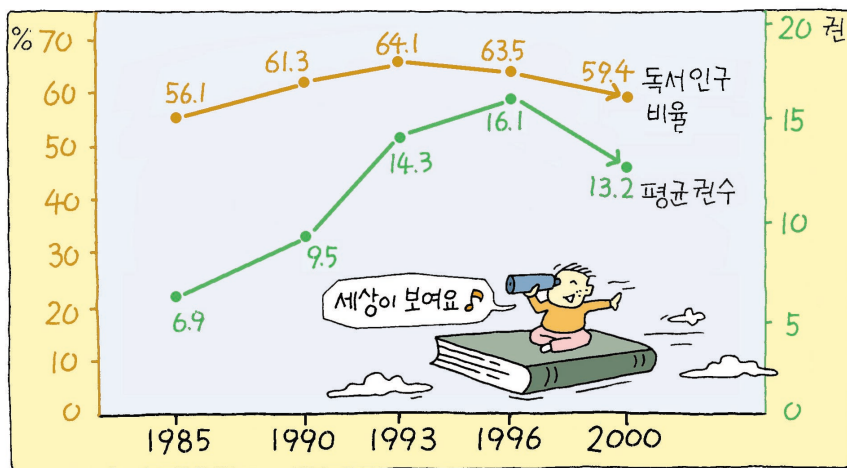
는 이렇게 말했다. “훌륭한 독서가가가 되지 않고는 참다운 지식을 갖출 수 없다. 멀티미디어 시스템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영상과 음향을 사용하지만 그래도 세부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최선의 방식은 책이다.” “나는 평일에는 매일 밤 1시간, 주말에는 3~4시간씩 책을 읽으려고 노력한다.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마을 도서관이었다.”

우리는 책을 얼마나 읽는가?

그런데 2000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 책을 읽는 사람은 59.4%로, 10명 중 책을 전혀 안 읽는 사람이 4명이나 되었다. 지금 여러분은 이 책을 읽고 있으니, 10명 중 6명의 책 읽는 사람 가운데 하나이다. 이들이 1년 동안 읽은 책은 평균 13.2권이다. 대체로 한 달에 한 권 정도 책을 읽은 셈이다. 그런데 1993년을 정점으로 독서하는 인구의 비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마도 인터넷의 발달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빌 게이츠처럼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마을의 도서관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은 얼마나 될까? 아마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도서관을 잘 찾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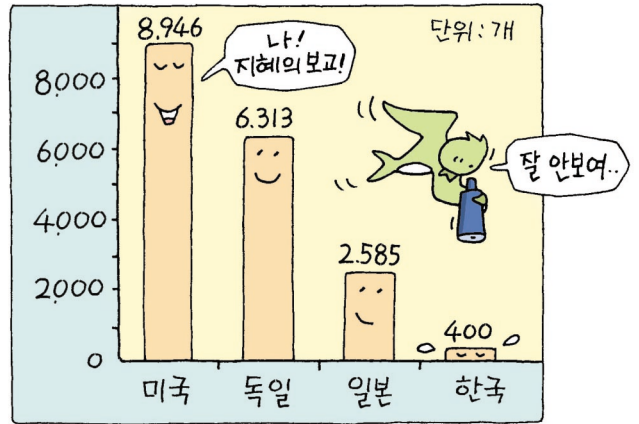
■ 독서인구 비율 및 독서량



* 주 :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독서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임
* 자료 : 통계청

지만, 우리나라에 도서관 자체가 적기 때문이기도 하다. 2002년 기준 우리나라의 도서관 수는 9,869개인데, 이중 9천 개 정도가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도서관이다. 실제 일반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은 800여 개이며, 이중 공공 도서관은 4백여 개밖에 안 된다. 전체 도서관의 열람석은 인구 100명당 2.5자리이고, 장서는 1명당 3.5권이다.

■ 나라별 공공 도서관의 수



* 자료 : 한국도서관협회

그러면 공공 도서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자. 국립 도서관을 포함한 공공 도서관이 400개 정도인 우리에게 비해 이웃 일본은 여섯 배인 2,585개, 독일은 열다섯 배인 6,313개, 가장 많은 미국은 8,946개이다. 인구 대비로도, 핀란드는 3천 명당, 독일은 3천9백 명당, 덴마크는 4천5백 명당, 그리고 미국은 2만 6천 명당 하나꼴이다. 우리는 어떨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 4천6백만 명에 공공 도서관이 400개니까 주민 11만 5천 명당 하나인 셈이다.

요즘 무슨 책 읽으세요?

나는 도시인의 도서관을 쉼터로 본다.

영혼을 쉬게 하는 삶터로 여긴다..

그곳에 들어서면, 조용한 표정과 미소가 있는 얼굴이 있다...

참고 자료를 찾는 탐구의 얼굴들이 있다.

삶을 살다 보면 의문이 생기고 '왜?'가 떠오른다. 이를 찾아보는 작업장이다.

그러기에... 생활을 부드럽게 하는 생활 공간이요, 삶터의 연장으로서의 쉼터이다.

도서관에 대한 유경환의 시이다. 파피루스로 종이를 만든 고대 이집트에서는 세계 최초

로 책을 보관하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만들었다. 이 도서관은 아르키메데스에게 부피 개념을 발견하고 “유레카!”라고 외칠 수 있는 기초 지식을 주었으며, 유클리드 기하학을 가능하게 했다. 오늘날 도서관은 우리에게 다양한 지혜를 주는 공간이다.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책 읽는 모습을 상상해 보자. “꿈꾸기 위해서는 눈을 감을 것이 아니라 읽어야 한다.”라는 미셸 푸코의 말은 도서관과 그 안에 담긴 책이 인간의 미래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한다.

우리 인간은 지혜와 지식을 책으로 기록하여 남길 수 있다. 직접 보지 않더라도 책을 통해 배워서 더 나은 것을 추구할 수 있다. 사람이 80년을 산다고 할 때 자신이 직접 경험하여 얻는 지혜의 양은 제한적이다. 하지만 책을 통하면 많은 것을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다. 책은 다른 사람의 경험을 자신의 경험으로 변화시켜 준다. 어쩌면 이러한 간접적인 경험이 바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리라.

책의 날에는 책을 읽어 보자

가장 책을 안 읽는 나라는 어디일까? 스페인이다. 재미있는 것은 ‘세계 책의 날’은 스페인에서 만든 기념 일이라는 점이다. 가장 책을 읽지 않기로 유명한 나라 스페인에서 독서를 장려하기 위해 만든 이 날은 카탈루냐 지방에서 전통적으로 책을 사는 사람에게 꽃을 선물했던 ‘상 조르디’의 날과 1616년 《돈키호테》의 작가 세르반테스가 죽은 날을 기념해서 만든 것이다. 전통적으로 스페인에서는 이 날을 기념하여 가까운 사람들에게 붉은 장미와 책을 선물한다.

국제출판인협회가 스페인 정부를 통해 유네스코에 이 날을 ‘세계 책의 날’로 하자고 제안하여 1995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통과된 이후, 여러 나라에서 매년 4월 23일을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 날을 기념하여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고려 팔만대장경이 완성된 10월 11일을 ‘책의 날’로 따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4월과 10월 두 번의 책의 날을 기념하여 1권씩만 읽어도 1년에 두 권을 읽게 되는 셈이다.

다양한 기념일을 갖기로 유명한 미국에서는 책의 날도 다양하다. 15세기 유럽에서 처음 인쇄술이 발명된 것을 기념하는 ‘세계 인쇄주간’이 1월 셋째 주이고, 20세기 영문학을 대표하는 비평가 리처드의 생일을 기념하는 ‘비평가의 날’이 2월 16일, 안데르센의 생일을 기념하는 ‘국제 어린이 도서의 날’이 4월 2일이다. 심지어는 사전을 만든 웹스터의 생일을 기념하는 ‘사전의 날’(10월 16일)도 있다.

사람을 만나면서 나누는 인사말은 그 사회의 특징을 보여준다. 가난해서 먹고사는 문제가 중요했던 때에는 ‘식사하셨어요?’가 인사말이었다. 문화와 정보의 시대인 요즘, 인사를 한번 바꿔 보자. ‘요즘 무슨 책 읽니?’라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 서로의 대화에서 문화의 꽃이 피고, 마음속에 지혜의 나무가 자라며, 우리 모두의 삶에 맑은 바람이 일어날 것이다.

‘당신, 요즘 무슨 책을 읽고 있나요?’

신유목민, 디지털 노마드의 삶



새로운 유목민이 등장하다

자신을 알리기 위한 명함에는 이름, 직장(직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이 적혀 있다. 먹고살기 위해 유목을 했던 최초의 인류가 명함을 가졌다면 아마 거기엔 이름만 덩그러니 있었으리라. 그러다가 정착하게 되면서 인류는 거주지를 갖게 되고, 단순히 ‘아무개’가 아니라 ‘어디에 사는 누구’로 새롭게 자신을 소개한다. 이 즈음의 명함엔 이름과 그가 확보한 주소가 있었으리라. 산업혁명 이후 직장이 가정에서 떨어져 나가고 직업이 분화되면서 인류는 ‘어디에 다니는 누구’라는 새로운 명칭을 하나 더 얻게 된다. 그리고 그는 명함에 이름과 맞먹는 크기로 직장을 적고, 주소는 구석으로 보낸다.

그리고 다시 인터넷 시대를 맞이한 그는, 먹을 것을 찾아 유목하던 조상과는 달리 정보와 관심거리를 찾아서 이메일이나 가상의 이름으로 가상 공간을 유목한다. 신유목민의 명함엔 무엇이 적힐까? 가상 이름(또는 이메일), 관심거리, 인터넷 동호회 주소? 최초의 인류가 먹이를 찾아 유목했듯 새로운 인류는 네트워크를 통해 필요한 관심이나 정보를 사냥한다. 이렇게 인류를 신유목민으로 살아가도록 만든 장본인은 바로 정보혁명의 시작을 이끌어낸 컴퓨터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PC)가 상용화된 것은 언제부터일까? 그것은 1981년 8월 12일, 한 컴퓨터 회사가 PC를 상품화시켜 판매하기 시작한 날부터이다. 이 날이 엄밀한 의미에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의 생일이자, 어떤 의미에선 전 인류에게 새로운 문명의 시작을 안겨 준 날이다. PC는 이제 20살이 넘어 성년이 되었다. 성년이 된 PC는 인

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지금 우리나라엔 각각 주소, 직장, 이메일을 강조하는 세 유형의 인류가 함께 살고 있다. 이들은 각각이 삶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만큼이나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다. 자신의 주소를 강조하며 농경민적 삶을 살았던 6070세대는 농사를 지으며 살아갈 땅을 갖는 것이 삶의 목표였다. 이들에게 중요한 인간 관계는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에 의해 이루어졌다. 직장이 자신의 삶을 규정하던

4050세대는 좋은 직장을 갖는 것이 삶의 가치였다. 그리고 이들의 인간 관계 또한 직장이나 직업과 관련된 사람들과의 일에 대한 의사소통이 주를 이루었다.

사이버 공간을 떠도는 새로운 유목민들의 삶은 어떤가? 이들은 삶을 한 공간에 한정하지 않을뿐더러 주소와 땅이라는 지역적 경계에 의한 삶의



컴퓨터에 관한 정보 몇 가지

- 1946년 최초의 컴퓨터인 에니악 탄생
- 1975년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 알테어 탄생
- 1982년 TCP/IP를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통신 규약)로 인정
- 1985년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우즈 개발
- 1992년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월드 와이드 웹(WWW) 등장
- 1997년 인터넷 호스트 3천만 개 돌파
- 2020년 즈음 DNA 칩 개발로 인공 지능 컴퓨터 탄생 예상



구분에 저항한다. 다른 나라의 전쟁에 반대하는 다양한 사람들, 세계화 반대 시위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라. 그들은 반듯한 직장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지 않으며, 관심과 흥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삶을 설계하고 꿈꾼다. 최첨단의 장비로 어떤 공간에서나 누구와도 자유롭게 소통한다. 그리하여 이 새로운 유목민은 디지털 장비로 무장한 유목민이라는 의미의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라 불린다.

우리의 디지털 노마드적 환경은?

디지털 노마드적인 삶을 우리는 어느 정도 살고 있는가? 2002년 기준 우리나라의 PC는 10가구당 6대꼴이다. 6세 이상의 인구 중 PC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10명 중 6명꼴이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자 수는 2001년 말 기준으로 아이슬란드, 싱가포르, 노르웨이, 스웨덴에 이어 세계 5위이며, 정보통신 관련 종합순위는 206개 조사대상 국가 중 7위이다. 전형적인 디지털 노마드의 환경을 누리고 있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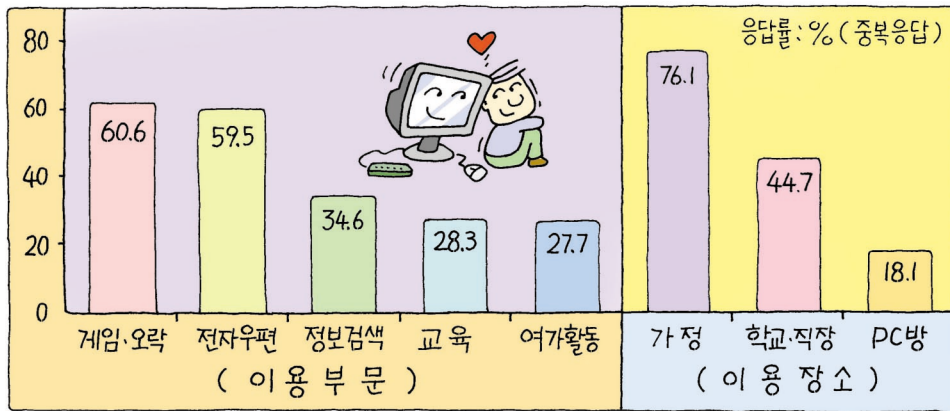
한 디지털 노마드의 삶

아씨가 움직일 때의 필수품 목록을 보자. 무선 인터넷이 가능한 노트북, 휴대전화 기능까지 있는 PDA, 손가락만한 크기의 외장형 하드디스크, LCD 프로젝트, MP3, 디지털 카메라.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를 외부와 주고받을 수 있는 것들이다.

컴퓨터를 켜 해외에서 온 이메일을 체크하는 것으로 그의 하루는 시작된다. 사무실에 도착하여 1시간 가량 운동 후 식사를 하고, 자동차 안에서 노트북, PDA 등을 이용해 프리젠테이션 내용을 준비한다. 점심은 비즈니스 관계자와, 저녁엔 가족 또는 친구와 시간을 보낸다. 친구는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만난 골프 동호 회원.

사람을 만날 땐 늘 무선 인터넷이 가능한 곳을 이용한다. 노트북과 PDA를 수족처럼 끼고 다니는 그는 어디든 앉기만 하면 이메일을 체크한다. 조깅을 하거나 걸을 땐 MP3를 듣고, 마음에 드는 장면과 맞닥뜨리면 디지털 카메라를 꺼내 든다. 그는 '빠르게 움직이면서 온라인을 통해 지구촌을 떠도는 디지털 노마드'인 셈이다.

■ 인터넷 이용 부문 및 장소



* 자료: 통계청

최초의 유목민이 수렵과 채집을 하면서 수많은 동물들의 습격을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노마드들도 습격을 받고 있다. 최초의 유목민들에게 자연환경이 위협이었다면, 새로운 디지털 노마드에겐 거미줄처럼 얽여 있는 무수한 네트워크가 위협이 되는 환경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해킹이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전산원이 발표한 2002년 자료에 따르면 해킹 사고는 전년에 비해 185%나 늘어난 1만 5,192건으로 집계되었다. 외국의 한 보고서에서도 '한국이 전 세계 사이버 공격의 온상'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다. 전 세계 해킹 공격의 12.8%가 우리나라에 있는 시스템에서 시작된다. 수많은 해커들이 우리나라 시스템을 통해 해킹을 시도한다는 것이다. 아마도 초고속 인터넷망이 가장 발달된 우리나라가 가장 매력적인 해킹의 공격 출발점인 것 같다.

또 다른 문제는 스팸 메일이다. 인터넷 이용자가 하루에 받는 이메일 중 80% 이상이 스팸 메일이라고 한다.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네티즌 1명당 하루 평균 스팸 메일 수신 건수는 2001년에는 4.7통에 그쳤으나, 2002년에는 34.8통으로 급격히 늘어난 데 이어 2003년에는 3월 말 현재 50통을 기록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음란 스팸 메일이 점점 늘어 2003년엔 전체 스팸 메일의 63%나 된다는 사실이다. 스팸 메일은 일상적인 메일 사용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일으키기 때문에 바이러스나 해킹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정보화에 따른 영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생활이 편리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73.3%나 되지만, 50.8%는 '사생활 침해가 늘었다', 26.6%는 '소외감과 비인간화를 많이 느낀다'고 하여 디지털 노마드로서의 삶이 그리 유쾌한 것만은 아님을 보여준다. TV의 한 CF에는 '마음을 이어 주는 따뜻한 디지털 세상'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네트워크는 사람들을 가로막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 지금 내가 디지털 기계로 인해 고립되고 있다면, 또는 다른 사람을 차별하거나 외면한다면 나는 진정한 디지털 노마드가 아니다. 나는 지금 컴퓨터와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세상과 접속하는 것이다. 디지털 노마드로서.



‘책을 많이 읽는다’에 두 가지 뜻이 있다고?



00 일보 사회

‘성인 독서율 감소했다’

2002년 8월 27일부터 9월 6일까지 전국(제주도 제외) 20세 이상 남녀 1천500명을 대상으로 독서 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 최근 1개월간 책을 읽은 경험을 측정하는 독서율은 43.9%로, 2000년 조사에서의 44.6%에 비해 약간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의
독서율이 정말
낮구나...



독서율이요?

그래... 한 달에 책을 1권 이상 읽는 성인 남녀의 비율을 월간 독서율이라고 하는데, 43.9%(2002년)밖에 안 된다는구나.



그럼 어른들은 반 이상이 한 달에 책 1권도 안 읽는 거네요?

우리는 날마다 책을 보는데...



준석이 네가 무슨 책을 날마다 봐?



우... 우린 공부하느라고 매일 보잖아요.

교과서는 책 아닌가요 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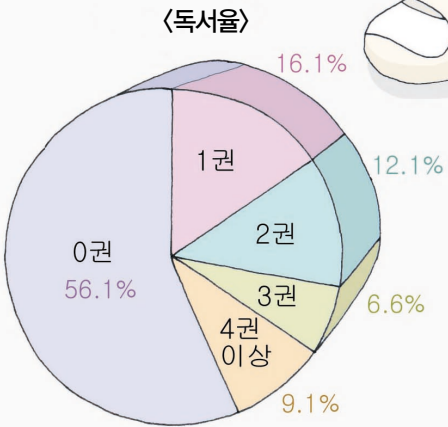




흠~ 그것도 봐 뒀지.

자아~ 여기를 보렴.

성인의 1개월간 독서량은 2000년 1.6권보다 줄어든 1.2권이었으며, 1권 읽는 사람이 16.1%, 2권 12.1%, 3권 6.6%, 4권 이상이 9.1%, 그리고 지난 한 달간 전혀 책을 읽지 않았다는 사람이 56.1%였다.



아까는 독서율 조사였는데 여기는 독서량이지?

예, 독서율과 독서량이 다른가 보네요?



그래, 독서율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있는지 알아보는 통계고, 독서량은 그 사람들이 책을 얼마나 많이 읽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통계란다.

아하~



똑같이 책을 많이 읽는다는 말에도 두 가지 뜻이 있군요.

그렇지.

그런데 이 독서량 통계만 보고 독서율을 계산할 수 있겠니?



그럼요!

흐흠~ 독서율은 책을 1권 이상 읽은 사람들의 비율이니까...



오케이~ 독서율은 43.9%예요!

1권 읽은 사람	16.1%
2권 읽은 사람	12.1%
3권 읽은 사람	6.6%
+ 4권 이상 읽은 사람	9.1%
합계	43.9%

호오?!



준석이 너 제법이다?



43.9%... 앞의 기사에 나온 독서율과 같구나.

하하하 푸! 하하하 푸! 하하하~

뭐 이 정도쯤은 누워서 꿀떡 먹기죠~!



어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럼 기사가 틀린 거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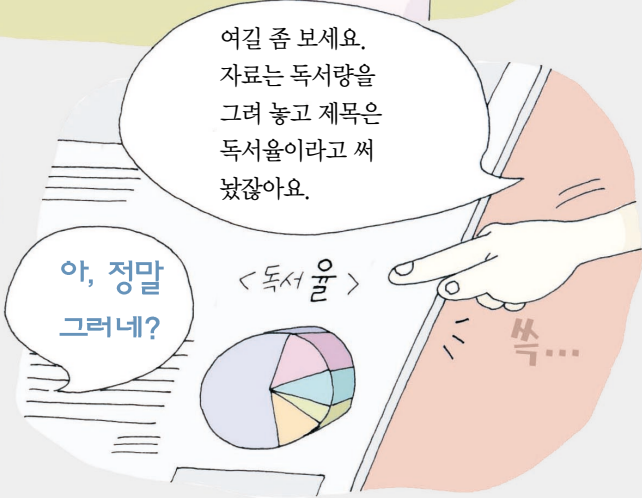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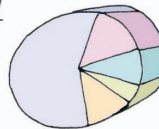


응? 뭐가?

여길 좀 보세요. 자료는 독서량을 그려 놓고 제목은 독서율이라고 써 놔잖아요.

아, 정말 그러네?

< 독서율 >





친구들, 통계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을 조사할지 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조사할 건지는 그 다음 문제지요.
 독서 실태를 조사하는 데도, 독서 인구의 비율이나 독서 권수를 조사한다고
 정하고 나니까, 그걸 재기 위해 성인 남녀, 한 달에 한 권 이상이라는 기준을
 세우게 된 거랍니다.
 이렇게 명확한 기준을 정하지 않고는 조사를 진행할 수 없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통계 조사를 제대로 하려면 용어를 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한 마디 끝~
 자, 이제 선물 사러
 가자꾸나.

으히히~♪
 뭘 사 주실
 건데요?

씨익~



당연하...
 책이지!

오늘은 책으로
 시작해서 책으로
 끝나는군...

끼응~



주 5일제 시대의 라이프 스타일



여가는 충격이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어느 신용카드 광고에 등장하는 이 문구는 현대 도시인의 욕망을 간명하게 담아 내고 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면서 여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노동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세계를 마음껏 호흡하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다.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들을 보면, 월급이 조금 적더라도 휴가를 많이 주는 직장을 선호하고, 특히 젊은 직장인일수록 돈보다 시간적 여유를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추세는 1990년대 이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걸맞게 여가 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최근 일부에서 시작된 주5일 근무제는 그러한 사회 변화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동 시간의

지속적인 단축, 고령화 등과 맞물려 앞으로 여가에 대한 관심은 개인적·사회적·산업적·정책적 차원에서 급속하게 높아질 것이다.

그런데 여가 시간이 늘어나면 무조건 좋기만 한 것인가? 우리는 여가를 제대로 즐기는가?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어느 정도 충분한 시간과 돈이 주어진다 해도 그다지 유쾌하게 여가를 즐



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연휴를 손꼽아 기다리다가도 막상 그때가 되면 빈둥대며 시간을 무료하게 허비할 때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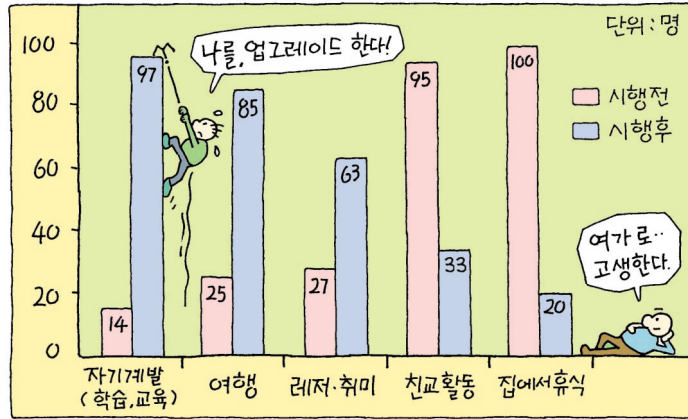
미래학자들은 21세기 인류가 당면한 중대한 문제로 '지루함'을 꼽는다. 물질의 풍요로움에서 오는 여유를 행복한 경험으로 채우지 못하고 무의미하게 허비하거나 쾌락에 빠져 소모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한국처럼 경제가 숨가쁘게 성장한 나라일수록 더욱 심각하다. 오로지 가난에서 탈출하기 위해, 그리고 더 잘살기 위해 혹독한 경쟁을 끊임없이 치르느라 마음을 온통하게 가꾸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떤 문화평론가의 말을 빌리자면 “한국은 축제 없이 일만 하는 나라, 일만 해도 쫓겨나는 나라, 쫓겨나도 제대로 놀지 못하는 나라”이다(이동연, <억압을 깨뜨리는 카니발의 불꽃!>, 《한겨레 21》, 2002. 6. 20).

이러한 상황에서 주5일제의 시행은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여가화—그것은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국제화와 정보화 등에 못지 않은 충격을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여가 쇼크’라는 말까지 만들어 냈다. 우리는 그러한 쇼크를 개인적·사회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여가를 제대로 즐기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적절한 공간 및 프로그램이 갖춰져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소양을 키워야 한다. 그 두 가지 모두에서 한국은 매우 빈곤한 실정이다.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현실이 더욱 열악하다는 점에 대해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다.

원래 우리 민족은 잘 노는 사람들로 소문이 나 있다. 역사 시간에 배웠듯이 고대인들의 축제는 다른 민족에게도 부러움을 살 정도로 화끈한 놀이판이었다. 한번 모였다 하면 상다리가 부러지게 먹고 마시고, 돌아가며 한 곡조씩 불러 대고, 흥이 나면 춤판까지 벌이는 풍속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시끌벅적한 잔치 분위기를 흔히 접할 수 있고, 외국에서도 한국인들이 가끔 걸쭉하게 노는 광경은 눈길을 끈다. 그런데 그렇게 놀기를 좋아하는 한국인들이 지금 정말로 휴일을 즐겁고 보람차게 보내고 있는 것일까?

■ 직장인의 주5일 근무제 시행 전후 여가 활용 선호도 비교



* 주 : 1인 2항목 응답, 총 220명 대상

* 자료 : 한솔교육

휴일이 하루 늘어난다면

주5일제 근무가 실시되면 우리의 생활은 어떻게 달라질까? 위의 통계는 주5일제가 시행되기 전인 현재 자신이 보내고 있는 여가 생활과 시행 후에 자신이 원하는 여가 생활을 대비시켜 보여주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현재의 여가 생활과 주5일제 실시 이후 보내고 싶은 여가 생활 사이에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우선 '집에서 휴식'이라는 항목을 보자. 지금 직장인들이 주말을 보내는 방식을 보면 대개 집에서 빈둥거리거나 낮잠을 자는 것, 아니면 텔레비전이나 비디오를 보는 것으로 때운다. 그런데 휴일이 하루 더 주어진다면 그러한 여가 생활을 가장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밀린 잠을 보충하거나 멍하니 텔레비전에 빠져들어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친교 활동'이라는 항목을 보자. 친교 활동에는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친구들을 만나 식사하고 술을 마시는 것이 주를 이룬다. 2002년 어느 기관에서 사무직 직장인 3,600명과 영업직 1,740명을 대상으로 퇴근 이후 술 마시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조사한 적이 있다. 그에 따르면 직장인 4명 가운데 1명은 일주일에 10시간 가량을

술자리에서 보내며, 특히 영업직의 경우 10명 가운데 4명이 10시간 가량 술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한국의 술 소비량은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한다. 그러나 주5일제 시대에는 이러한 술자리도 조금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 대신 레저나 취미 쪽의 여가활동이 새롭게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개인적으로 추구할 수도 있지만, 동호회 활동의 방식으로 이뤄질 수도 있다. 젊은 세대일수록 구태의연한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그들만의 공통된 관심이나 취향에 따라 여가활동을 즐기려 할 것이다. 일부 직장에서 술 마시는 회식 대신 문화 행사를 관람하고 간단하게 식사를 하는 식으로 분위기를 바꿔 가는 것도 그 한 예일 것이다.

다른 한편 주5일제가 되면 여행을 떠나고 싶다는 대답이 꽤 많이 나오고 있다. 답답한 도시 공간을 벗어나 자연의 풍광을 느긋하게 즐기고자 하는 욕구가 큰 것이다. 이미 그러한 경향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그것을 위해 너무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데 있다. 주말이나 연휴 때가 되면 수많은 자가용들이 도시를 한꺼번에 빠져나갔다가 들어오느라 평일보다 훨씬 더 극심한 교통 정체에 시달린다. 뿐만 아니다. 해마다 휴가철이면 방송 보도를 통해 자주 보게 되는 장면들이 있다. 문란한 행락 질서로 짜증 나는 유명 휴양지들, 거기에 마구 버려진 쓰레기 더미, 어김없이 기승을 부리는 바가지 요금... 이는 즐거운 여가 사회로 가기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다.

이 통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자기 계발'이라는 항목이다. 실제로 이미 주5일제를 도입한 회사의 직장인들은 자격증 취득이나 외국어 공부에 여가 시간을 투자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는 배움에 대한 열망이라기보다는 기업의 환경 변화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는 공부해야 살아남습니다." 인터넷으로 성인들의 학습을 지원하는 어느 회사의 광고 문구이다. 예전처럼 일자리가 안정되게 보장되지 않고 끊임없이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교육은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진다.



주5일제 수업의 의미

그러나 여가 시간을 승진이나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부로만 채운다면 참으로 지루한 일이다. 배움은 무엇을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도 즐거운 정신 활동이 될 수 있다. 놀이와 학습이 만날 수 있는 지점은 매우 넓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학습에 대해 강렬한 호기심을 가졌고, 그것을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다양한 놀이 행동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학습과 놀이는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영어의 'school'은 라틴어 schola, 고대 그리스어 schole에서 온 것인데, 그 뜻은 '한가로움'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의 학교는 그러한 여유를 잃어버렸고 그 결과 정신의 활

력은 사라지고, 아이들은 왕성한 호기심을 마음껏 표현하지 못한다.

교육 개혁은 세계 모든 선진국의 공통 과제다. 그 핵심은 학생들에게 스스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실마리를 오히려 학교 바깥에 있는 다양한 현장에서 찾고 있다. 주5일제 수업은 바로 그러한 흐름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그를 위해서는 사회에 학습 여건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

일본은 1992년부터 주5일제 수업을 월 1회, 월 2회로 확대하다가 2002년부터 매주 시행하고 있다. 한국보다 훨씬 긴 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하는데도 기반이 충분히 조성되지 않아 곤혹을 치르고 있다. 주말에 아이들이 학교 이외의 공간에서 뭔가를 배울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럴 수 있는 준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이다. 그 결과 무료하게 집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부모가 출근하여 아무도 없는 집에서 텔레비전과 전자오락에 빠져드는 아이



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사설 학원에서 학교보다 더 버거운 주입식 공부에 시달리는 아이들도 많다. 그래서 차라리 학교에 가고 싶다고 말하는 아이들도 있다. 친구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는 오래 전부터 교회나 자원봉사 시스템 등이 마련되어 있어 아이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도시 주변에 자연이나 공원이 비교적 많아 자연 학습이나 캠핑 같은 것도 쉽게 할 수 있다. 다양한 민간단체가 그러한 프로그램을 주관한다. 그리고 박물관이나 콘서트장 같은 문화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어 비싼 입장료를 내지 않고서도 고급 문화를 즐길 수 있다. 물론 입시에 대한 부담이 우리처럼 크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학교가 감당해야 하는 몫이 그다지 버겁지 않고, 아이들은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다양한 배움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다.

주5일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주5일제 시대를 맞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배움의 즐거움을 깨닫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분위기다. 도서관이나 학원 같은 곳이 아니라도 학습이 이뤄지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동네의 빵집 아저씨가 아이들을 불러모아 제과에 대해 가르쳐 주고, 왕년에 연극 배우였던 이웃집 아줌마가 청소년 극단을 꾸린다. 도시의 강을 모니터링하면서 생태학을 공부하는 시민 모임에 10대들이 참여하고, 비디오 대여점을 중심으로 영화를 좋아하는 주민들이 토론하고 영화도 만드는 네트워크가 생겨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지역 축제를 꾸민다.

과연 꿈 같은 이야기일까?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그리고 조금만 힘을 모으면 우리의 생활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늘어나는 여가 시간이 권태로움이나 요란한 유흥의 장이 되느냐, 아니면 유쾌한 만남과 배움의 장이 되느냐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 주5일제 근무와 주5일제 수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나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가족과 함께 이야기해 보자.

숫자가 말하는 여성의 일생



프롤로그 [3F] 21세기에는 3F, 즉 Fiction(상상력), Feeling(감성), 그리고 Female(여성), 그 중에서도 여성이 중요하다고 한다. 2002 한일 월드컵 경기 기간에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의 광장과 경기장에 태극기를 두른 사람들,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의 응원 열기, 그 열기를 이끌어낸 길거리 응원단, ‘오! 필승 코리아’를 목청껏 외쳤던 목소리의 절반이 여성이었다. “짜릿짜릿해요!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어요.” 2002년 6월, TV 카메라 앞에서 ‘짜릿짜릿’을 외치던 이 땅의 여자들의 삶을 숫자에 담아 보자.

출생 즈음 [100 : 112] “내 짝이 같은 남자라서 너무 싫어요. 나도 여자와 짝 했으면 좋겠어요.” “남자들끼리 있는 우리 반을 홀아비반이라고 놀려요.” 남자가 더 많이 태어난다는 것은, 단순히 학교에서 짝이 모자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남자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를 만큼 사회 문제를 낳고 있다.

자연 상태의 성비는 103~107이다. 여자 100명당 남자가 103~107명이 태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9세 이하의 성비는 112이다. 짐작하듯이 태어나기도 전에 남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세상에 나오지 못하는



여자 아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셋째의 성비가 140을 넘는다는 점에서 이 혐의는 농후하다. “예쁜 공주님입니다.”……“또 딸이야.” 여자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남자에 비해 아직도 덜 환영받는 존재이다.

학교 다닐 즈음 [1970년 25% → 2001년 37%] “제가 태어날 때 주변 분들이 첫딸은 살림 밑천이라고 하셨대요.” “형제 중 맏딸인 저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공장에 취직해서 남동생의 학비를 벌 수밖에 없었어요.” “남동생들은 모두 대졸인데 여자인 저만 중졸이라 좀 창피해요.” 요즘엔 이런 일은 거의 없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성별에 관계없이 대부분 고등학교에 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어떤가? 1970년 25%에서 2001년에 37%로 여대생의 비율이 많이 높아졌지만, 아직도 대학 생활을 꿈으로만 간직한 여자들이 많다. 특히 석·박사 과정은 4명 중 1명만이 여자여서, 남학생과 여학생이 같은 수가 되려면 아직 멀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전공 선택이다. “여자가 사대나 교대 나와서 선생님 하면 얼마나 좋아.” “여자가 공대 가서 뭐 하려고 그러니?” 아직도 이런 의식이 많아 여대생들은 사범계와 인문계에 주로 몰리고, 자연과학계나 공학계에는 거의 없다. 이처럼 치우친 전공의 선택은 생물학적 차이 때문일까, 아니면 사회적 편견의 결과일까?

취업할 즈음 [-3 → -36] “미스 김, 여기 커피 한 잔.” “미스 박, 요번에 결혼하면 회사 그만두는 거지?” 여성을 ‘직장의 꽃’ 정도로 생각하고 커피 심부름 등 굵은일을 시키다 결혼과 함께 그만두게 했던 과거의 직장 생활과 달리 이제는 직장 여



성이 일반화되었다. 여성의 절반 정도가 사회 생활을 하는 요즘 커피 심부름을 하는 일은 없어졌지만, 직장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는 여성은 거의 없다. "육아 휴직하는 게 눈치 보여요." "내가 사장이라면 능력이 같을 경우 남자를 뽑을 거예요." "기획실이나 총무과 같이 일명 핵심 부서에는 여사원을 잘 안 보내요." "저보다 후배인 남자들이 먼저 승진하는 것을 보면 그만두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과거처럼 '미스터 김'과 '미스 김'으로 구분하지 않고, 남녀 모두 '김 대리'로 불리지만 아직도 업무나 승진에서 성차별을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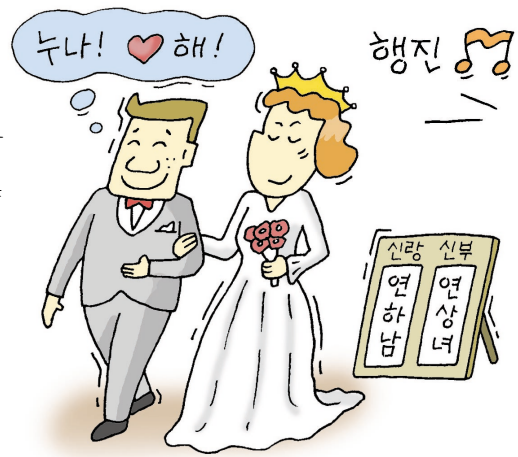
차별의 초점은 임금의 차이이다. 예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남자의 임금을 100으로 할 때 여자는 보통 64를 받는다. 남자가 더 많이 일하기 때문일까? 꼭 그렇지는 않다. 남자가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이 100이라면 여자는 97이다. 근로 시간 차이는 -3에 불과하지만 임금의 차이는 -36인 것이다. 이것은 대체로 전문직이나 정규직으로 일하는 여자들이 적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변화가 일고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어느 기업이든 대졸 여자 신입사원을 찾아보기 힘들었지만 요즘은 서너 명 중 한 명이 여성이다. 특히 닷컴 기업은 거의 절반이 여자다. 아직 논의 중이긴 하지만, 고위직 공무원의 일부를 여성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면 여자들의 직장 생활은 더 달라지지 않을까?

우리나라 최초의 대졸 여사원 공채는?

최초의 여사원 공개 채용은 1986년 11월 대우그룹에서 이루어졌다. 여성 대학 졸업자나 대학원 졸업자 및 경력자를 대상으로 인문계 100명, 이공계 100명으로 총 200명을 모집하였는데 26 대 1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인기였다. 당시 처우는 대졸 남자 초임이 32만 원이었던 반면, 대졸 여자 초임은 30만 원으로 약간 차이가 있었다. 근무 시간은 일반 직원과 동일했고, 결혼 후에도 근무를 원할 경우 동일한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명시가 있었다.

결혼할 즈음 [27.0세] "결혼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은 별로 없어요. 나 자신을 잃지 않고 살도록 해 주는 남자를 만나면 달라질지도 모르지만요." "결혼적령기가 있나요.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가 적령기죠."

여자들 사이에서 꼭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이 줄고 있으며, 실제로 결혼하는 사람도 계속 줄어든다. 15세 이상의 여자를 100명이라고 하면 61명은 결혼에 찬성하고, 3명이 결혼에 반대하며, 34명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고 하고, 2명은 잘 모르겠다고 한다. 실제로는 25명이 결혼하지 않았고, 60명이 결혼하여 남편과 살고 있으며, 13명은 사별했고, 2명이 이혼하고 혼자 산다.



결혼 적령기는 사라졌다고 하지만 평균적으로 27살에 자신보다 3살 정도 나이가 많은 남자를 만나는데, 이제는 이것도 달라지고 있다. “친구의 누나를 만났다.” “누나 사랑해.”라는 광고를 증명이라도 하듯 연상녀+연하남 커플이 늘어나고 있다. 재혼녀+초혼남 커플 또한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연상녀+연하남’, ‘재혼녀+초혼남’ 커플이 점차 많아지는 것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사회가 개방되어서일까? 아니면 과잉보호 속에 자란 남성들이 모성 회귀 본능에 따라 계속 여자에게 보호받기를 원해서일까?

아이 낳고 가족을 이룰 즈음 [1.17] 아이 없이 맞벌이하는 DINK(Double Income No Kids)족이 늘어난다. 아이를 두고 맞벌이하는 DewKs(Dual-employed with Kids)족도 아이는 대부분 1명이다.

예술 관련 사업을 하는 최씨 부부는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결혼 때의 약속대로 아이를 갖지 않았다. 최씨 부부의 생활은 완벽한 부부 중심이다. 아이가 없으니 동호회 등 취미활동이 많은 편인데, 서로의 여가나 사생활에 대해 간섭을 하지 않는다. “아내라기보다는 여자 친구, 배우자라기보다는 인생의 동반자죠. 후회는 없어요. 입양도 생각하지 않아요.”



맞벌이 부부의 가장 어려운 점이 육아 부담이라는 점에서 덩크족이나 1명의 아이를 둔 듀크족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인지 2002년 현재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는 아이의 수(이를 합계출산율이라고 한다)는 1.17명으로, 30년 전에 비하면 3명이나 줄어들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집에서 고시를 준비하는 김모 씨는 회사에 취직한 여자 친구와 결혼한 지 2년이 지났다. 그들에게는 가사 분담이나 부부 생활에서 남녀 차이가 없다. 김씨가 청소와 설거지를 맡고 부인인 박씨가 요리, 빨래, 세금 납부 등을 맡고 있다. 이들의 지출 내역 중 비교적 아낌없이 쓰는 항목은 문화비와 외식비이다. 이들 부부는 미래를 위한 저축보다 현재의 행복에 가치를 둔다. 아이 문제는 차차 생각해 볼 예정이다.

맞벌이 가정이 많아지면서 가사 분담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그럼에도 2시간 이상 걸리는 음식 준비를 비롯한 가사일에 전업 주부는 하루 평균 6시간 43분, 맞벌이 주부는 3시간 45분을 소비해야 한다. 가사를 분담하는 가정이 많아지고는 있지만 결혼한 여자는 여전히 직장과 가정에서 온 힘을 다해야 하는 형편이다. 직장과 가정일을 다 잘해야 하는 슈퍼우먼의 굴레를 벗고 인격을 가진 평등한 한 사람의 가족 구성원으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야 할까?

60세를 넘길 즈음 [79.22] 수명이 그리 길지 않았던 예전에는 60세를 환갑이라고 하여 잔치를 할 정도로 노인에 대해 경외와 공경을 표했다. 그러나 요즘의 60세는 아직 청춘이다. 특히 여자의 60세는 더욱 그렇다. 남자의 기대수명은 71.71세인 데 비해 여자들은 79.22세로 평균 80세까지 살 수 있다. 당연히 여성 사망률을 100으로 볼 때 남성은 124로 출생 때와 완전한 역전을 이루며, 그래서 사별하고 홀로 사는 할머니들이 많아진다. 그러나 오래 사는 것이 큰 행운은 아닌 것 같다. 그들의 반 이상은 자녀와 같이 살면서 자녀의 봉양을 받지만, 실제로는 손자를 키우는 경우가 많다. “몸에 기력이 빠져서 손주놈 봐주는 것도 힘들어. 그래도 어떡해. 젊은 것들 맞벌이한다고 고생하는 것 생각하면 내가 키워 줘야지.” “외손녀 키우느라 친구랑 꽃놀이 한 번 못 가 봤어. 그런데 손녀들 다 키우고 나니, 내 몸 움직이기도 힘들어. 평생 가족 뒤치다꺼리하다 내 인생 끝나는 것 같아.” 또한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앓거나 주변 사람의 도움 없이는 거동이 불편한 경우도 많다. 험난한 출생 경쟁을 뚫고 치열하게 이 땅에서 살아온 이 강인한 할머니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

에필로그 [29, 61] 유엔개발계획(UNDP)이 경제적·정치적 참여와 의사 결정 등 분야의 양성 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여성권한척도’에서 우리나라는 64개국 중 61위를 차지했다. 반면에 남녀간의 취학률, 문맹률, 평균 수명 등의 차이를 고려한 ‘남녀평등지수’에서는 146개국 중 29위였다. 이는 이 땅의 여자들이 평등한 삶을 위한 조건은 어느 정도 갖추었지만 사회적으로는 차별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딸은 아들의 반대말이 아니에요. 같은 형제자매라구요.” “여자와 남자 모두 똑같은 인간이지요.” “여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데, 다 같이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한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의 미래를 예측한 한 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에 강대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여성 인력의 활용이 결정적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톱 10 국가’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한국의 미래는 여성에게 달려 있다. 그대 여성들, 그들을 누이와 아내

222 그대 남성들, 준비되었는가?



나와 같은 성(姓)을 쓰는 사람은 얼마나 되나?



“가가 가가?” “그 아이가 가씨가 맞느냐?”라고 하는 경상도 사투리다. 그런데 가씨가 정말로 있을까? 있다. 한자로 賈라고 쓰는 가씨는 9,090명이 있다. 가씨가 있다면 가나다순으로 가장 뒤에 오는 성씨는 무엇일까? 흥(興)씨가 답이다. 흥씨는 현재 462명이 있다. 우리나라의 성은 이렇게 가씨에서 흥씨까지 모두 286개가 된다. 이는 중국의 2,600개, 그리고 10만 개나 되는 일본에 비하면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

“이름도 성도 모른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말이다. 그런데 이 표현은 언제부터 사용했을까? 그것을 알려면 먼저 성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를 알아야 한다. 주변 친구들을 보더라도 이름은 순 우리말인 경우에도 성은 꼭 한자인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모든 성이 한자로 되어 있는 걸 보면, 중국의 한자 문화가 들어온 이후 성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오래된 성에 대한 기록은 삼국시대의 것이다. 고구려의 시조 주몽이 나라를 세워 ‘고구려’라 하면서 자신의 성을 고씨(高氏)라 하였고, 백제를 세운 온조(溫祚)도 부여 출신이라 하여 자신의 성을 부여씨(扶餘氏)라 하였다. 신라의 박(朴)혁거세는 박처럼 생긴 알에서 나왔다 하여

금실라와 은아리영의 성은 정말 있는 것일까?

한때 인기를 누리던 모 방송국의 드라마 ‘인어 아가씨’를 보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성이 금씨와 은씨이다. 정말 이런 성이 있을까? 답은 ‘예’. 하지만 이들이 며느리와 시어머니로 만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짝이라고 쓰는 금씨는 현재 23,489명이고, 殷이라고 쓰는 은씨는 15,657명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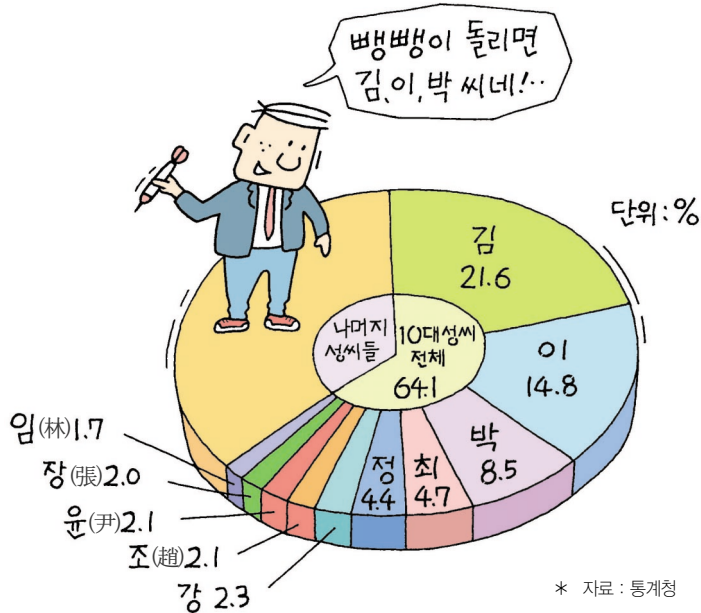
박의 음을 따 성을 만들었고, 김알지는 금궤에서 나왔다고 하여 성을 김(金)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역사 문서를 보면 삼국시대 초기부터 성을 사용한 것은 아니다. 고구려는 장수왕 때(재위 413~491)부터 고씨(高氏) 성을 썼고, 백제는 근초고왕 때(재위 346~375)부터 여씨(餘氏)라 하였다가 무왕 때(재위 600~641)부터 부여씨(夫餘氏)라 하였고, 신라는 진흥왕(재위 540~576) 때부터 김(金)이라는 성을 사용하였다.

삼국시대에는 대부분 왕족이나 귀족만 성을 가지고 있었고, 고려 때는 평민들까지, 그리고 조선 후기에야 천민들도 성을 가지게 되면서 모든 사람이 성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말할 때 ‘이름도 성도 모른다’ 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조선 후기에나 가능했던 일이라 할 수 있다.

“서울에서 김 서방 찾는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찾기 어렵다는 표현을 할 때 사용하는 말이다. 이 외에도 “촌놈 성은 김가 아니면 이가다.” “김씨가 한몫 끼지 않은 우물은 없다.”라는 표현도 있다. 이걸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성은 ‘김씨’ 일 가능성이 크다. 정말 그럴까?

조사에 의하면 김(金)씨가 최대의 성으로 993만 명 정도가 사용하여 5명 중 1명꼴(21.6%)이며, 그 다음으로는 680만 명으로 7명 중 1명꼴(14.8%)인 이(李)씨, 그리고 390만 명으로 12명 중 1명꼴(8.5%)인 박(朴)씨이다. 이들 김, 이, 박씨를 합하면 2천만여 명으로 우리나라

■ 우리나라 10대 성씨의 비율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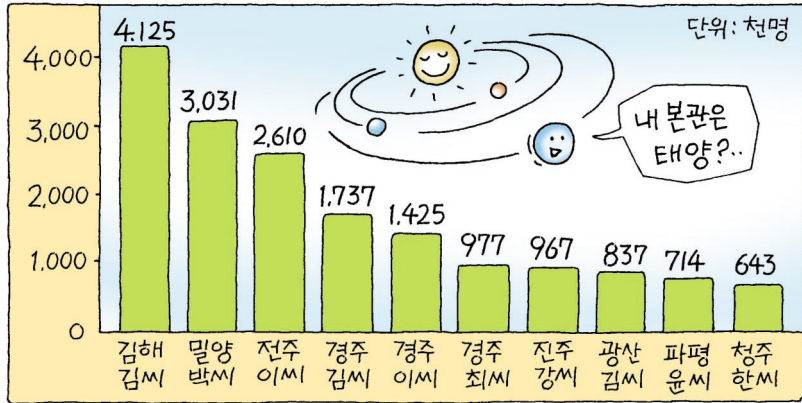


사람 중 2명에 1명은 '김, 이, 박' 씨다. 이 성 외에도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성씨로 최(崔, 4.7%), 정(鄭, 4.4%), 강(姜, 2.3%) 씨 등이 있다.

그럼 가장 적은 성은 무엇일까? 혹시 주변에서 예(兪)씨나 삼(杉)씨, 즈(汁)씨를 만나 본 적이 있는가? 이 성씨들처럼 인구 100명 미만이 사용하는 성씨는 이들 외에도 경(京)씨, 우(宇)씨 등을 합쳐 42개나 된다. 그 다음으로 인구 1천 명 미만의 희귀 성씨는 40%이며, 인구 1만 명 미만 성씨는 179개로 전체 286개 성씨의 63%에 이른다.

“너는 어디 〇씨냐?” 어른을 만나 성과 이름을 밝히고 나면 뒤를 이어 듣게 되는 질문이다. 본관을 묻는 것이다. 본관은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일까?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면서 성만으로 같은 혈족을 구별할 수가 없게 되자, 조상의 출신지 또는 씨족의 거주지와 같은 지명을 성 앞에 붙여 사

■ 본관별 성씨 인구 (2000)



* 자료 : 통계청

용하면서 본관이 생겼다. 고려 초에 만들어진 본관은 처음엔 신분의 표시로 주로 지배층에서만 사용되다가, 나중에 일반인도 호적에 본관을 기재하게 되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본관은 ‘경주’ 이고, 그 다음으로 ‘진주’, ‘전주’ 순이다. ‘경주’ 라는 본관을 사용하는 성씨는 87개이고, ‘진주’ 라는 본관을 사용하는 성씨는 80개, ‘전주’ 라는 본관을 사용하는 성씨는 75개이다. 실제 사람 수로 보면 ‘경주’ 본관을 가진 인구가 482만 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 ‘김해’ 를 본관으로 한 43개 성씨가 449만 명으로 뒤를 잇는다. 성씨와 본관을 합쳐서 살펴보면 ‘김해 김씨’ 가 413만 명으로 11명 중 1명꼴(9.0%) 로 제일 많다. 그 다음으로는 15명에 1명꼴인 ‘밀양 박씨(6.6%)’, 18명에 1명꼴인 ‘전주 이씨(5.7%)’ 순이다.

“성을 갈겠다.” 조선시대 이래로 모든 사람들이 성을 갖게 되면서 ‘성(姓)은 바뀌지 않는다.’는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 온 우리나라에서 굳은 맹세나 약속을 할 때 사용하는 말이다. 이때의 성은 아버지(父)의 성씨를 말하며, 여자들은 혼인하더라도 자신의 아버지 성을 그대로 유지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성을 바꾸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성을 갈겠다는 것은 목숨을 거

는 것과 같은 강한 맹세인 것이다. 그런데 정말로 성(姓)을 가는 경우는 없는 걸까? 실제로 성씨가 완전히 다른 집안에 입양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서 성을 바꿀 수 없다. 이 ‘성 불변의 원칙’은 세계에서 보기 드문 것으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혈연적 집단 의식과 뿌리깊은 성씨 의식, 그리고 부계 혈족주의를 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부계의 성을 따르는 이 원칙에 맞서는 몇 가지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 신문이나 방송에 출연하는 사람들 가운데 조한○○, 강이○○ 등 이름이 4자인 사람들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예전처럼 아버지의 ‘성’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성까지 같이 쓰자고 하는 ‘부모 성 함께 쓰기 운동’을 하는 것이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아버지[父]의 성으로 되어 있지만 사회적 운동 차원에서 하는 것이며, 이런 활동을 통해 부계 혈족주의의 폐해를 공론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부모 성 함께 쓰기는 세대가 지날수록 성이 길어지거나, 다음 세대엔 결국 양가의 아버지 성만 따르게 되는 문제가 있다.

그런가 하면 부계 중심의 성을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성 불변의 원칙’을 바꾸자는 운동도 있다. 현재의 ‘성 불변의 원칙’에 따르면, 재혼한 엄마를 따라 새아버지와 사는 아이들은 전 아버지의 성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한가족인데도 성이 달라 상처를 받거나 놀림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필요한 경우에 성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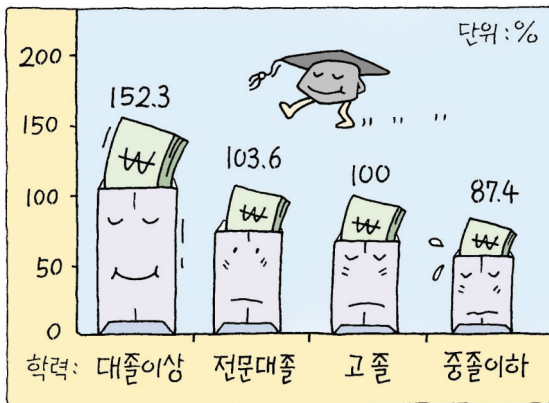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예 성을 사용하지 말자는 움직임도 있다.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이름인 ‘하늘’, ‘별’과 같이 그냥 부를 수 있는 자신의 이름만 사용하자는 것이다.

이것들은 모두 성이나 본관 제도가 과거 신분 중심주의의 잔재요, 부계 혈족주의의 폐단이라고 보고 시정해 나가려는 움직임들이다. 이런 움직임들에 의해 성을 자유롭게 선택하게 되거나 성이 없이 살게 되는 세상이 온다면, ‘성을 갈겠다’는 표현도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 또 자신만의 독특한 성을 사용하여 이 세상에 유일한 성을 가진 사람들도 나오게 되지 않을까?



맹모삼천지교가 집값을 올린다?

■ 학력별 임금수준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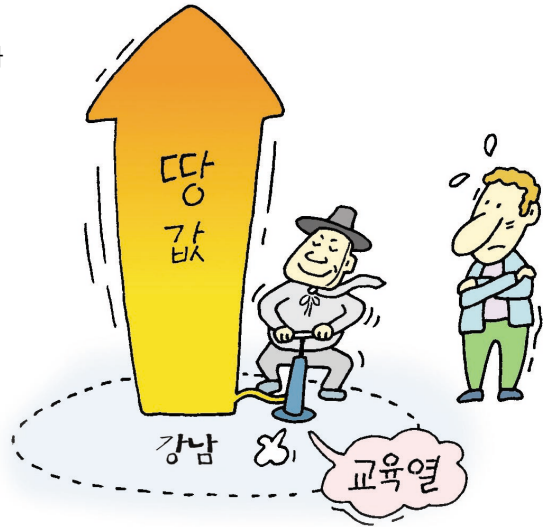
* 자료 : 노동부

우리나라에서 학력별 임금 차이는 얼마나 될까? 꼭 그렇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임금 또한 높다. 그러다 보니 부모들은 누구나 자식들을 대학에 보내고 싶어한다. 하지만 부모가 원한다고 자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닌 법.

맹자 어머니에 관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공동묘지 근처에 사니 장례 지내는 흉내를 내며 놀고,
 시장 근처에 사니 장사꾼 흉내만 내며 놀고,
 마침내 서당 근처로 이사를 하였더니 글을 열심히 읽어
 맹자가 마침내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는.



현대의 부모들은 맹자 어머니의 고사를 따라
 대학 진학을 많이 시키는 학교들이 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하고 싶어한다.
 그러다 보니 이들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집값이 훨씬 비싸진다.
 교육열이 집값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런 현상은 바람직할까?
 경쟁을 부추겨 사교육비만 더 늘어나게 하는 건 아닐까?
 그 지역으로 이사갈 수 없는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무조건 대학에 가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맞는 일,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구정화 (flower9@ginue.ac.kr)

1966년에 경남 함안의 작은 면소재지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사회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 동안 중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연구하기도 하였으나, 아직도 이 땅의 청소년들을 잘 모르겠다고 생각한다. 《논쟁문제 교육의 이론과 실제》, 《지식과 사고》와, 고등학교 《사회문화》교과서,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만드는 일에도 관여하였다. 현재는 인천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교육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함께 하는 시민 행동’이라는 시민 단체에서도 활동하고 있으며,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사람’, ‘사랑’, ‘삶’, ‘확평’이며, “지혜로운 자는 적은 힘으로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이 책에서는 〈이사를 몇 번 더 가야 우리 집이 생길까?〉, 〈민주주의를 위한 밑거름, NGO〉, 〈%로 만드는 큰 세상〉, 〈우리의 이웃, 외국인 노동자〉, 〈소년 소녀 가장은 줄고 있는가〉, 〈새로운 가족, 애완동물〉, 〈외모지상주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우~ 간식에 살고 간식에 죽고...〉, 〈지금 무슨 책 읽고 있나요?〉, 〈신유목민, 디지털노마드의 삶〉, 〈숫자가 말하는 여자의 일생〉, 〈나와 같은 성(姓)을 쓰는 사람은 얼마나 되나?〉를 썼다.

김찬호 (chan-ho7@hanmail.net)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거기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일본 오사카대학의 객원연구원으로 재직하였다.

저서로 《여백의 질서》, 《일본 대중 문화론》, 《사회를 보는 논리》, 《도시는 미디어다》가 있으며, 번역서로 《작은 인간》, 《이런 마을에서 살고 싶다》 등이 있다.

현재 연세대학교에서 문화인류학·문화사회학·환경사회학 등을 강의하고 있으며, ‘서울 YMCA’, ‘녹색소비자연대’ 등의 사회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서울시대교육센터에 가면 오늘도 청소년들과 함께 부대끼고 있는 그를 만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안 쓰는 물건과 선물의 관계〉, 〈우리에게 자동차는 무엇인가?〉, 〈우리의 평균 수명은 얼마나 될까?〉, 〈우리 나이 일흔엔...〉, 〈외국인의 눈에 비친 한국인〉, 〈만일에 한글이 없었다면?〉, 〈주5일제 시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썼다.

서범석 (trsbs@hanmail.net)

1974년 충남 공주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고등학교 《사회문화》교과서 만드는 일에 참여하였으며, 현재 계성여자고등학교에서 사회를 가르치고 있다.

학생들과 교감하며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이 책에 실린 글들을 감수해 주셨다.



안병근(ahn33@yahoo.co.kr)

1958년 경북 영주에서 태어났다.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일반사회교육과를 졸업하고, 거기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때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경험이 있으며, 어렵고 딱딱한 경제학을 재미있고 쉽게 가르치는 데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고 있다.

저서로는 《사고 중심의 경제학 강의》, 《알기 쉬운 교양 경제》(공저)가 있으며, 현재 공주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항상 깨어 있는 자각 정신으로 현재를 살고자 하며, 거문고 수련과 시조창을 즐긴다.

이 책에서는 <왜 박지성은 대학을 그만두고 일본 프로 축구팀으로 갔을까?>, <스프링북과 오유지족>, <학생들에게 휴대폰은 필수?>, <신용카드가 사람 잡네>, <과거는 과거일 뿐!>, <조삼모사? 조사모삼?>, <사랑은 영원할 수 있을까?>, <아이를 낳으세요, 돈을 드립니다>, <소독으로 본 난쟁이와 키다리>, <말발이 왜 사라졌을까?>,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 어디 갔나?>, <베트남 신부와 결혼하세요>, <맹모삼천지교가 집값을 올린다?>를 썼다.

이기원(kwlee@hallym.ac.kr)

1958년에 태어나서 25년 동안 서울에서 살았다. 서울대학교 계산통계학과를 졸업하고, U.C. Berkeley 통계학과에서 이학박사를 받았다.

저서로 《인터넷 시대의 생활 속의 통계학》이 있으며, 현재 아름다운 호반의 도시 춘천에 있는 한림대학교의 정보통계학 전공 교수로 있다. 캥거루가 뛰어 노는 호주 캔버라의 호주국립대학을 여러 차례 방문하였고, 캐나다에 있는 국립 수자원연구소에서 일한 적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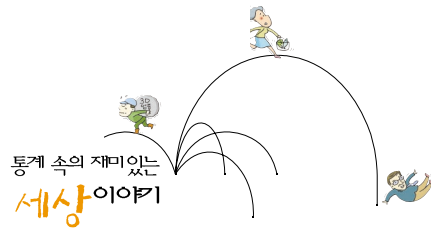
1998년 2월부터 약 1년간 대학의 정보전산원장을 맡았었고, 2000년 3월부터 현재까지는 대학의 발전계획과 예산 운영을 담당하는 기획처장 일을 맡아 보고 있다.

이 책에서는 <우리 아빠가 어렸을 때도 유치원이 있었을까?>, <말발굽에 채어 죽은 군인은 얼마나 될까?>, <대통령 선거 개표 방송을 보면서...>, <동생에게 소아마비 예방 백신을 맞히면서...>, <코미디언 이주일 씨를 추모하면서>, <우리 반에 생일이 같은 아이가 있어요>, <나의 진짜 몸무게는?>, <책을 많이 읽는다 에 두 가지 뜻이 있다고?>를 썼다.

차성민(okiamcha@hanmail.net)

1970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를 졸업하고 좀더 다양한 분야를 배우기 위해 2년 후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에 편입하였다. 졸업 후 (주)천재교육의 《중3 해법사회》를 공동 집필하였다. 부천북중학교의 행복한 사회 시간, 그녀는 아이들의 눈에서 꿈을 읽는다.

학생들과 교감하며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이 책에 실린 글들을 감수해 주셨다.



제1판 1쇄 발행 · 2003년 8월 5일

제1판 2쇄 발행 · 2003년 12월 10일

지은이 · 구정화 · 김찬호 · 안병근 · 이기원

감수 · 서범석 · 차성민

기획 · 김선옥 · 최종록 · 유영호 · 이명희

디자인 및 진행 · (주)예감기획(02-337-3810)

펴낸곳 · 통계청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전화 · 042-481-2382~4

팩스 · 042-481-2474

홈페이지 · www.nso.go.kr

발간등록번호 · 11-1240000-000390-01

ISBN 89-88936-90-6 43310

값 8,000원

© 2003, 통계청

* 구입 신청은 통계쇼핑몰(www.nso.go.kr/shopmall)이나
대한통계협회(02-3443-7954~6)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